

第7章 民俗文化

第1節 序 說

대구시사의 일부로서 민속은 다음 몇가지 점에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대구라는 공간적으로 한정된 지역의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 첫째는 이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둘째는 그 역사의 시간대를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느 시점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이며 마지막은 어느 계급 또는 계층의 역사를 쓸 것인가의 문제이다.

민속은 ‘민의 습속’으로서 전통사회에서는 하층계급 즉, 상민의 생활양식, 가치 및 규범체제를 의미하여, 계급적 신분구조가 와해된 시기 이후에는 사회학적 계층 구분으로서 중·하층민 또는 전체 인구학적 면에서 다수민이 공유하는 문화를 뜻한다. 이 점에서 민속은 상층계급의 고급문화와 구분되어,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로 존재하고, 민속의 전승은 유형적인 문화요소를 제외하면 그 담당집단 내에서 구전되어 왔고, 또는 상층계급의 기록에서 부분적으로 편린을 읽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민속을 역사적으로 고찰함에 있어 그것은 기존의 정치, 외교, 군사 등의 연대기와 일치할 수 없고, 오히려 사회, 경제사의 관점에 닿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민속의 기록이 시사의 다른 영역과는 달리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을 파악할 것인가, 그리고 할 수 있는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층민의 문화로서 민속이 기록되지 않고 구전된다거나, 상층민의 기록에서 편린만을 찾을 수 있다 하여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단지 시대를 소급할수록 민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정밀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속의 몰역사성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한다. 반면 이러한 민속의 불분명한 역사성은 민속이 유구한 지속력을 가진 민족의 원초적 문화성을 강조하는 전통으로 탈을 쓰기도 한다. 이에 구체적인 출발이 증명되지 않는 민속현상을 고대사회의 유습으로 소급시킴으로써 근거 없는 역사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민속의 역사성에 대한 과학적인 구명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자료에서 찾아야 한다. 현재의 민속은 그 구전성 안에 역사를 담고 있다. 우리가 조사·수집한 자료는 당대의 민속보유집단이 전대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고, 또한 그 전단계에서도 그러한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이를 우리는 ‘전통문화’라 부르며,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문화요소가 유입되더라도 지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고유의 전통문화라고 말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그 전통현상이 원래의 모

습 그대로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문화외적인 요소—정치, 경제, 사회구조, 기술체계 따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다른 문화적 과정 또는 변화를 함께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래의 양상이 오늘까지 생명력을 지닐 때, 우리는 전통문화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전통문화 현상이 ‘하층민’에 의해 주도되거나, 그들이 그 문화의 주체가 되면 우리는 전통 민속문화라 일컫는다.

다음으로 대구라는 공간적인 범위 안에서 민속을 말할 때, 그것은 민속의 지역성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대구라는 지역으로 한정된 공간의 민속은 다른 지역과의 구별을 그 안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단하게 획을 그어 다른 지역과 민속의 차이를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대부분 대구라는 지역 안에서 조사·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그것을 대구의 민속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례에서 보이기 때문이다.

대구 민속의 지역성을 논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될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문화와 대구의 관계이다. 이는 앞서 중·하층민의 문화인 민속이 상층민의 문화와의 상관관계가 문화 수직적인 위상문제라면, 대구라는 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상관관계가 문화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가 하는 문화의 수평적 위상에 관한 논의가 된다. 즉 대구의 민속이 전혀 고립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의 문화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왔고 또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구의 민속은 그 나름대로 독자성, 즉 다른 지역의 민속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는 한편, 다른 지역의 그것과 공유하는 문화적 성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지역간의 상호교류 및 중앙정부의 영향력 등 많은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지역과 지역간의 교류를 통한 문화의 전파, 통합 따위가 증명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제반 문제들은 시사의 일부로서 민속을 다룰 때 전제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요약하면 현 우리의 시대에서 민속을 중·하층에 속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문화로 인식한다면, 그 문화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공간적 특수성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들을 설정한 다음 출발가설과 접근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한 이후라야 대구의 민속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사 민속편 구성과정은 이러한 기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비록 위원회가 집필기간을 2년으로 충분히 제공하였으나, 자료를 현장에서 수집해야 하는 민속분야는 그러한 시간적 배려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자료수집을 현지조사에 의존해야 하는 민속과 같은 분야는 집필 기간의 문제뿐 아니라 현지조사에 대한 여건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시사 집필에서 이 점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시사 민속편은 자체의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다른 계기로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기술해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第2節 人生儀禮

I. 序言

반 겐넵(A. van Gennep)이 통과의례(ritus de passage)란 용어를 사용한 이래 오늘날 이 개념은 한 개인이 사회에 태어나서 특정한 시기에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문화적으로 규정한 여러 단계의 의례를 뜻하며, 그것은 개인의 생물학적 연령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세계 모든 사회의 보편성을 지니는 현상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에서 통과 의례와 유사한 용어로 ‘冠婚喪祭’를 옛부터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민속의 담당층인 중·하층 계급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상층계급에서 시작되어 점차 하층계급의 문화로 유입된 것이다. 상층계급의 관혼상제도 원래의 우리 문화에서 자생적인 것보다는 중국의 예서에 따른 것으로 중심적인 것은 禮記, 周禮, 家禮의 三禮에 준하여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이 원칙이 다시 각 지방 또는 개별 문중의 성격에 따라 약간의 변용을 보이면서 전승되어 온 까닭에 ‘家禮’ 즉 집안마다 차이를 보이며 후대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상층계급—양반 계급—의 문화요소가 다수인 중·하층계급의 문화로 언제, 어떻게 수용되어 전승되는지에 대한 연구보고는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다. 이 문제는 여기서 논외로 하고, 관혼상제 중에서 과거 뿐 아니라 현재까지 민속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출생의례와 회갑례를 포함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관례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양반계급에 한정된 이유로 여기서는 제외한다.

II. 出生儀禮

출생의례 중에서 祈子俗, 산전속, 산후속은 임신부 또는 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고, 칠일(초칠일, 두칠일, 삼칠일), 백일, 돌은 출생 당사자가 의례의 대상이 된다. 아래는 위의 여러 출산의례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그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의 실제 양상을 대비하여 그 변화의 모습도 조명한다.

1. 祈子俗

출산의례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기자속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출산의례에 포함하기는 어

럽다. 출산과 관련된 풍속이 아니라 출산을 위한, 정확히 말하면, 잉태를 기원하는 의례이기도 하거니와 일차적으로 사내아이의 잉태를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부계친족제도 아래서 가계의 계승은 곧 아들의 출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욕구의 발현이 기자숙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의 전통사회에서 자식,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녀자에게 七去之惡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책이었기에 부녀자층에서의 기자숙은 일반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기자의 풍습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기에 致誠을 드리는 형식이 많다. 이 경우 특정한 장소는 집안치성을 제외하고는 주술적인 힘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대구지역에서 알려진 곳은 대봉동의 건들바위, 봉덕동의 고산골, 팔공산 갓바위를 비롯한 동화사 부근의 계곡, 대명동의 안지랭이 계곡 그리고 신천변 따위이다. 치성시기는 3자나 7자가 들어있는 날, 즉 3일, 13일, 23일, 7일, 17일, 27일이며, 치성을 드리는 사람은 잉태를 원하는 당사자(부녀자)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할머니, 시어머니가 되기도 한다.

집안치성은 그 장소가 큰방(안방)의 옷목에 삼신상을 차리거나, 부뚜막, 성주단지, 두지단지, 장독대 등도 치성장소가 된다. 이렇듯 과거 집안의 가신신앙 대상이 치성의 신격이 되고, 앞서 언급한 특정한 장소에서의 치성도 그 신격은 삼신(할매), 용왕님, 조상, 부처님(절의 경우), 산신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치성에는 제수가 준비되는데, 여기에는 다른 祭儀에 사용되는 육류(쇠고기, 돼지고기)와 ‘비린것’(생선)은 사용하지 않는다. 기자치성의 제수는 주로 백절, 밥, 물, 대추, 참기름, 쌀, 과일, 명태, 미역국, 찻불, 돈 등으로 준비된다. 그러나 실제 치성시에는 위의 것 중 몇몇을 선택하여 제수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백절, 명태(방촌동), 밥, 미역국 그리고 물(신매동), 돈과 쌀(봉무동), 이러한 양상의 기자숙이 대개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기억에서 조사된 과거의 관습이기에 그들의 생애의 맥락에서 보면 대개 40~50년 전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대구시의 다수의 사람들이 행하는 기자숙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 문제는 여기서 다뤄질 수 없기에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2. 產前俗

출산의례로서 본격적인 시작은 산전숙으로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다. 기자숙이 잉태를 기원하는 일부의 관습이라면 산전숙 이후의 의례적 행위는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이다. 산전숙은 임산부와 그 가족성원에게 의무화된 금기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금기는 특정한 행위나 행동의 규제와 특정한 음식에 대한 금기로 크게 나뉜다. 여기의 금기사항은 태교라 일컫는

행위와 직결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금기사항 자체가 곧바로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의 극히 적은 금기의 사례에서도 그대로 실증된다.

1) 임부의 금기

(1) 행위금기

- 눈 속이면 안되고, 담을 타넘어서도 안되고, 빗자루를 못갈고 앉으며, 방앗간(디딜방아틀)을 갈고 앉으면 재보가 된다(매호동).
- 문지방에 앉지 않고 모서리에 앉지 않는다(방촌동).
- 남의 것을 훔치면 안되고 불이 난 것을 보아서도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기 입이 삐뚤어진다(봉무동).
- 이빠진 그릇을 쓰지 말고 기울어진 자리에 앉아서도 안된다. 출산달에는 문을 바르거나 구들장을 고치지 않고 재를 쳐서도 안된다. 재를 치면 젖이 마르고 한칠 동안은 못을 쳐서도 안된다(칠곡 2동).

(2) 음식금기

- 남의 간장은 안 먹으며, 죽은 고기도 안먹고, 암탉도 임신초기에는 안먹는다(신매동).
- 오리고기, 상어고기, 말고기를 먹지 않는다. 오리를 먹으면 육손, 육발이 되고, 상어를 먹으면 피부가 거칠고, 말을 메어두는 줄을 밟으면 12달 만에 출산한다(불로동, 매호동).
- 문어고기를 먹으면 빼없는 아기가 태어난다(조야동).

이상의 대표적인 몇가지 금기현상에서 보면 임부의 행위금기는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경계의 뜻을 지닌 것이 대부분이고 또한 규범과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주의로 일관된다. 즉 임부의 정상적인 행동양식이 태아의 행동양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음식금기는 남의 것, 죽은 것, 짐승꼬리 부분, 초상집 음식 등이 대상이 되며, 이는 전통적으로 신성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음식이 금기의 대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거 전통사회의 맥락에서 볼 때, 고기음식을 일상식으로 먹는 것이 하층민에게는 불가능했고 금기음식이 대부분 고기음식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실제 일상생활에서 불가능한 사항이 금기요소로 간주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기현상이 단순히 하층민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면 상·하층 문화관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3. 出產俗

출산과 연관해서 행해지는 행위 및 의례적 현상은 해산, 태의 처리, 삼신상 차림 그리고 금줄로 구분된다.

병원에서의 출산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산모의 산후조리와 활동에 편한 곳이 출산장소로 선택된다. 이는 시택이든 친정이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산부가 거처하던 곳이나 큰방이 일반적이다. 산실은 불을 많이 떼어서 아주 따뜻하게 하고, 아래와 같은 준비물을 마련하다: 실꾸리, 갈래, 헌옷, 가위, 기저귀, 젖, 이불, 아기옷, 솜, 참기름 등이다. 분만은 혼자하는 경우와 도움을 받는 경우로 구분되며, 후자의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을 ‘해부간’, ‘해복구안’, ‘해산구아이’, ‘산파’, 또는 ‘해부간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난산의 경우는 구역질을 하게 하는데, 이는 달비를 끓여 먹이거나 또는 달비꼬지를 베어 입에 물고 있거나 변소에 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외에 ‘佛手散’을 먹이거나 계란, 엿기름, 꿀을 먹이기도 한다.

태는 불에 태우거나 물에 버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태울 경우 부엌 아궁이에 넣거나 마당에서 등겨, 쪼 등과 함께 태운다. 강물에 버리는 것은 극히 드물지만 금호강가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방촌동, 불로동, 봉무동), 그리고 태워서 물에 띄우는 사례도 있다(칠곡 2동).

삼신상을 차리는 이유는 삼신할머니가 신생아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상을 차리지 않으면 아이가 자주 울고, 산모의 젖이 적어지면 아이가 새파랗게 넘어가 위험해진다고 한다. 삼신상은 출산 직후, 출산전, 또는 출산끼가 있을 때 등 마을에 따라 차리는 시기가 달라진다. 삼신상의 내용물도 찬물만 차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칠곡 2동) 쌀, 물, 미역, 명태를 올리는 경우(신매동), 쌀, 물, 미역과 함께 첫국밥을 상에 차리는 경우(조야동)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삼신상에 올렸던 식량과 음식은 산모와 식구들이 먹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삼신상은 한칠이나 삼칠까지 놓아 둔다.

금줄은 원새끼로 만들어 해산을 알리고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해 대문이나 방문 앞에 건다. 아들일 경우에는 숯과 고추를, 딸일 경우는 솔잎을 단다(평광동). 또는 아들의 경우 고추, 숯, 미역을 딸일 경우 미역과 숯을 다는 사례도 있다(봉덕동). 금줄은 칠일이 지나면 걷어내지만 10일이나 삼칠일까지 쳐두는 곳도 있다. 금줄의 처리는 태우거나 나무에 걸어두거나 혹은 강물에 띄워보내는 경우도 있다.

4. 產後俗

산후속은 주로 산모의 산후조리와 관련된 금기사항과 신생아의 건강에 대한 사항들로 이뤄진다.

〈산모의 금기〉

- 개, 닭, 돼지고기는 먹지 않고, 김치도 안먹으며 여문 것도 피한다.
- 야물고(딱딱한), 매운 것을 안먹고 무우국도 먹지 않는다.
- 무우를 깨물어 먹지 않고 차운 것도 먹지 않는다.
- 차운 물, 야문 음식, 신것, 매운 것을 피한다.

이상과 같은 피하는 음식 외에 권장되는 음식으로 미역국, 맨간장, 쌀밥은 어느 곳이든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신생아의 음식은 산모가 젖이 나오기 전에는 밥을 지을 때 떠낸 밥물에 꿀이나 설탕을 타서 먹이거나, 상주가 아닌 사람의 젖을 얻어 먹이기도 한다. 아이의 목욕은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서 몸을 닦아 내는 방법으로 행하되 머리, 뺨, 입,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매일 씻겨준다. 아이는 태어나서 삼일동안 옷을 입히지 않고, 삼일째 되는날 목욕 후 옷을 입힌다. 특히 삼일째 되는 날은 산모도 부엌에 들어갔다가 와야 한다고 한다.

5. 칠일행사

칠일행사는 초칠일, 두칠일, 삼칠일로 나뉜다. 초칠일은 금줄을 걷음으로써 집 외부와 연계를 다시 시작하는데, 이 때 이웃사람들에 연락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한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잘 사는 집’에서 하는 것이며, 보통 미역국, 밥, 찬물을 떠놓고 삼신에게 빌고난 뒤 이를 산모에게 다시 차려 주는데 ‘칠국’이라 부른다. 두칠일(두이레)은 안하는 곳도 많으며, 하는 경우엔 초칠일과 별로 다르지 않다.

삼칠일은 신생아를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공개하는 날로 여겨지면 이날 이후로는 금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초칠일과 마찬가지로 밥과 국으로 삼신상을 차리고, 삼신을 보고난 후 친척과 이웃을 불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이 삼칠일의 국과 밥을 먹으면 명이 길어진다고 얻어 먹으러 오는 경우도 있다.

6. 백일과 돌

백일날 삼신상을 차리기 위한 음식은 칠일행사와 마찬가지로 물, 미역국, 밥이다. 백일상으로 특별히 마련되는 것은 밥, 미역국, 물, 백편, 백점, 떡, 과일, 묵 등의 음식이 있고 실, 돈 연필, 공책 따위의 물건이 함께 준비된다. 여기서 실은 수명을, 돈은 부를, 연필과 공책은 재능있기를 신생아에게 기원하는 뜻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삼신에게 빌 때 명은 ‘동방삭이’에게

빌고, 복은 ‘석순이(석승)’에게 빈다고 전한다. 백일날은 가족, 친족 뿐 아니라 이웃사람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 잔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예컨대 ‘옛날에 아들이 귀하면 떡을 백개 만들어서 장날 삼거리나 사거리에서 백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다’(월배 3동, 진천동)고도 하는데 백날 잔치가 신생아의 명과 복을 비는 일에 주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어나서 만 일년이 되는 날인 돌날은 삼신상과 같은 미역국, 밥, 물, 떡(백점), 과일 등의 음식으로 상을 차리고, 그와 함께 연필, 책, 먹, 붓, 쌀, 활과 화살, 실, 돈 따위의 물건을 상 위에 올려둔다. 이 물건은 신생아의 장래를 점치기 위한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써, ‘돌잡이’가 그 중 하나를 잡았을 때 그 물건에 따라 아이의 장래는 점쳐진다. 예컨대, 실 또는 실구리는 명이 길고, 책이나 연필은 재주가 있고, 돈은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돌날 아이는 돌옷을 차려 입고 허리에는 돌주머니를 차는데, 잔치에 방문한 친지나 이웃은 여기에 돈이나 실 따위를 넣어 준다. 돌떡으로는 백떡과 수수떡을 주로 하는데 백점은 콩을 넣지 않으며 수수떡은 아이의 명이 길어지라고 한다. 그리고 ‘콩마시기’ 또는 ‘망세기’라고 하는 구멍떡을 만드는데, 이것은 쌀가루를 반죽해서 속이 비도록 한 다음 콩고물을 묻힌 것으로 아이의 속이 넓어지라는 뜻으로 한다고 한다.

III. 婚禮

혼례에 대하여는 중매에서 혼례식과 그 이후의 의례를 구분하여 제보자들의 공통된 언급을 예서의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1. 婚前禮

(1) 議婚

의혼은 혼인하는 당사자의 양 집안 사이에 혼사에 관한 일의 결정과 그에 따른 문서를 교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때 중매인 즉, 媒者는 양 집안 사이에 서신의 왕래를 대신하여 四星을 가지고 가기도 한다. 그러나 중매인은 혼자 다니기 보다는 한 집안의 친척과 동행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사람이 상대 집안의 배우자의 행동거지를 파악하는 일을 담당하는 바 이를 ‘간선’ 또는 ‘간택’이라 한다. 과거에는 이 ‘간선’에 의해 신부감이 마음에 차면 빗자루를 깔고 앉는 것으로 표현했다.

현재는 중매혼에서 이러한 의혼과정은 사라지고 혼인 당사자들간의 맞선이 우선한다. 맞선

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부모의 집안 어른을 동반하여 시내의 다방에서 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전통혼사회에서 중요시되는 궁합은 미력하나마 아직도 존재가치를 지니지만, 현재는 당사자의 사람됨, 생활력, 경제력, 학력, 용모 따위가 성혼의 조건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2) 納采

의혼에 의해 혼사가 합의되면 양가에서는 청혼서(신랑집)와 허혼서(신부집)를 교환하고, 의혼서 교환 후 신랑집에서 사성을 보내고, 신부집에서는 택일을, 즉 涓吉해서 보낸다. 요즈음은 이 두가지를 함께 보내고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성은 생년월일을 말하며 한지나 簡紙에 신랑의 사주를 써서 봉투에 넣는다. 이때 내피봉은 그대로 두고 외피봉만 봉하여 전면에는 四聖이라 쓰고 뒤에는 ‘謹封’이라 적는다. 그리고 따로 涓吉을, 즉 혼인날 가려주기를 청하는 글을 쓰는데 이를 ‘禮簡’이라 한다. 사성과 예간은 함께 싸릿대를 넣고 청실과 홍실로 싸는데 청실은 위에서 밑으로, 홍실은 밑에서 위로 감으며 끝매듭은 동심결로 한다. 이것을 신부집으로 가져갈 때는 안은 청색, 밖은 홍색의 보자기에 싸서 중매인 또는 ‘다복한’ 사람편에 보낸다. 사성을 받은 신부집은 사성을 쓴 한지와 같은 크기의 종이에(세로 7촌 가로 1척)혼례식의 연월일시를 적어 봉투에 넣고 전면에 연길, 후면에 ‘謹封’이라 써서 신랑집에 보낸다. 특히 택일시에는 신부집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신랑감으로부터 사전에 양가의 음양오행에 어긋남이 없는 날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3) 納幣

택일을 받은 신랑집에서는 혼수와 혼서를 함께 넣어 보낸다. 이를 ‘送服’, 또는 ‘물목보내기’라고 하며 이것을 받는 의례를 납폐라 이른다. 송복은 중매인이나 다복한 사람을 ‘함진애비’로 삼아 대례 당일날 신랑보다 먼저 도착하여 초례 직전에 납폐의식을 치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전이나 며칠전에 가져 가기도 한다. 신식 혼례가 보편화된 요즈음에는 대부분 혼례식 전날 가져간다.

혼수함에는 혼수지를 제일 밑에 넣고 그 위에 玄纁이라고 하는 신부의 옷옷감, 중벌, 패물, 옷감, 이부자리감, 청실 홍실 두타래 그리고 이것의 목록을 적은 ‘물목’을 넣는다. 그 위에 고치푸숨을 이리저리 흩어 놓는다. 과거에는 여기에다 서너개의 고추, 기장, 조의 이삭을 함께 넣기도 했다. 함에 혼수를 다 채운 다음 내용물이 흔들리지 않게 싸릿대를 지르고, 붉은 보자기에 싸서 묶고 종이에 ‘謹封’이라고 써서 봉한다. 함진애비가 신부집 근방에 오면 동네 청년들이 달려 들어 그의 얼굴에 숯검정을 묻힌다. 이 때 함 팔려는 함진애비와 신부집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요즈음 신랑 친구, 특히 처아들 낳은 친

구들이 함진애비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함이 신부집 대청의 상위에 올리지면 신부측 혼주가 함을 받고, 이 때 여자 중 한 사람이 함 속에 손을 넣어 잡히는 채단의 색을 보고 첫아이의 성별을 점친다. 청색이면 첫아들이고 홍색이면 첫딸을 낳는다고 한다.

2. 親迎

택일에 의해 혼인날이 정해진 다음 양가 사이가 가까울 때는 신랑이 혼례 당일날 집을 떠나거나, 거리가 멀 경우에는 하루 전에 신부집 근처에 와서 묵게 된다. 신랑이 집을 나서기 전에는 부모에게 절을 하고 혼례치룸을 알리면, 부모는 어른됨을 축원하는 덕담을 해주게 된다.

(1) 初行

신랑이 신부집에 갈 때는 청사초롱을 든 사람과 나무기러기(木雁)¹⁾을 든 사람이 앞에 서고 上客, 後行, 함진애비 순으로 신랑을 따른다. 상객(또는 尊客)은 조부, 백부, 숙부, 말형 등 경우에 따라 신랑집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 후행은 친척들이 따르며, 함진애비와 목안을 들고 가는 ‘기력애비’는 친구들이 맡는다²⁾. 신랑은 상투를 틀고 두루마기 차림으로 신부집이 가까우면 가마를 타고 멀면 말을 타고 간다. 혼례시 입을 紗帽冠帶는 따로 들고 간다.

신랑 일행이 신부집 가까이 이르면 신부집에서는 대반을 내보내어 신랑 일행을 신부집을 지나치지 않는 곳에 거처를 정하여 머물게 한다. 이를 ‘정방’이라 하고 오행에 따라 위치와 방위가 결정된다고 하며, 대개는 신부집의 바깥 사랑이나, 사랑이 없는 경우엔 이웃집의 방을 빌어서 정한다. 신랑과 일행은 여기서 ‘정방상’으로 불리는 간단한 음식을 대접받고 있다가 혼례시간의 통지가 오면 사모관대로 예장³⁾을 갖추고 대례청으로 간다.

(2) 奠雁禮

혼례 시각이 되면 신랑은 기력애비와 함께 신부집으로 간다. 이때 기력애비는 목안을 붉은 보자기에 싸서 기러기 머리를 왼쪽으로 가게 하고 신랑 뒤를 따른다. 신부집에서는 대청이나 마당에 차일을 치고 병풍과 휘장을 둘러 대례식장을 차리고, 신랑이 대문 앞에 오면 주인이 나와 읊을 하며 맞이한다.⁴⁾ 이 시점부터 학식있고 혼례 절차를 잘 아는 ‘깨끗한 사람’이 혼례

1) 혼례에 목안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확치 않으나, ‘기러기 정조 굳은 동물’이라든가 ‘겨울에 왔다가 여름에 북쪽으로 가는 음양조’라든가 또는 ‘깨끗한 새’라는 제보가 있다.

2) 과거 양반의 경우는 하인의 몫이었다.

3) 신랑의 복색은 사모관대와 홍배를 문관의 복색을 하고 黑靴를 신는다.

4) ‘가리는’ 집에서는 이때 대문 앞에 짚불을 지펴놓고 신랑으로 하여금 그것을 넘게 한다.

를 집행하는데 혼례는 그가 부르는 笄記에 따라 진행한다.

주인이 신랑을 대례청 한 쪽에 마련된 奠雁禮를 행할 곳으로 인도해 가면, 신랑은 뒤따라온 기력애비에게서 목안을 받아 상위에 놓고 두번 절한다. 그 다음 신부 어머니가 목안을 치마 폭에 싸서 신부방으로 던져 주는데, 목안이 바로 서면 아들을 낳고 옆으로 넘어지면 딸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다. 신랑이 다시 재배하고 신부⁵⁾가 행례하려 나오면 교배례가 시작된다.

(3) 交拜禮

교배례는 홀기부르는 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① 婿東婦西: 신랑이 대례상의 동쪽으로 가서 상을 대면하고 남쪽으로 향해 선다.
- ② 新婦出: 신부가 양쪽에서 아낙네(또는 ‘하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대례상의 서쪽에 선다.
- ③ 新婦就席: 신랑과 신부가 마주 보고 선다.
- ④ 行盥洗禮: 대야에 물이 준비된다.
- ⑤ 婿盥于南 婦盥于北: 신랑은 남쪽, 신부는 북쪽을 향하여 서게 한다.
- ⑥ 盥水洗手: 신랑과 신부의 옆에 있는 대반들과 아낙네가 손을 씻는 시늉을 하고 난 다음 신랑, 신부에게 물을 세번 툇긴다.
- ⑦ 各正位: 신랑, 신부가 마주 보고 선다.
- ⑧ 婦先再拜 婿答一拜: 신부가 두번 절하면 신랑은 한번 절한다.
- ⑨ 婿又答拜: 신랑이 다시 절한다.
- ⑩ 各跪坐: 신랑, 신부가 앉는다. 이로써 交拜禮는 마치게 된다.

(4) 合巹禮

교배례가 끝난 후 합근례는 다음의 홀기순으로 진행된다.

- ① 進床: 신랑 앞에는 술과 안주 그리고 밤이 놓인 상이, 신부 앞에는 술과 안주 그리고 대추가 놓인 상이 놓여진다.
- ② 使者斟酒: 대반이 잔에 술을 따른다.
- ③ 初拜除酒: 신랑이 잔을 들어 마시는 시늉을 하고 퇴주한다.
- ④ 又斟酒: 다시 잔을 들어 마시는 시늉을 하고 퇴주한다.
- ⑤ 三酒換配: 신랑의 잔에 청실을 감아서 신부에게 보낸다.
- ⑥ 婿揖婦: 신부의 잔에 홍실을 감아서 신랑에게 보내어 마시게 한다.

5) 신부의 복색은 청색 저고리와 홍색 치마를 입고 圓衫 쪽두리에 이마와 볼에 연지를 찍고 눈꺼풀에는 메밀 기름을 바른다.

⑦ 舉食：상위의 안주를 집어서 먹는다.

⑧ 禮畢撤床：상을 물리고 예를 마친다.

교배례 상차림은 집집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금슬 좋은 원앙새를 대신하여 장닭과 암탉을 넣고 찹쌀 혹은 쌀, 밤, 대추, 은행, 꽃감 따위의 과일 그리고 용떡과 전, 명태포 등이 올려진다. 사철나무인 소나무와 대나무 가지 혹은 동백나무 가지를 넣고 청실과 홀실을 꼬아서 걸어둔다. 합근례가 끝나면 밤과 대추는 신방에서 먹으라고 신랑주머니에 넣어준다.

(5) 相見禮

대례를 마치면 신랑, 신부는 함께 방으로 들어가 비로서 상견례를 행한다. 즉, 신부는 신랑에게 처음으로 얼굴을 보여주게 된다. 그 다음 신랑은 다른 방으로 가서 신부집에서 준비한 두루마기로 갈아 입고 사랑에 머물고 있는 상객에게 가서 혼례가 끝났음을 아뢴다.

신부집에서는 신랑과 상객에게 큰상을 차려 대접을 하는데 음식은 가능한 한 많이 차린다. 예컨대 과일은 상위에 한자 정도 쌓고, 경우에 따라선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안보일 정도로 피기도 한다. 상객의 접대는 연령이 비슷한 깨끗한 사람들이 한다. 신랑과 상객이 상을 물리면 그 위에 있던 음식은 닦아서 신랑집에 보내는데 이는 신랑집에서 신부집의 음식 솜씨와 살림 규모를 가늠하는 것이 된다.

(6) 新房

신방은 대개 신부집 안방에 병풍을 치고 새 자리를 깔아서 꾸민다. 신방에는 밤, 대추, 과자, 술 등으로 또는 잔치 음식으로 ‘야물상’을 차려 준다.

신방에서 신랑, 신부가 첫날밤을 치르게 되면 ‘수신방’ 또는 ‘신방지키기’라 하여 동네 아낙네들과 젊은이들이 문에 구멍을 뚫고 들여다 보는 관습이 있다. 첫날밤 촛불은 불어서 끄면 복이 달아난다 하여 신랑은 손가락이나 젓가락 또는 이부자락으로 불을 끈다.

첫날밤이 지나면 신부는 신랑보다 먼저 일어나 대례상에 놓였던 용떡을 썰어서 떡국을 끓여 신랑이 일어나면 대접한다. 아침을 마친 신랑은 장인과 장모 그리고 신부의 근친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예를 갖추는다.

3. 혼례후 관습

(1) 東床禮

동상례는 혼례후 신랑의 처족들이나 마을 청년들이 신랑과 안면을 익히고 정을 나누기 위해 신랑을 대접하는 관습이다. 동시에 신랑에게 장난기 섞인 고통을 가함으로써 신랑의 기지

와 인내력을 시험하는 놀이도 수반된다. 처족이나 마을 청년들이 함진에비가 함질 때 사용했던 면포로 신랑의 다리를 묶어서 거꾸로 매달고 마른 명태로 신랑의 발바닥을 치면서 ‘육례가 무엇인가’. ‘장가가는데 어떤 것인가’, ‘색시값을 얼마낼 것인가’ 따위의 농담을 하면서 장난을 친다. 신랑은 우물쭈물 하게 되고, 발바닥을 때리는 것은 장인, 장모가 나와서 말리며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2) 于歸(新行)

신랑은 첫날밤 후 하루를 더 신부집에서 묵고 삼일째 되는 날 본가로 돌아가는데 이를 ‘삼일우귀’라 한다. 그러나 양가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신랑은 신부집이 보이지 않는 곳이나 이웃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고 신부집으로 다시 오는데 이를 ‘인재행’이라 한다. 이 관습은 삼일우귀가 보편화되지 않은 채 신부집에 신부를 남겨둔 상태로 신랑이 본가와 처가를 ‘재행 걸음’으로 오다가 해를 묵혀서 신부를 대려간던 관행의 유습으로 볼 수 있다.

요즈음은 예식을 마치고 삼일만에 신부가 시가로 가지만, 예전에는 ‘목신행’이라 하여 신행을 한해 묵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우귀의 날짜가 정해지면 양가에서는 잔치를 벌인다. 신부집에서는 신부가 시가로 떠남을 일가친척에게 알리고 하직인사를 한다. 떠나기 전에는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면 부모는 시댁에게 지킬 도리와 칠거지악에 해당되는 행동거지 따위를 하지 말도록 당부한다. 신행에는 신랑과 신부 외에 상객과 후행이 뒤따른다. 상객은 경우에 따라서 신부의 조부와 부친, 또는 백부나 숙부, 오라버니가 되고, 후행은 신부를 도와 줄 아낙네(또는 ‘하님’)와 짐을 나르는 짐꾼으로 구성된다. 신부는 가마를 타게 되는데 가마의 문을 제외한 삼면은 살바로 두르고 虎皮를 씌운다. 이는 액을 막고 잡귀를 피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단, 즉 물목이나 음식은 홀수로 만들어 서로 포개지지 않게 한 사람이 하나씩 지고 가며 ‘사돈지’와 ‘문안지’를 함께 넣는다.

(3) 見舅姑禮

시가에 도착하면 신부는 ‘현구례’또는 ‘폐백’이라고 하는 의례를 치르는데 이는 시가의 어른들께 큰절로 첫인사를 드리는 절차이다. 친정에서 준비하여 간 술, 닭찜, 밥, 대추 따위의 음식으로 상을 차리고 시부모로부터 시작하여 촌수와 향열에 따른 시가집의 가까운 친척에게 절을 올린다. 이때 직계친에게는 四拜를 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한번 절하며 동향열의 형제자매나 사촌과는 맞절을 한다. 절을 받은 어른들은 상위의 대추와 밥을 신부에게 던져 주며 부귀다남할 것을 축원한다. 경우에 따라서 폐물을 건네 주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은 절

값으로 돈을 건네 준다. 신부가 시어머니에게는 특히 잣과 엿을 올리는데 이는 잣을 까느라고 또는 엿을 먹음으로써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현구례가 끝나면⁶⁾ 신부는 안에서, 상객은 바깥에서 각각 큰상을 받는다. 이때도 대반이 있어 술과 음식을 권하지만, 먹는 시늉만 할 뿐이고 술과 음식은 싸서 신부집으로 보낸다.

媿家에 온 다음 날 신부는 일찍 일어나 시부모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조석사관’이라 하여 신부가 가지고 온 음식을 올린다. 이때 ‘사관엿’을 함께 놓는다. 둘째날은 친척들과 동네 아낙네들이 몰려와서 신부가 장만해 온 옷가지 등을 구경한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에게는 버선 한 켤레씩 주는 것이 예의이다. 또한 찰떡이나 엿을 돌려서 입막음을 한다. 삼일째 되는 날부터 신부는 부엌에 들어가거나 일을 하기 시작한다.

(4) 觀親

신랑과 신부가 근친을 가는 것은 그것으로 혼례의 예가 모두 마쳤음을 뜻한다. 근친의 시기는 날을 보아 결정하지만 닳세만에 가기도 하고 석달이나 다섯달 지난 후 또는 해를 넘긴 다음에 가기도 한다. 근친갈 때는 신부가 시댁에 와서 처음 지은 곡식으로 떡과 술을 빚어 가져간다.

IV. 葬喪禮

상례는 한 인간이 거치는 일생의 마지막 의례로 당사자는 의례의 주체가 되지만 실제 이 의례는 그 자손이나 친인척에 의해 시행된다. 喪이란 죽음을 뜻하며 특히 자녀가 부모의 사망을 말할 때 상이라 하며, 상례는 주검의 처리방법, 거처, 또한 죽음에 대한 운명관, 세계관 등이 함축적으로 표현된 의례이다. 한국인은 고래로 生者에 대한 의례보다 死者에 대한 의례를 더 중시한다. 이는 사자에 대한 의례가 상례에서 끝나지 않고 祭禮로 이어지는데서도 조상숭배 관념에 대한 깊은 뿌리를 엿볼 수 있다.

다른 인생의례와 마찬가지로 상례도 조선시대 이후 三禮(예기, 주례, 가례)에 준하지만 實修 과정에서 지역적 또는 집안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또는 이 상례에 따른 예속이 양반의 관습이었기에 중·하층의 그것과의 상하관계도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현 시점에서 볼 때 하층민의 문화양태에 양반문화 지향성이 강함을 고려할 때, 양반의 상례가 민속의

6) 양반의 경우 현구례 다음에 見祠堂이라 하여 제물을 차려 가지고 사당으로 가서 절을 하고 잔을 올린다.

기준이 되어왔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상례는 전체 절차가 예서에서는 初終에서 吉祭까지 18개로 구성된다, 이에는 문상은 제외되어 있다. 한편 일반화된 관습에는 대개 11개의 절차로 이뤄지면, 경제적, 사회적 여러 여건에 의해 간소화된 것으로 보여준다.

1. 初終

초종은 亡人이 숨을 거둘 때부터 시신을 습하고 염하는 절차를 말하며 또한 숨을 거둔 시간부터 入棺까지의 의례를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한다.

(1) 臨終

임종은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임종시에는 亡者의 자손이나 친척들이 함께 지켜본다. 이는 망자가 더 이상 살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집안 사람들은 그 자손과 친척에게 연락하여 임종을 하גע끔 사전에 연락을 한다. 임종을 보는 것은 망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의미와 함께 그의 遺言을 듣기 위한 뜻도 함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임종이 갑자기 닥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종시의 유언은 일반적으로 없다고 한다.

(2) 阜復(招魂)

고복은 임종후 망자의 육체를 떠난 혼을 다시 육체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하거나 또는 혼히 공중에 떠다니니 안식하라는 뜻이라고도 한다. 초혼의 방법은 망자의 속적삼이나 적삼을 들고 ‘아무 어른요’하거나 또는 宅號를 부르며 ‘복 복 복’이라고 한다. 다른 방법은 ‘여기는 어디이고, 여기는 어디고’ 하면서 망자가 거주했던 장소를 말한뒤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서오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복을 외치는 장소는 지붕 위에서도 하고, 아니면 복을 외친 다음 망자의 옷을 지붕에 올리거나 측간 옆에 끼워 두기도 하고, 또는 집밖으로 던져 버리기도 한다.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은 혼이 뒤에 있기 때문이요. 죽은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혼을 다시 육체에 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도 망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정말 죽은 것으로 인정한다. 초혼시 ‘복 복 복’하고 외치는 사람은 망자의 근친, 망자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또는 남이 하여도 된다.

망자의 옷을 지붕 위로 올리거나, 측간 옆에 끼워 두는 경우에는 고복한 후 시신이 있는 방에 상을 차려서 혼을 모신다. 그러나 지붕 위에서 초혼을 하고 옷을 가지고 내려 오는 경우는 혼히 그 옷에 붙었다 하여, 그 옷을 빈소에 걸어둔다.

(3) 使者床

사자상은 망자를 저승으로 데려가기 위한 저승에서 오는 ‘저승차사’를 위해 차리는 상이다. 사자상 차리는 것이 예서에 없는 항목이기에 양반출신 집안에서는 차리지 않는 곳도 있지만, 사자상은 일반화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근거가 된 현지조사 자료는 대구시의 班家 中心으로 수집되었기에 사자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사자밥을 하는 것은 미신이어서 우리같은 儒家에서는 그런 미신을 안 믿는다’ 라든가 ‘사자상을 차리는 것을 잘 모르며 저승사자에게 준다고 노자와 밥그릇을 차리는 것은 요사이 생긴 풍습으로 예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다’라는 자료가 있을 뿐이다.

(4) 收屍

수시는 고복이 끝난 후 시체가 굳기 전에 시체를 바로 하여 간단하게 묶어두는 행위를 말한다. 우선 屍床을 마련하여 시신을 옮겨 놓고 흠이불로 덮은 다음에 병풍을 친다. 병풍 앞에는 始死奠이라는 상을 놓는데 상 위에는 魂帛을 만들어 놓고 생전 음식보다 나은 酒果脯醢를 차린다. 혼백은 백지로 접어서 신을 빙의하게 하는 것으로 요즈음은 대부분 장의사에서 만든 것을 쓴다. 과거에는 대개 四通五達로 접어서 束帛을 한다.

그리고 銘旌도 이 때 만드는데 명정에는 本貫을 사용하며 남자는 ‘某貫某公之柩’라 쓰고 여자는 ‘某封某貫某氏之柩’라고 쓴다. 명정은 명주에 쓰며 대나무로 깃대를 만들어 靈座 옆에 세워 둔다.

(5) 訃告

상을 당하면 관 준비, 수의 및 상복 준비, 손님 접대, 부고 보내기 등 많은 절차를 한꺼번에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분담하게 된다. 그것은 성격에 따라 喪主, 主婦, 護喪, 司賓, 司貨, 贊祝 등으로 喪事를 분담한다. 호상은 상사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사빈은 빈객을 접대하는 사람이며 이는 호상이 맡아서 하기도 한다.

호상은 상을 당한 집안(또는 문중)에서 연세가 높고 덕망이 있는 어른이나 門長으로 정한다. 망자가 덕망있고 훌륭한 분일 경우, 타성이 호상이 되기도 하지만 요즈음은 대부분 本孫이 한다.

호상의 대외적 위치는 부고에서 나타나는데 부고에 망자의 지위를 표시할 때 상주와 호상의 관계에서 적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주가 호상의 再從일 경우 “再從 ○○(상주의 이름)의 大人 ○○(망자의 이름)”이라고 표시한다. 망자의 사망 사유는 老患, 宿患, 急患 따위로 구분한다. 그리고 대인은 바깥어른(아버지), 大夫人은 안어른(어머니)을 나타낸다.)

부고를 전달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傳人을 보냈지만 요즘은 우편,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신문광고를 이용하기도 한다. 국한문 혼용의 부고서식은 다음과 같다. ‘○○(상주명) 대인 ○○○(망자의 본과 명)공 ○○(망자명)께서 숙환으로 一九○○年 ○月 ○日 ○時 ○○分 자택에서 별세하였기에 茲以부고합니다.’ 그 다음에 발인 의식의 일시와 장소, 葬地 영결식의 일시와 장소 그리고 장지를 알리고 未亡人, 嗣子, 女息, 孫, 子婦, 壻, 外孫, 外孫子 순으로 망자의 후손명을 기록한다. 요즈음은 경우에 따라 친족대표나 우인대표의 이름도 함께 쓴다. 마지막에는 호상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한다.

2. 襲殮

襲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 입히는 절차를 말하며, 殮은 小殮과 大殮으로 구분되는데, 소렴은 시신을 임시로 묶는 것이고, 대렴은 시신을 단단히 묶어 입관하는 것이다. 습은 初終이 끝나고 사망한 다음날에 시행하고, 소렴은 사망후 이튿날, 대렴은 삼일째 날에 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습렴’이라 하여 두 절차를 붙여 말을 하고 당일날 함께 한다.

습렴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친족들이며, 이는 나이든 어른들의 지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요즈음은 대부분 장의사가 담당한다. 친척이 할 경우 망인이 남자이면 남자가, 여자이면 여자가 하였으나, 직접 친족이나 후손이 하는 사례는 없어지고 있다.

예서의 습의 절차는 掘坎, 沐浴, 襲, 哭, 飯盒, 設療, 設靈座, 立銘旌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절차는 실제에 있어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 대개 임종을 하면 임종시 입었던 옷을 새옷(수의, ‘평생옷’)으로 갈아 입힌다. 이때 香湯물을 흰솜에 묻혀 시신을 닦고 손발톱을 깎으며 머리를 빗긴다. 손발톱은 ‘오랑주머니’(爪髮)에 넣어 두었다가 대렴때 관에 함께 넣는다. 망자의 입에는 버드나무로 만든 숟가락으로 쌀을 세 번 떠넣고 동전도 넣는다. 수의는 명주와 삼베로 만들며, 과거에는 망자의 환갑때 만들어 드렸다.

예서의 소렴 절차는 小殮, 括髮, 奠, 代哭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는 임종하면 소렴도 바로 한다. 소렴을 임종 후 하루 지나서 하는 것은 망자가 혹시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대렴은 시신을 홍두깨처럼 대렴포라는 麻布로 싸고 매어서 관에 넣는 절차이다. 시신을 관에 넣고 난 다음 補空을 하는데 망자의 입던 옷으로 관을 채운다. 입관이 끝나면 관위에 남자는 ‘某貫某公之柩’라 쓰고, 여자는 ‘某封某氏之柩’라 쓴 다음 삼베를 이용하여 관을 일곱 매듭으로 묶는다. 입관이 끝나면 혼백을 靈座에 넣고 靈影을 놓은 다음 명정은 오른쪽에 걸쳐 둔다.

3. 成服

(1) 成服

에서의 성복 절차는 成服, 食粥, 朝夕奠, 薦新의 순이고 임종후 4일만에 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성복은 상제들이 지금까지 입었던 소복을 벗고 상복으로 갈아입는 절차를 말한다. 성복 전에는 상주들이 두루막을 입어도 오른편을 빼고 두건은 통두건을 쓴다. 성복시에는 상중의 첫 제사인 성복제를 지낸다. 성복후에 상주는 상복을 입고 두루막도 제대로 입으며 두건도 윗부분을 기워 쓴다. 이후 상주는 지팡이도 짚으며 문상 온 사람들의 조문도 받는다.

복은 嫗麻로부터 斬衰에 이르기까지 친등에 따라 복제를 달리하며 집에서 지어 입는다. 상복은 禫祀를 지낸 후 벗으며 그것은 깨끗이 세탁한 후 보관하였다가 차후에 사용한다. 부친상 때의 상복은 모친상 때는 끝 부분을 꿰매어 입는다. 상복제도는 혼상례에 국가가 개입하면서 변화를 겪는데 이른바 ‘가정의례준칙’이 공포되면서 그 변화는 시작된다. 특히 1975년에 개정된 준칙 13조⁷⁾는 기존의 복제를 바꾸어 놓았으나 그 실제적 현황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 준칙에 따르면 굴건제복, 참취, 제취 따위의 격식을 차릴 수 없고 굴건제복 대신 嫗麻服을 입게 되어있다. 시마복은 ‘中衣’로서 도포처럼 소매가 커다란 두루마기인데 삼베로 만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건을 쓰고 흰 두루마기만 입거나 또는 집에서는 굴건제복을 하고 밖에 나갈 때는 삼베두루마기를 입었다고 하여, 전통적 관행이 국가시책에 따른 결과와 그 실제와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성복을 한 이후는 매일 아침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대렴전을 물리고 음식을 차린다. 그 순서를 보면 축관이 분향, 헌작하면 상주 모두는 재배하고 곡을 하며 조전을 올린다. 상식은 아침, 저녁으로 올리나, 이때는 밥과 안주를 차려서 미명에 올린다. 그리고 초하루와 보름에는 제사처럼 떡을 하고 과일, 반찬 등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大小家가 함께 참석한다.

(2) 問喪

問喪은 성복 전과 후가 다르다. 상가의 대문에 “忌中”이라는 표시는 성복 전임을 알리며

7) 1975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7637호의 개정된 준칙 13조에 의하면 “①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복일 경우에는 흑색복장으로 하고, 왼쪽 흉부에 喪章 또는 흰꽃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②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시간은 탈상시까지로 한다”고 했다. 준칙 제11조에 상기를 “①부모,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기타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상주는 죄인이라 문상을 받지 않고 호상이 대신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문상객이 시신이 있는 방에서 곡하면서 ‘아무개 왔습니다’라고 하며 절을 하지 않고 나간다. 물론 상주와도 절을 마주하지 않는다.

성복제를 지낸 다음 ‘기중’이라는 표시는 ‘喪中’으로 바뀐다. 이후 문상객은 시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빈소에서 곡을 하고 상주와 맞절로 인사한다. 상가가 시골 촌락일 경우 빈소는 사랑채 방에 마련되지만, 도시에서는 망자가 거처하던 방이 아닌 작은 방 또는 시신이 있는 방에 차려진다. 현재 도시의 빈소는 대부분 한달이나 49제 또는 100일이후에 탈상 埋魂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문상객의 곡이 內艱喪(안어른상)과 外艱喪(바깥어른상)에 따라 달랐다. 안어른상 때에 문상객은 상주와 함께 곡을 하지 않으며 상주의 곡이 끝남을 기다렸다가 상주와 배례만 한다. 이는 과거 남녀유별하던 때에 평소 안어른을 보지 못한 이유로 곡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다. 바깥어른상에는 문상객이 상주와 함께 곡을 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어지고 문상객의 조문시 곡은 일반화되어 있고, 나아가 곡 없이 분향만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4. 治葬

治葬은 시신을 지하에 매장하는 것을 말하며, 예서에 따르면 葬期和 葬地를 정하고 后土祭를 지내고 광을 파서 灰膈을 만든 다음 墓地石을 세우고 靈輿와 神主를 만드는 순서로 되어 있다.

묘지의 선택에 있어 예서에는 이렇다할 규정이 없으나, 우리 전통에는 길지와 흉지를 구분하여 묘를 쓴다. 일반적으로 하천, 농지, 길을 피하고 토심이 깊고 물이 나지 않는 곳을 선호하니, 산이 장지로 선택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풍수(地官)가 適地를 선정한다.

(1) 擇地

擇地는 집안이나 문중에 先塋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종중산이나 선형이 있으면 그곳에 묘를 쓰는 것은 전래의 관습이지만 현대적 공동묘지는 새로운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택지는 지관(地師)이 담당하며 묘지의 座向, 지형 따위는 망자의 나이와 생일에 따라 결정된다. 나이 든 어른의 경우는 대개 사전에 지관을 통해서 자신의 幽宅을 마련해 둔다.

공원(공동)묘지에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1961)이 공포 개정되면서 일반적으로 정부

차원의 묘지시책에 따르는데, 대구에는 칠곡군 소재의 사설공원묘지를 포함하여 네 곳의 공동묘지가 있고 카톨릭 재단의 천주교 공원묘지가 두 곳 있다. 공동묘지의 이용은 우선 시설비와 땅값을 지불하고 연간 단위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⁸⁾. 법률에 따른 분묘 1기의 한도는 20㎡(6평)이며 대개 4-5평을 선호한다.

(2) 葬日

葬日은 현재 일반적으로 3일을 원칙으로 하고 장례일자가 경우에 따라서 맞지 않는 경우에 4일장 또는 5일장 하는 사례가 있다. ‘가정의례준칙’의 규정인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장일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화된 듯하다.

(3) 遷柩

예서에 따르면 遷柩의 절차는 발인하기 전날 五服人이 모여 아침 奠을 올리고 영구를 사랑으로 옮긴 후 다시 전을 올린다. 그 다음 대청으로 영여를 옮기고 발인까지 대곡을 시키는 순으로 되어 있다. 이때 가까운 친지들은 다시 전을 올리고 賻儀를 한다. 해질 무렵이 되면 遣奠을 올린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친구를 위한 특별한 절차는 없고, 발인 때까지 영구를 그대로 모신다. 다만 출상시 ‘今遷柩就舉敢告’라는 축을 읽는 예가 있을 뿐이다. 상여는 현재 대부분 장의사의 영구차를 이용하지만 ‘잘 사는 사람’의 경우 과거처럼 꽃상여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대구 주변에 현재 상여를 보관하는 옛 곳집을 찾긴 힘들다. 대부분 영구차가 나온 30여 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4) 發靱

發靱은 柩行, 哭步行, 親賓奠의 순서로 예서에 있으며, 이는 실제 장례에서도 그대로 행해진다. 보행의 순서는 方相, 銘旌, 靈輿, 功布, 大輿, 雲輿, 敝輿이 앞서고 그뒤로 상주와 服人들이 곡을 하면서 따르며, 尊長, 無服之親, 손님의 순으로 뒤를 잇는다.

발인제는 영구를 방에서 모시고 나와 상여 앞에 놓은 다음 지낸다. 발인제는 영구를 상여나 영구차에 모시기 위해 지낸다고 한다. 예서에는 없으나 路奠祭가 행해지는데 이는 행상 도중에 상여를 세우고, 영여 앞에 젓상을 차린 후, 모두가 헌작배례하는 제사이다. 발인한 후 늦게 찾아 온 친지가 상여줄을 잡고 슬퍼하는 뜻으로 시나 글을 지으며 곡하는 뜻이 있다고 하며, 망자를 그냥 보내기 서운하여 노제를 지내거나 행상이 지나가는 길에 망자의 친한

8) 대구시의 경우 평균 고시가는 평당 4만5천원, 석축을 쌓을 경우 6만7천5백원, 기본시설비가 정도에 따라 8만~15만원이고 연간 관리비는 평당 2천2백원이다.

친지가 있는 곳에서 행상을 쉬어가라는 뜻에서 음식을 차리고 축을 읽고 제사를 지낸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5) 及墓

묘지가 있는 산에서는 대개 발인 전날 ‘산일’을 한다. 묘를 쓰기 위해 흙을 파내기 전에 開土祭를 지내는데 土神祭의 성격을 띤다. 개토제 후에 산역꾼이 掘墳을 하게된다.

하관은 지사가 정한 시각에 하며, 이때 살이 낀 사람은 잠시 자리를 피하도록 한다. 하관 시에 목관을 뜯어내고 시신만 넣기도 하고 목관을 그대로 넣기도 한다. 석관이 준비된 경우에는 시신만 넣을 수도 있고, 목관을 그대로 넣어 이중 관으로 매장하기도 한다. 하관이 끝나면 향나무 판이나 돌로 만든 뚜껑을 덮는 절차가 따르는데, 이를 ‘封棺’이라고 한다. 하관시 시신의 머리는 북쪽, 발은 남쪽으로 두는데 이를 ‘坐向’이라고 한다. 관이 제자리에 놓이면 부드러운 흙으로 채우는데 요즈음은 석회를 함께 쓰기도 한다. 이를 ‘補土’라 이른다.

보토가 끝나면 상주가 먼저 관 위에 흙을 붓고 그 다음 일꾼들이 매장을 한다. 이는 ‘封’을 만드는 작업으로 ‘沒棺’이라 한다. 봉분이 어느 정도 되면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서서 ‘다리’(달구)질을 하면서 흙이 봉분 안에 고루 다지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봉분 중앙에 꽂아둔 장대를 잡고 달구질 노래를 하며 원을 그리며 돈다. 이때 상주들은 성의껏 돈을 내어서 봉분의 중앙에 꽂힌 장대에 걸어준다. 이 돈은 산역꾼의 몫이된다.

봉분이 완성된 다음에 산신제를 지내는데 이는 舊墓에 告由하는 의미가 있으며, 선형의 경우 윗대 산소에 가서 ‘몇대 후손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아뢴다. 산신제 음식은 산으로 온 조문객들에게 대접한다. 산신제 다음에는 平土祭를 지내고 그 음식은 일꾼들의 몫이다. 평토제가 끝나면 상주는 혼백을 모시고 왔던 길로 돌아 집으로 간다. 집에 다다르면 주부들이 곡을 하면서 맞이하고 작은 방에 차린 빈소에 혼백을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5. 凶祭

治葬이 끝난 후 吉祭까지의 제례를 일컬어 凶祭라 한다. 이는 영좌가 산에서 返魂하여 返魂祭를 지내면서부터 탈상까지의 제례를 뜻한다.

(1) 虞祭

예서에는 虞祭를 初虞, 再虞, 三虞로 나눈다. 사람이 죽으면 三魂七魄(사람의 영혼을 말함)이 있어 육체는 땅에 들어가지만 영혼이 갈 곳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 ‘虞’字를 써서 우제를 지냄으로써 ‘영혼을 사당에 모시니 안정하시오’라는 뜻으로 우제의 의미를 말하기도 한다. 초우

는 반혼하고 난 뒤에, 재우는 그 이튿날에, 삼우는 삼일째 되는 날에 지내다. 초우제는 반혼제이며 장사를 지내고 혼백을 산에서 가져온다고 하고, 평토제는 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혼백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또는 반혼제인 평토제는 혼백을 집으로 모시고 간다는 고유이며, 반혼을 한 뒤에야 비로서 초우제를 지낸다고도 한다.

초우제는 저녁 상식을 겸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우제는 아침에 지내며 삼우제를 지낸 다음에는 성묘를 가는데, 이때는 장사때 따라가지 못한 여자들이 함께 간다.

(2) 卒哭

예서는 삼우를 지낸 후 剛日이 되면 卒哭祭를 지낸다고 이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삼일만에 지내기도 하고 열흘 이내 또는 석달만에 졸곡하는 수도 있다. 졸곡제가 끝나면 아침, 저녁으로 하던 곡을 그치고 상주의 바깥 출입도 자유로워진다.

(3) 耐祭

부제는 졸곡 다음 날 하는 것으로 예서는 적고 있으며 망자의 영혼이 죽은 조상 곁에 가서 함께 하도록 기원하는 제사로 여겨진다. 현재는 부제를 지내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4) 小祥 大祥

小祥은 사후1주기에, 大祥은 사후2주기에 망자를 추모하는 제사이다. 소상은 슬픔이 가셨다는 것이고, 대상은 슬픔이 완전히 가셨다는 뜻이 있다고 한다. 백일 또는 49일 탈상이 일반화된 요즈음은 이러한 의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과거에는 대상이 끝나면 백립을 쓰고 백립을 쓴 지 석달이 지나면 담제를 지내고 이후로는 평복으로 돌아간다.

6. 禫·吉祭

삼년상이 없어진 현대에 와서 담·길제의 흔적은 없어졌다. 다만 예서에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담제는 대상이후 1개월에 거행하며 이는 초상으로부터 27개월에 해당된다. 父在母喪이나 妻喪에는 15개월만에 담제를 올리기도한다. 담제 이후라야 상주는 술과 고기를 접할 수 있고, 곧 평상인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진다. 길제는 양반 계층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담제 이후의 丁日 또는 亥日로 날을 잡아 지내는데 새로운 신주를 사당에 모시기 위한 제사이다. 즉, 과거 양반계층에서 망자는 길제를 지내고 서야 조상신의 대열에 참여한다는 뜻을 가진다.

V. 祭禮

조상숭배에 대한 관념이 실제생활에서 체계화된 것이 제례이다. 다른 의례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전승되는 제례는 예서의 규정에 의해 틀이 잡혀졌고, 특히 ‘家家禮’라하여 집안마다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禮書에 나타난 제례는 祠堂祭, 四時祭, 禰祭, 忌日祭, 墓祭의 다섯 종류로 구분된다. 사당제는 집에 사당을 모신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이고 사시제는 계절마다 지내는 제사. 그리고 묘제는 묘소에서 행하는 제사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재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과거 양반신분의 전통가옥이 사라진 만큼 사당제가 없어지고 사시제는 차례라는 명절제사로, 禰祭는 기일제에 흡수되었으며, 그리고 묘제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즉 명절의 차례, 기일제사, 묘제(또는 時祭)가 현재 일반화된 제례의 종류다.

1. 忌祭

망자가 타계한 날을 기일이라 하고, 이때 지내는 제사를 기제라고 한다. ‘忌’자는 ‘禁’자와 같은 뜻으로 조상의 돌아 가신 날을 맞아 근심이 되어 마음을 다른일에 쏟지 못하기에 일을 꺼린다는 의미로 忌日이라 한다.

다음은 대구지방의 사례의 일부만을 예거하여 기제의 진설과 제사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1) 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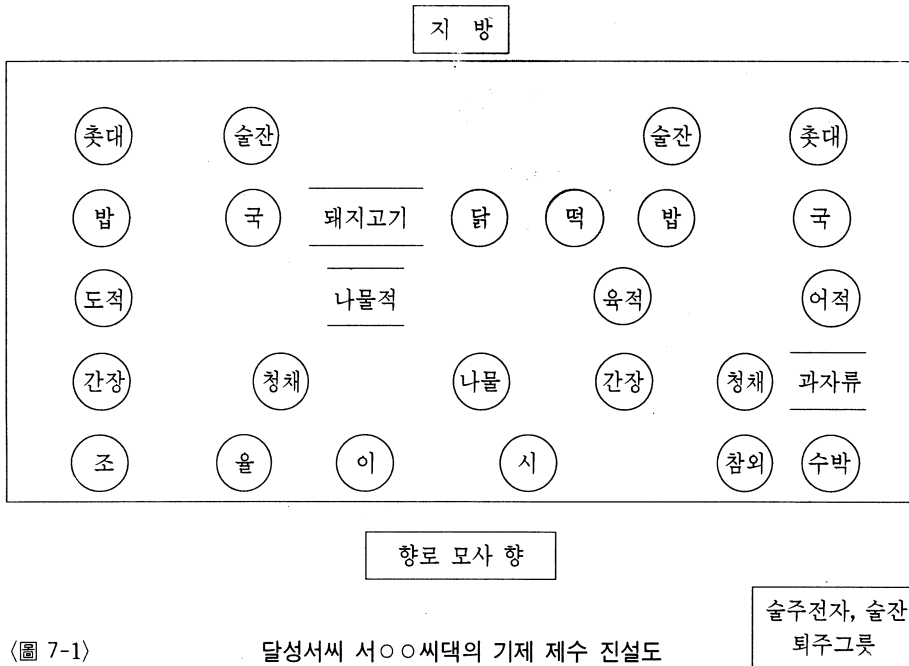
(1) 손○○씨(남):남인의 후손

위패 바로 앞에 밥과 국그릇, 잔대를, 그 다음 줄에는 좌에서 우로 포, 도적, 편, 식혜, 면을 놓는다. 그 다음 줄에는 삼탕을 진설하고 제일 앞쪽에 과일을 紅東白西와 棗栗梨柿 순으로 놓는다.

(2) 서○○씨(남):남인의 후손

제일 앞줄에 과일을 좌에서 우로 棗栗梨柿 순으로 즉, 그것을 紅東白西 순으로 놓는다. 과일 진설에서 수박과 같은 채소류 과일은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 보다 우측에 놓게 되는데 땅에 가까이 열리는 과일은 격이 떨어진다는 뜻이라고 한다. 과일 줄 다음 육적, 어적 순으로 놓고, 그 다음 줄에는 저육, 닭, 떡, 밥, 국을 놓으며, 밥과 국 앞에는 술잔과 촛대를 놓고 그 중간에 간장을 놓는다.

다음은 위의 진설방식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圖 7-1〉

달성서씨 서○○씨댁의 기제 제수 진설도

2) 제사절차

(1) 손○○씨(남 68세)

먼저 焚香 降神하고 參神을 한다. 다음으로 初獻, 亞獻, 終獻 순으로 헌작을 하는데 아헌은 주부가 하고, 종헌은 초헌관의 자식이나 친척 중의 한 사람이 담당한다. 그리고 첨잔을 하며 이는 초헌관이 행한다. 헌작이 끝나면 바로 수저를 간추려 개반, 삼시를 하고 부복하여 脩食을 행한다. 그 다음 순서는 進茶로 국을 내 가고 숭늉을 올린다. 잠시 기다린 후 落匙를 하고 辭神을 하는데 이 때 재배를 함으로써 조상께 이별을 고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을 떼어내서 불사르고 분축한 다음 철상함으로써 제사를 마친다. 그 다음 음복례로서 제사상에 올렸던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제사에 여성 참여시 그들은 4배례를 하며 특히 새 머느리를 맞았을 때는 조상에게 인사올린다는 뜻에서 꼭 종헌을 올린다고 한다. 과거에는 음식을 이웃에 돌렸으나, 현재는 제사음식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웃과 나누어 먹지 않는다고 전한다.

(2) 서○○씨(남 66세)

밤 12시가 넘으면 제사를 지내는데 참석자는 보통 20명 안팎이 된다. 출가한 여동생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석한다. 주제자는 도복과 유건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갖추고 입제일과 파제일 이틀동안 재계를 한다. 그러나 도시생활에서 바깥 출입을 이틀동안 삼가하는 재계는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마음 가짐만 그렇게 가지려는 자세는 고수한다. 축문은 한 문 축을 사용하고, 신주는 모두 매혼하였기에 지방을 사용한다.

제사는 분향재배, 강신재배로 시작된다, 강신 때 잔에 술을 부어서 마른풀이 담긴 모사에 붓는다. 풀을 담아 농음으로써 그것이 땅임을 뜻하고 땅에다 술을 부음으로 해서 조상이 강림한 것으로 믿는다. 다음 순서는 참신재배이며 초헌 후에 독축을 하고 아헌, 종헌으로 이어진다. 초헌관은 주제자가 되고 아헌과 종헌은 주부 또는 멀리서 온 친척이 된다. 초헌 후에 독축관은 축을 잘 읽는 사람이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주제자가 함께 한다. 침작은 하지 않으며 바로 開飯 挿匙하고 국그릇을 물그릇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 다음 脩食을 하는데 모두 엎드려 부복하고 있다. 기침 세번을 하면 일어서서 밥을 세번 떠서 물에 마는데, 이를 水飯이라 한다. 그리고 국궁하여 묵도를 드리고 落匙한다. 철상전에 초헌관이 혼자서 음복을 하고 이로써 제사를 마친다. 제사가 완료되면 참제자가 모두 음복을 하고, 그다음날 이웃에게 돌리던 음복은 현재 하지않고,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준다.

이상에서 두 가구의 기제사의 진설과 제사절차를 살펴 보았다. 이 둘은 모두 남인 계열의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제사의 형태를 몇가지 점에서 보여준다. 이는 禮書의 규정에 따른 지침을 근간으로 하되, 집안마다의 독특한 전승이 함께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예서의 규정도 조선시대의 당파로 인한 분리에서 나타나 지금까지 잔존하고 있다. 예컨대 진설법에서 남인 紅東白西와 棗栗梨柿 순서로 과일을 진설하나, 노론은 白東紅西 棗栗柿梨로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큰 줄기의 제수의 진설의 차이지만 같은 당파에 속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같이 집안마다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家家禮’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질서가 와해되고 산업화, 도시화의 사회질서가 정착하면서 나타나는 전래 제례의 변화상도 인용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齋戒’라든가, ‘음복’은 더 이상 과거의 양상을 재현할 수 없게됨을 보여 준다.

2. 節祭

절제는 년중의 명절에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로 사시제 또는 다례라고 한다. 禮書에는 孟春(음 1월), 孟夏(음 4월), 孟秋(음 7월 그리고 孟冬(음 10월)의 하순에 奉祀하는 네번의 제사를

四時祭로 정한다.

절제가 기제와 다른 점은 다음 세가지다. 첫째 절제는 명절에 지내는 제사로 집안의 모든 조상에게 합동으로 제사하는 합례이다. 둘째 기제사가 자정 이후에 지내는 반면 절제는 아침에 지낸다. 세째 절제는 명절에 맞는 특식을 제사상에 올린다. 정월 초하루 설날 차례에는 떡국, 봄에는 새로 나온 나물, 여름에는 국수나 참외, 가을에는 햇곡식, 겨울에는 팔죽을 주된祭饌으로 준비한다. 예서는 절제의 진설과 방법을 기제사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조사자료에 따르면 기제사의 그것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단지 앞에서 언급한 명절마다의 특식만 제수에 포함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는 사계절의 절제가 아니라 정월 설날과 팔월 보름 추석날에만 절제의 의례가 행해진다.

3. 時祭

예서에서는 묘소에서 지내는 제례를 묘제라 하고 연 4회, 清明, 寒食, 端午 그리고 重陽에 한다고 이른다. 그러나 실제는 일년에 한번 묘제를 지내는 것이 보편화되어 ‘歲一祭’라고 하며, 절제와 구분하기 위하여 한해 한번을 주기로 하는 점에서 時祭 또는 時祀라고 일컫는다. 시제의 대상은 묘소에 매안한 오대조 이상의 조상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제의 대상이 4대 이하의 조상의 묘소에서 올리게 된다.(안동군 서후면 금계동 학봉 김성일 집안의 후손). 즉 시제에서도 집안에 따른 ‘家家禮’의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제가 성묘와 구분되는 것은 성묘의 경우 청명, 한식 또는 추석에 후손들이 조상의 묘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손질하는 것을 말하되, 성묘의 대상은 4대조 이내의 가까운 조상이기 때문이다. 시제의 시기는 과거의 경우 가을 농사가 끝난 후인 음력 10월이 일반적이고 낮에 제사를 올린다. 현대사회에서는 시제의 시기가 음력 10월 시제는 지속되나 현대사회의 생활주기에 따라 공휴일 또는 주말에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1) 시제의 사례: 손○○씨(남, 68세)

중시조 및 윗대의 묘소가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있어 10월 초하루에 그곳에 가서 시제를 올린다. 초삼일에는 밀양, 열이튼날과 열사흔날은 대구 황금동의 묘소에서 시제를 지낸다. 그리고 개인 묘사는 개별적으로 택일 해서 하지만 제수비용은 문중재산에서 충당된다. 제수 준비는 유사 2인과 관리인(과거에는 묘직이)과 함께 하는데 제수를 장보는 일은 유사가, 제수 장만은 관리인이 담당한다. 제관들은 시제당일 제사에만 참석한다. 손씨의 개인적인 時祀는 그의 5대조를 비롯하여 고조, 증조, 조부모 그리고 부모가 대상이다. 개인 時祀 제수는 주, 과, 포만 진설한다.

(2) 시제의 사례: 서○○씨(남, 66세)

시제의 시기는 한식날과 그 이튿날, 10월 초삼일, 초이레, 열하루, 열이틀, 보름이다. 따라서 시사가 많은 관계로 성묘는 따로 하지 않는다. 이 집안에서는 時祭를 時享, 墓祀, 墓亨이라고 부른다. 寒食 시사는 제관들이 두패로 나뉘는데, 한 무리는 시조부터 4대조까지, 다른 무리는 5대조의 시사를 모신다. 이들 묘소가 달성군 공산면과 다사면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식 다음날은 6대조, 10월 초삼일과 초이렛날은 12대부터 16대까지의 시사를 그리고, 열이틀날은 14대이하, 보름은 14대 비위의 시사를 모신다. 시사의 비용은 墓位畵에서 충당하고 이는 관리인을 두어 관리한다.

문중산과 위토답이 있으면 그곳에 재실이 존재한다. 시조부터 4대까지가 있는 달성군 다사면 문양동에는 永慕齋, 달성군 공산면 요수동의 5세가 있는 곳에는 中心齋라는 재실이 있다. 시제의 제관들은 제사 전날에 와서 여기에 기숙한다. 시제 전날 밤에는 제관들이 모여서 執事에 대한 分定을 한다. 집사는 초헌, 아헌, 종헌, 한명씩, 진설 2명, 祝, 筮, 奉香, 奉爵 각 1명 그리고 奉飯 3명으로 구성된다. 시제에는 여성은 참여하지 않는다. 시조부터 5세까지의 시제는 달성 서씨 대종회에서 관장하고 6세 이후는 해당 문중이 시제를 담당한다. 제수를 위한 장은 유사가 담당하는 데 시제 3-4일 전에 보며, 관리인과 함께 제수준비를 해둔다. 제수는 기제사와 동일 하나 양이 많다. 시제의 절차도 기제사와 거의 동일하고 다만 강신재배에 앞서 참신재배부터 한다. 초헌관은 종손이 되고 아헌관과 종헌관은 대종회 회장이나 향열이 높고 사회적 명망이 있는 후손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문헌】

- 張哲秀,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金宅圭 외, 《大邱의 禮樂》, 大邱直轄市, 1988.
 金宅圭 외, 《慶北禮樂誌》, 慶尙北道, 1988.

第3節 民俗信仰

I. 序言

민속신앙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전제하는 종교현상이기 때문에 신인관계가 없는 단순한

占卜, 이른바 미신신앙들과는 일단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학문적으로는 민속종교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민속신앙은 원초부터 인간본연의 종교적 욕구에서 자연발생한 자연종교성을 띠며, 계시, 교조, 교리 등이 없고, 교단도 조직적은 아니다. 그것을 기성종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윤리성이 없고 속신들과도 밀접해서 사회적인 폐해를 빚어 온 일면도 있다. 그러나 민속신앙의 중요성은 그 유구한 역사성과 대다수 민중의 생활과의 밀착성에 있는 것이며 이 현실은 도외시 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대도시에서는 거의 사라진 동제, 가신신앙을 중심으로 기술해 두고자 한다.

II. 洞祭

1. 동제의 현황

촌락의 개척신이며, 조상신인 ‘할배’·‘할매’ 혹은 수호신인 ‘골매기’에게 豐穰과 除厄을 축원하는 동제는 유교식 제의 절차와 무교적 곳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이중구조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한밤중에 행하는 제사 자체는 비의적 성격의 부분으로 참여자는 지명된 제관이며, 제의의 진행과정이나 제장에는 다른 성원들의 참여를 금기로 제한하고 있다. 곳은 오신행사로서 사제자가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촌락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음복하는 신인공략적 향응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동제에서는, 제는 유교적 제사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고, 곳은 무속 혹은 무·불·선을 복합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동제의 전후에 개최되는 동회는 촌락의 자치회의로서 촌락성원 공동의 관행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동제의 역사적 계통은 확실히 밝힐 수 없으나 《三國志》〈魏書 東夷傳〉과 같은 옛기록을 참고하면,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삼한의 제천 등 ‘국중대회’를 한 제천의식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다. 이 민족적인 대축제들은 신을 중심한 지연적인 화목과 단합의 다짐이었고, 내일의 노동에 대한 활력소였고, 심리적인 ‘카타르시스’ 작용이었다. 그 후 고려시대까지 이러한 동제의 대제전승은 불교와 습합되면서도 전승해왔는데, 《三國史記》나 《宣和奉使高麗圖經》 등 다수의 기록에 보이는 팔관회에서 그 면모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유교의 영향하에 ‘국중대회’의 대제전의 관행이 소극성을 띠면서 민간에서만 면면히 전승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반촌’에서는 동제의 관행을 찾기가 힘들며, 주민들의 의식에서도 폐습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제시대 일본인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마을의 과반수 이상이 동제를 행하였으며, 해

방후 1960년대까지도 동제의 분포는 상당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이른바 미신타파와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아울러 과학의 발달은 마을 생활에 변질을 가져왔고, 동제를 비롯한 민속신앙을 구습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대구지방은 최근까지도 외곽지인 고산, 월배, 안심, 철곡 등지에 동제가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제의 제관은 ‘천왕굿’으로 대내림을 받은 사람이 되어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한밤중에 동제당에서 지냈으며, 동제 일주일 전에는 동제당에 금줄을 치고 동제 전날은 마을에 황토를 뿌려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였다. 현재는 동제가 거의 사라졌지만, 동제당으로 신성시하던 神木 등은 수령이 오래 되어 마을의 동나무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였다(이천동, 복현동 등). 그러나 이들마저도 도시계획 등으로 잘려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의 대표적인 동제는 비산동의 천왕매기굿으로 기천왕, 중천왕, 말천왕에 제사를 지내고 지신풀이를 하였다. 지금은 제의는 소멸되고, 지신풀이만 남아 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飛山洞 天王매기굿

1) 생성배경과 유래

‘천왕매기’란 오랜 옛날부터 현재의 대구직할시 비산동 일대 주민들이 신앙해온 ‘기천왕’ ‘중천왕’ ‘말천왕’에 대한 정초의 ‘지신풀이’이다. ‘기천왕’은 현재의 북비산로타리 위쪽에 큰 고목이 있었으며, ‘말천왕’은 현 비산 3동 삼성예식장 위치에 역시 고목이 있었다. ‘중천왕’은 현 비산 1동 1번지 자리에 위치하였는데 고목의 전주목과 사당 그리고 造山의 세가지가 짝이 되어 있었고, 사당안의 벽에는 天王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 천왕목과 사당과 ‘造山’은 1960년대 이후, 대구시의 도시개발과정에서 철거되어 자취를 감추었다. ‘天王매기’는 6·25동란 이전까지도 관행되었던 ‘지신풀이’다.

구전에 의하면, 약 400년전 대구지방에서 계속된 가뭄과 돌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민심이 흉흉해졌을 때, 마을 주민들이 ‘중천왕’자리에 흙으로 당집을 짓고 치성을 드렸다 한다. 그 뒤, 주민들은 오고 가는 길목에 있던 당집에 돌을 하나씩 던지게 되었다. 그 돌이 쌓여 造山이 되었고, 주민들은 여기에 돌을 던지는 것을 천왕에 대한 치성으로 믿게 되었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 돼지머리와 술, 떡을 차려서, 주민들은 심신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고 천왕기를 높이 들고 천왕제’ 지내기를 계속해 왔다. 치성이 부족하면 또 다시 가뭄과 질병에 시달렸다고 한다. 일제시대 방공호를 만들기 위하여 이 못을 팠을 때, 엄청난 엽전이 나

와 주민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한다.

천왕제의 제관과 축관은 정초에 天王대(기)의 내림으로 점지되었으며, 참석자들도 부정해서 안된다. 유교식 제사의 獻酌과 讀祝 이외의 모든 절차는 농악으로 시중한다.

천왕매기의 절차는, 3대째 중천왕 사당 근처에 살아온 故 金朔不씨의 未亡人 金順南(77세)의 말에 의하면, 정초에 대내림으로 제관과 독축관을 정하고 ‘천왕매기’는 음력정월 보름날에 행해지는데, ‘질굿’을 치고, 사당 앞까지 가서 사당문 앞에서 ‘문굿’을 치고, 사당에 들어 가서 고축하고 축문을 읽는다. 이 때는 일체의 악기는 정지되며, 제사가 끝나면 즉시 ‘천왕매기’로 들어가 신나는 지신풀이가 계속된다. 보통의 지신밟기가 가가호호에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천왕매기’는 마을굿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어서 사당, 마당에서 흥겨운 가무로서 판굿이 벌어진다. 즉, 천왕굿은 대내림으로 제관을 선출하는 (정초)질굿→문굿→고사독축→천왕매기→판굿의 절차로 이루어 진다. 이가운데서 ‘대내림’·‘질굿’·‘판굿’은 농악만의 절차이며, ‘문굿’·‘천왕매기’는 지신풀이며, 고사와 독축은 순수한 유교식 방식으로 이 ‘천왕매기’는 그 이름을 불교적인 것으로 본다면, 巫敎·불교·유교의 습합으로 하나가 된 祭儀舞樂이라 할 것이다.

현재 천왕매기굿은 비산농악의 단장인 김수배가 중심이 되어 전승하고 있다.

2) 연행과정

(1) 질굿

마을내의 모든 패랭이패가 모여 천왕당 앞문까지 가면서 질굿(길굿)을 한다.

(2) 문굿

천왕당의 앞문에 도착하면 쇠의 4채·8채에 맞추어 문굿의 사설로써 모든 부정과 액과 살을 물리치고 한해의 만복함을 기원한다.

〈천왕문굿의 사설〉

| | |
|------------|-----------|
| 소지하니 황금출이요 | 개문하니 만복래라 |
| 생기복덕 날을 받아 | 대문장군 모시거든 |
| 천석재수 들어오고 | 만석재수 왕래할때 |
| 손자액살 막아놓고 | 사업재수 많이주소 |
| 천상에는 옥황대문 | 수궁에는 용궁대문 |
| 우리나라 사대문은 | 남대문이 제일이요 |
| 진시왕의 만리성문 | 문장막초 지문이다 |

늬을로자 황청문이요
우리인생 말이요
추가대문 외가대문
만리장성 울을삼고
우리나라 좋은국기
일년삼백 육십오일

나라충신 옥문이라
이집에는 출입대문
열두대문 높이달아
솟을대문 각기달아
반달같이 기린대문
당산도랑 밝혀내자

(3) 대내림(천왕제)

천왕당 문앞에서 3채와 7채의 쇠가락에 맞추어 천왕당 앞까지 가서 2채, 4채, 8채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대내림을 비는 천왕굿을 치면 이때 대끝부터 신이 내린다.

이 대가 제관, 축관을 선정하여 천왕제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때 축관이 고축한다.

〈대내림사설〉

높은산에 정기빌고
산도악산 높은산은
물이라도 개천수면
나무라도 고목이면
거룩하신 천왕전에
목욕제계 정히하고
천장만장 장을보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동서남북 다나녀도
모든질병 돌적에는
홍년도는 세상에는
잡귀야 잡신은
만복수복을

낮은산에 기도하고
산신제를 지내주고
유황제를 지내주고
목신제를 지내주고
천왕제를 지내려고
청정예복 갈아입고
만반진수 차려놓고
천왕님께 비나이다
소원성취 비나이다
소원성취 비나이다
약풀베어 치료하고
쌀이되어 구제하소
멀리하고
점지하소

〈축문고사〉

유세차 갑자 정월 임자삭 십사일 신축 유학 임문구 감소고우

천왕영신 존우차동 여천만년 신희감래 각인각성 수부다남
 백복영납 천제소멸 독서성유 부과정액 육축번성 사시동풍
 경희차동 절도우적 난동불 전차동 우병축소 세서천역
 매년맹월 길일량신 기면경성 근이청착 포해공신 존현우신 상향

(4) 천왕매기(지신풀이)

상쇠의 2채, 4채, 8채 가락에 맞추어 천왕에 대한 지신풀이가 시작되는 데 마을의 모든 병고와 액란을 쫓는 다양한 경을 읊으면서 축원한다.

〈천왕매기 지신풀이사설〉

| | |
|-----------|-----------|
| 남산은 봉이요 | 주산은 당산이라 |
| 안강은 강이요 | 여산은 도읍이라 |
| 천간이 착하시니 | 하늘인 생기시고 |
| 지복이 착하시니 | 땅이 생기셨네 |
| 인보술상하니 | 사람이 생기셨네 |
| 그때 그시절에는 | 동방문이 열리시고 |
| 그때 그시절에는 | 서방문도 열리셨네 |
| 남방문도 열리시고 | 북방문도 열리셨네 |
| 오구제석 천왕문이 | 사방으로 열리셨네 |
| 함경도라 백두산은 | 두만강이 둘러있고 |
| 평안도 묘향산은 | 대동강이 둘러있고 |
| 황해도라 구월산은 | 임진강이 둘러있고 |
| 강원도 금강산은 | 해금강이 둘러있고 |
| 경기도라 삼각산은 | 한강수가 둘러있고 |
| 충청도라 계룡산은 | 공주금강 둘러있고 |
| 경상도라 태백산은 | 낙동강이 둘러있고 |
| 전라도라 지리산은 | 용림수가 둘러있네 |
| 제주도라 한라산은 | 사면바다 둘러있네 |
| 맥이맥이 성황님네 | 봉봉이 성황님네 |
| 앞도당산 천왕님네 | 뒷도당산 천왕님네 |

골골마다 천왕님네
 사바세계 고행중에
 오늘날 이자리에
 대자대비 신통자재
 한 많은 모든포부
 해와달이 천마산을
 그중에서 높은산을
 천왕님의 신력으로
 지극정성 급한중생
 천만소원 성취시켜
 이마음에 어두움이
 천왕님의 은덕으로
 어느때나 밝고밝아
 이마음에 쌓인죄가
 봄바람 부설비로
 화,화,초,초,선명하듯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고을의 많은인생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고을 많은인생
 모진질병 들어올때
 천만가지 성취시켜

자리잡던 천왕님네
 지극성심 이중생은
 맑은정신 가다듬어
 거룩하신 천왕님께
 애원발원 하나이다
 차별없이 비추지만
 제일먼저 비추듯이
 중생차별 없아오니
 제일먼저 구원하사
 안락하게 하옵소서
 그믐밤과 같사오니
 일월같이 비추소서
 무명어둠 없게하고
 어둡설한 눈같으니
 부드럽게 녹여지고
 화창하게 하옵소서
 천왕님전 비나이다
 소원성취 비나이다
 천왕님전 비나이다
 가뭄에서 벗어나고
 천왕이 막아주소
 안락하게 하옵소서

(5) 천왕굿

천왕매기 다음의 쇠마치는 4채, 8채의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덧배기 춤을 추면서 소원성취를 빈다.

(6) 천왕놀이

지신풀이와 판굿이 끝나면 3채, 5채, 7채를 치면서 천왕님의 돌레를 돌면서 노는 흥겨운 천왕놀이가 시작된다.

기천왕에서는 한판 다드레기로 끝나고 중천왕에서는 2채, 12채까지의 다양한 가락으로 덧배

기 들놀이를 비롯하여 흥겨운 굿판이 벌어진다. 말천왕에서는 3채, 5채, 7채 가락의 모든 패랭이패가 판굿 한바탕을 치른다.

(7) 질굿(마을굿)

기천왕·중천왕·말천왕 3천왕에 대한 풀이가 끝나면 이어서 마을 사람들의 놀이가 시작된다. 이때 천왕매기의 모든 가락이 동원되고 정적굿·앞이빠기·살풀이 장단에 어깨 춤으로 흥겨운 마을굿판이 된다.

3) 천왕매기굿의 편성

천왕매기굿은 쇠 2명, 징 4명, 대북 6명, 장고 4명, 소고 6명, 들벅구 6명, 포수 1명, 축관 1명 각시 1명, 기수 2명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복색은 다음과 같다.

(1) 상쇠: 상모를 쓰고 흰옷과 붉은 조끼를 입고 청·홍·황색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홍색은 허리에 두르고, 청색은 좌측 어깨에서 우측 겨드랑 쪽으로 하고, 황색은 우측 어깨에서 좌측 겨드랑 쪽으로 맨다.

(2) 증쇠: 상모를 쓰고 흰옷과 푸른조끼를 입고 청·홍·황색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3) 징: 흰 꼬깔을 쓰고 흰옷과 푸른조끼를 입고 청·홍·황색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4) 북: 징과 같은 복색이다. 단 설북은 상모를 쓴다.

(5) 장고: 징과 같은 복색이다.

(6) 소북: 상모를 쓰고 흰옷과 푸른조끼를 입고 청·홍·황색 띠를 한다.

(7) 양반: 흰 두루막이를 입고, 턱에 수염을 달고 갓을 쓴다.

(8) 포수: 누른옷을 입고, 등에 망태, 꿩 등을 메고 손에는 목총을 든다.

(9) 기수: 징과 같은 복색을 한다.

(10) 나팔수: 징과 같은 복색을 한다.

III. 家神信仰

우리의 집은 단순히 가족의 생활장소일 뿐만아니라, 신과의 접점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우리민족은 초인간적인 악령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자연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평안과 집을 수호해 준다고 믿는 신을 모시게 되었다. 그래서 집은 인간의 처소일 뿐만 아니라 신의 처소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가옥은 신성공간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집에 모시는 가신의 종류도 많거니와 마루의 성주, 부엌의 조왕, 큰방의 조상단지, 삼신단지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들의 처소나 형태 이들에 대한 신앙도 등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듯 많은 가신에 대한 부녀자가 담당한다.

모든 민속신앙이 그렇듯이 가신신앙도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해방 전후까지만해도 부녀자들의 가신신앙도가 높아 그 의례가 대단하였지만 6·25동란으로 인해 가신은 신체도 물속에 잠기고 이른바 ‘건궁신’이 되으로써 그 신앙도가 약화 되었다. 그런데다가 과학문명의 습득과 새마을 운동의 일환인 미신타파의 계몽에 밀려 신체는 물론 가신 신앙의 思考까지 없어져가는 실정에 있다.

대구지방의 가신신앙에 관한 자료는 민속학적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어 거의 전무한 상태로 그 전모를 정확하게 기술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서는 대구인근지역의 자료를 참고로 우리지방의 가신에 대한 일반적 성격을 개설해 두고자 한다.

1. 성주

성주신은 가장 및 가족집단을 관장하는 가신중에서 최고 신격인 듯 하며 그 분포도 전국적이다. 대구지방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 명칭이나 형태, 처소가 타지방과 차이를 보인다.

우선 명칭을 보면 성주 성주할매 성주보제기 성주단지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그 형태도 명칭에서 암시되는 것과 같이 단지나 보자기 등이 드물게 보이는가 하면, 대체로 한지(문종이) 온장을 접어서 실로 매고 상기둥 상반부에 부착해 둔 형태이다. ‘성주독’이라 하여 독을 신체로 모시기도 한다. 또 ‘건궁성주’ ‘뜯성주’라 해서 특정한 형태없이 신앙하는 집도 많이 보인다. 그 처소는 보통 마루에 있다고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상기둥, 마루위 상량, 시렁 등에 있다고 한다.

성주신에게 매년 일정한 날짜에 의례를 올린다. 지방적인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2월 초하루, 가옥의 상량일, 추석, 10월 등에 의례를 행한다. 어떤 가정에서는 집안에 액운이 깃들면 성주신에게 의례를 올려 액운을 없애 달라고 빈다. 상량일에 의례를 올리는 이유는 상량일이 성주신의 생일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의례는 특별히 복잡하지 않고 절식을 조금 장만하여 절하며 손을 비빈다.

2. 조상신

조상단지, 세존단지(시존단지, 시조단지), 조상당세기 등으로 불리는 조상신 신앙은 일반 유교식 조상숭배도 물론 하나의 민속신앙적 차원에서 다를 수 있겠으나, 차례 기제 등으로 자손 전체에 의하여 신앙심이 구체화 된다.

경북 일원의 조상신 신앙에서는 신격이 조상인테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신체는 있는 곳과 신체가 없으면서 여타의 가신의 신체와 동일시 하는 곳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대구지방에서는 조상단지라하여 보리나 나락을 담은 용기를 신체로 마련해 놓고 일정한 시기(10월, 정월 보름, 2월 영등)가 되면, 용기의 곡식을 갈고 음식을 차려 의례를 행한다.

조상신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단지일 경우, 단지에 곡식을 넣고 문종이로 봉하여 원새끼로 묶는다. 그 위에 널판지를 덮어 놓는다. 집안에 별미를 장만하면 먼저 널판지 위에 얹어 조상신에게 맞보인다. 조상당세기에는 조그만한 당세기에 조상의 옷가지를 넣어둔다. 이들은 보통 안방 시렁의 구석이나 선반위에 얹는다.

삼신은 곳에 따라 삼신단지, 삼신바가치, 삼신할매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신체가 있는 곳이 있으나 없는 곳도 있다. 삼신바가치는 안방 시렁위에 모신다. 바가치에는 쌀과 타래실을 같이 담아 놓는다. 흔히 자손이 귀한 집에서 더 성실히 모시며, 봄과 가을에는 보리와 쌀을 갈아 넣는다. 이 곡식으로 밥을 지어 온 식구가 나누어 먹는다. 명절때는 삼신에게 음식을 차려 의례를 행하며 출산을 할 때면 3일, 한칠, 두칠, 삼칠,백일 등의 시기에 정화수와 미역, 국, 밥을 차려 삼신을 위한다. 이것을 삼신상이라 한다. 또 일정한 신체가 없고 '삼신할매'라고 하며 그 신격을 믿는다.

3. 조왕

조왕은 부엌에 있다고 믿으며 불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믿고 있다. 조왕신은 신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조왕할매라고도 부른다.

4. 터주, 업, 축신

터주란 지신, 터신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흔히 집을 지키는 가신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거의 믿어지지 않는 축신이 되었다.

터주단지라하여 뒷걸에 단지를 묻고 그속에 오곡을 넣은 뒤 종이를 덮고 뚜껑을 덮은 신체를 모시는 경우도 있다. 오곡은 매년 추수후에 갈아 넣으며, 특정한 의례는 보이지 않는다.

경북일원에서는 엽 혹은 ‘찌끼미’라고 하여 구렁이나 족제비, 뚜꺼비 등을 숭배하는 민속이 있다. 이를테면 집안에 있는 구렁이나 족제비, 뚜꺼비는 ‘엽’이라 하여 쫓아내지도 않으며 해를 주지도 않는다. 혹시 엽이 집을 나가는 꿈을 꾸거나 실제로 엽이 집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불길하게 생각하여 굿을 하거나 비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엽은 집안의 ‘나무누리’나 부엌, 지붕 등에 머무르고 있으나,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한다.

축신은 변소각시, 정낭각시, 변소장군 등을 일컬어 지는 것으로 젊은 여신이라는 관념이 있다. 그러나 이 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 신은 또한 신체도 없다.

【참고문헌】

金宅圭, 〈慶北地方의 年中行事〉, 《靑丘大學論文集》 8, 靑丘大學出版部, 1967, pp.321 ~ 344.

金宅圭, 〈慶北地方의 年中行事〉, 《靑丘大學論文集》 9, 靑丘大學出版部, 1968, pp.467 ~ 478.

金宅圭, 《韓國農耕歲時의 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金宅圭 외, 《民俗藝術》, 大邱直轄市, 1987.

第4節 歲時風俗

I. 序言

세시풍속이란 매년 일정시기마다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주기적 전승적 생활행위를 말한다. 세시풍속은 옛부터 歲時, 歲事 또는 月令, 時令이라고 불려, 특히 그 時季性을 강조한 감이 있다.

한국의 세시풍속의 기반은 농경생활에 관련되는 전승적 행위의 복합이며, 특히 수도경작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시풍속은 크게 생업력(농사력)과 제의력(행사력)을 아울러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생업력은 생산활동의 주기적인 체계이고, 제의력은 세시의 의례적인 측면이다.

위의 양자의 관계는 생산의 주기성이 세시를 산출하였다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생산기술이 미개하였던 원시사회에서 경험적인 지식이 있긴 하였지만 자신들의 욕망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산 욕구를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 해결하려 하였고, 그결과 신앙의례가 과생한 것이다. 농경의례 중에서 예축 점세적 의례들이나 가신신앙 등의 속성들은 이를 잘 규명해 준다. 제의력은 일상의 생산중심의 활동이 정지되는 축제일 휴일로서 명절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평소의 생산 활동을 단락 지우고 다음활동의 이행하는 기점으로 간주 할수 있다. '백성'은 단조로운 생활에 명절이 오기를 고대하며, 따라서 세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생기를 불어 넣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제사력과 생산활동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위상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시간적으로 배열된 개개의 세시사이에서 세시풍속의 총체를 규명하고 생업과 유기적인 관련성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제의력 = 의례적 행사와 생업력 = 생산주기의 관계속에서 계절에 따르는 생활의 율동이 형성되었으리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대체로 세시풍속이 들나는 시기는 '노는날', '쉬는날'로 표현된다. 이때에는 놀이와 향유가 수반되어 농민들에게 휴식과 오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농경의례는 사회결속의 기능도 가진다. 공동제의는 물론이고 가족단위의 세시라고 하더라도 이때에는 '굿판'과 같은 모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농경의례는 산업화와 영농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한 관념의 변화로 우리 농촌사회에서도 점차 소멸해 가는 실정이다. 특히 대도시의 전통적의미의 세시와 민속놀이는 고로들의 기억속에 남아 있을 뿐이고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명절도 고려시대의 9대속절(元正, 上元, 寒食, 上巳, 端午, 八關會, 秋夕, 重九, 冬至), 조선시대 4대 명절(正朝, 寒食, 端午, 秋夕)이든 것이 설과 추석 정도가 잔존하고 있다.

대구지방도 예외는 아닌듯하다. 촌락사회를 기반으로 생성·보존되어 왔으며, 그 고장 주민들의 생업력과 제의력에서 빚어진 세시풍속은 농경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대부분 사라지고 古老들의 기억속에 남았을 뿐이다. 또 세시에 그 밑뿌리를 둔 민속놀이도 원래 놀이 자체의 목적보다 제의성이 앞선다. 특히 한국의 집단적 민속놀이에는 원래 '神聖示顯'으로 풍요와 강녕을 초래한다는 직접적동기가 있었고, 집단생활의 협동을 다지는 간접적 기능이 잠재해 온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줄당기기'나 '팔매싸움'(石戰)을 들어 볼 수 있고, 여러가지 곳에 따른 놀이들이 또한 그러하다. 탈놀이의 탈은 원래 신의 모습이었고, 농악의 지신밟기에서도 '신내림'의 고형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놀이의 제의성은 점차 소멸되고 놀이 자체만 남아서 전승되다가, 오늘날에는 도시사회의 흥행적 연회로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경생활에 바탕을 둔 대부분의 민속놀이가 실생활의 맥락에서 遊離되면서 소멸되거나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1987년 대구지역의 민속예술 조사에서 ‘싸움’형식의 집단유희로서 골목줄당기기, 큰줄당기기, 장치기, 팔매싸움 등이 드러났고, ‘놀이’형식으로는 달집태우기, 여성의 놀이인 ‘대문따기’, ‘꼬리따기’ 등이 遺存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대구에서 가장 큰 민속놀이의 하나로 수성천변의 ‘큰줄당기기’가 조사되었으나, 이 대표적인 놀이마저 복원할 수 있을 만큼 그 규모나 연행과정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사람이 생존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같이 대구지역의 세시와 민속놀이의 대부분이 일제말기 6·25 전후에 잊혀지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은 오히려 일요일, 공휴일, 휴가 등이 새로운 세시풍속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대구지방의 세시풍속 및 민속놀이에 관한 자료나 조사보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여기서는 1960년대초 경북지방의 민속관행을 조사한 〈경북지방의 연중행사〉에 산견되는 대구지방의 자료와 1987년 대구시 일원을 조사하여 《민속예술》에 수록한 민속놀이와 이와 관련한 세시풍속을 참고로 과거의 세시와 민속놀이의 자취를 기술해 두고자 한다.

II. 農耕歲時

1. 생업과 세시

한국의 세시풍속은 歲末에서 年頭(12월~2월)에 걸쳐서 집중되어 있다.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지나면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월동준비에 들어간다. 소설을 지나면 이른바 농한기를 맞아 지난 농사의 풍년감사제와 다가올 농사에 대한 祝願 占歲의 행사가 벌어진다. 이러한 행사는 정초와 상원에 이르는 기간에 절정을 이루다가 2월 초하루를 전후한 시기에 마무리된다.

이 시기는 연중의 생산활동이 정지되는 축제기간, 휴식기간으로도 보여지지만 다른면에서는 다음에 다가올 생업활동을 촉진하는 기간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2월의 입춘은 곧 봄을 알리는 농가월령의 한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농가에서는 농작물의 씨앗을 파종할 준비를 하게 된다. 청명을 전후하여서는 수도와 여타 전작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3월이 되면 파종, 이앙, 성장기의 년중행사가 관행된다. 그러나 농경의례의 경우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각 단계적인 시기에 있어서 항상 여러가지 의례가 수반되는 것이 상례인데, 우리의 경우에도 농번기에는 의례적 년중행사는 크게 줄어든다.

특히 파종의례라고 생각되는 것은 거의 없다. 이것은 파종의례 자체가 역법상 명절로 이행되었다는 점과 오락의 성격을 띤 화려한 년중행사는 이런 농번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점, 의례적인 년중행사가 동질적인 것을 반복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수도재배에 있어서 파종보다는 모심기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파종의례와 이앙의례가 겹쳐진 결과 파종의례가 빛을 잃었을 가능성 등의 이유를 생각해 본다.

여름을 알리는 입하가 지나면서는 농작물의 성장기로써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까지 그 절정을 이룬다. 농가에서는 김매기를 비롯하여 병충해 방제작업, 거름주기 등의 작업을 한다.

입추가 되면 성장기를 지난 농작물의 수확기에 접어 든다. 벼의 이삭관리와 전작물인 콩, 팥 등의 잎따기를 이때부터 시작하고, 처서가 지나 백로가 되면 나락논에서 물을 빼고 벼베기 준비를 한다. 또 밭작물인 깨, 콩, 팥 등의 수확이 마무리 된다. 한로와 상강을 전후한 시기에는 벼베기가 시작되어 올벼의 타작이 시작된다. 입동과 소설을 전후하여 벼수확이 끝남과 함께 가을 보리파종에 들어 간다.

이와같이 농작물의 수확기에 접어들면 이에 따르는 의례들이 행해진다. 우리나라의 수확기의 의례는 시기적으로 봐서 한여름 유두천신과 8월의 추석천신, 그리고 초동의 고사천신으로 대별 될 수 있을 것 같다.

유두천신은 성장의례와 겹치는 것으로 나락수확과도 관계는 있으나, 여러가지 기록과 시식의 내용으로 봐서 전작물의 천신일 가능성이 짙다.

추석절의 천신은 조령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벼의 수지(初穗) 薦新祭이며, 연중행사의 성격상으로는 중앙절과의 사이에 시기적으로 유동성이 보이고, 천신제와는 별개의 계통으로 생각되는 신라시대 가배절 續麻행사의 역사가 곁들여 있음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리고 제의의 유형으로는 유교적 선조제사의 형태이며, 호주에 의해 상속되는 남성이 주제하는 의례이다.

고사천신은 주부에 의하여 상속되는 가족제로서 가장 오래된 한국의 수확의례로 생각되며, 그 대상의 성격도 다양하여 무속적인 다령관에 의함이 분명하다.

수확제는 가족제적인 경향이 농후하여, 연두의 점세·예축의례가 촌락의 공동체적 의례임과 대조적이다. 물론 내방(가장)자 신앙의 유제라든가, 동제 등의 공동관행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사례가 드물어 그 주류는 가족제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와같이 세시풍속은 자연력에 의존한 생업력에 제의력이 단락을 지워 주므로써 더욱 시계성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생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력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반면에 생업의 리듬이 인위적 자율에 의해서 주도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문화의 변동

이라는 측면에서 생활리듬의 변화 및 새로운 세시풍속의 파생으로 볼 수 있다.

2. 월별 세시의 사례

음력을 기준으로 1960년대까지 대구지역에 남아있던 세시풍속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월

1일 설날

설이란 삼간다(愼)는 뜻으로 신라 때 소지왕이 왕후와 중이 공모하여 왕을 해치려 하는 기미를 알고 이를 모면하니, 이는 까치와 쥐, 돌(돼지)의 인도에 의한 것이라 하여 정월에 쥐, 돌, 말, 용의 날에 몸을 닦고 삼가는 날로 정한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날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에게 세배한다.

7일 인날

여자의 출입을 금하고 타가에서의 대소변을 금한다. 일곱가지 곡식을 혼합하여 인떡을 만들어 먹는다.

8일 곡식날

콩을 볶아 먹는다. 금토, 금줄을 한다.

15(14)일

동제를 지낸다. 동제로 마을의 평안과 농작물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동제는 천왕궁으로 대내림을 받아 선출된 대표가 제사를 지내는데 동네의 태평함을 빈다. 불결하면 화를 입는다고 한다. 동제때는 외지인 출입을 금한다. 외곽지인 고산지구 월배지구 안심지역 등지에서는 최근까지도 동제가 잔존하고 있었다.

15일 보름 상원일

神農氏께 풍년을 기원한다. 달에게 풍년을 소원한다. 농사밥을 지어 주농신에게 제사지내고 아이들은 아침 일찍 거름내고 새를 쫓는다. 불질러 연기를 내서 달을 그슬린다. 약밥과 묵은 나물을 먹고 술을 먹으면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귀속병도 안 앓는다 하여 귀밝이 술을 마신다. 찰밥을 해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며 빈다. 달집(닭집, 달구집)을 지어 달이 올라올 무렵 불을 놓는다. 부스름 가신다 하여 콩을 달불 놓은 재에 구워 먹는다. 지신을 돌아가며 밭아 액운을 면하게 하며, 그 돈으로 농악기의 수리 및 유지비에 사용한다. 다리가 튼튼해진다고 해서 다리 밟기라 하여 다리 위를 왔다 갔다 한다. 일꾼이 남 먼저 거름을 쪼 내면 농사가 장원한다고 한다. 금줄을 치고 3일간 정성드린다. 잡신에 제사 지낸다. 김치를 안 먹

는다. 소지를 올린다. 더위를 판다. 병을 옮기고 벼룩이 생긴다 하여 소는 밥주고 개는 달이 떠야 밥을 준다. 잣, 호두, 밤, 땅콩, 엿 같은 것을 먹으면 부스름이 나지 않는다하여 먹는다. 조리밥을 얻어 방아다리를 걸타고 먹으면 종기가 없어진다 하여 먹는다.

16일 귀신단지날

귀신불을 놓아 귀신을 못오게 몰아낸다. 신을 들여 놓고 삼작에 체를 건다.

卯日 토끼날

남자가 먼저 일어나 정지에 들어간 뒤에 여자가 들어간다. 남자가 술뚜껑을 연다. 동쪽을 보고 小便하지 않는다.

丑日 소날

소의 성장을 위해 콩을 볶아 준다. 방아를 찜지 않는다.

巳日 뱀날

원새끼를 꼬아서 머리털을 매고 약간 그을려서 “뱀치자, 뱀치자.”하고 외친다. 그러면 뱀이 없다는 전설이 있다.

2월

1일 영등

풍신에 기원해서 액운을 면하게 풍신제를 지낸다. 농사가 잘 되기를 빈다. 영등에게 아이 재주를 빈다. 농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가내태평과 행운을 빌고 액운을 가시는 날이다. 영등 할머니가 올라가는 날이며 가정의 불길사를 소지를 올려 없앤다. 부엌에 창호지를 달고 솔에 식구수와 맞게 삼시하고 연령순으로 소지를 올린다. 물과 대나무, 색종이에 색실을 걸어 놓고 영등할머니께 빈다. 농사밥 해 먹고, 거름, 인분을 논밭에 주고 논다.

이른 아침에 잡곡식(食)을 마치고 주인이 들에 나가 해삼물을 떠 온다. 갈치를 안 먹는다. 떡(쑥떡, 송편)을 해 먹는다. 잡곡밥과 깨끗한 반찬과 온마리 청어를 구워 먹는다. 변소를 치지 않는다. 영등할머니라는 신에게 제일 먼저 뜯물로 2월 20일까지 떠 놓는다. 잡곡밥으로 천신에게 기도한다. 새벽에 오곡밥을 지어 마당 가운데 불을 놓고 행운있기를 영등에게 빌고 첫닭이 울면 쪽베기에 물을 길러 장독 위에 둔다.

조왕에 단 창호지로 연을 만들어 날린다.

9일 무방수날

장 담그는 날이다. 잡귀나 손이 없다하여 성주기둥 거꾸로 세워도 아무탈 없다. 또 가옥수리 및 식목을 해도 피해가 없다.

11일 한식일

문공이 개자추의 충심을 몰랐다가 후에야 뉘우치고 고사를 지냈다는 전설에서 유래 했다.

선조의 묘지에 성묘하고, 손질하며 잔디를 입힌다. 찬밥 먹고 신주가 있는 집에는 한식 고 유를 한다. 영장을 거꾸로 눕혀도 탈이 없는 날이라 한다.

3월

3일 삼짇날(삼월 삼진)

농사 잘 되기를 축원한다. 만물의 소생을 축원한다. 그 해의 길흉을 점치는 날이다. 농사 시작의 날이다. 여자들이 절에 간다. 산, 들, 우물, 나무, 바위 등에 불을 켜고 음식을 차려 놓고 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뱀이 나온다. 집안 청소를 한다. 동쪽으로 흐르는 냇물에 겨울 동안의 묵은 때를 씻고, 가정에서 화전과 화주를 만들어 조상에게 고사한다.

흰나비를 보면 복을 입고, 노랑 나비를 보면 길한 일이 있으며, 약물을 먹으면 연중무병하고, 집안의 보수작업을 아무리 하여도 탈이 나지 않는 날이라 한다.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한다. 이날 뱀을 보면 그해 운수가 좋다고 한다.

4월

8일 초파일

절에 가서 등을 달고 석가의 탄생을 축하한다. 절에 가서 등을 달고 소원성취를 기원하기 위해 불공드리고 시주도 한다. 절에 구경간다. 가가호호 등을 단다.

5월

5일 단오절

굴원이 물에 빠져 죽은 날이라 전한다.

풍년을 축원한다. 일년 농사가 잘 되달라고 신에 제사 지낸다. 궁기, 쟁피, 버들을 넣어 삶은 물에 머리 감고 그네 뛰고 논다. 단오떡이라 하여 썩떡, 송편떡을 해먹는다.

비가 와서 그네줄에 물이 흐르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잡귀가 붙지 않는다고 한다.

6월

6일 유두일

한 여름을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더위를 막는다. 일년 농사의 풍년을 위해 농신제를 지낸

다. 풍년을 기원한다. 농민들이 휴식하는 날이다. 조상에게(국수로써) 제사 재낸다. 송편떡을 해서 논물괴(고)에 갖다 놓고 제사 지낸다. 쌀밥을 지어 먹는다.

옛날 나라님이 햇쌀밥을 먹는 날이라 한다. 오전에 천둥하면 포수가 빠지고 오후에 천둥하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7월

7일 칠석

견우직녀가 만난다고 한다. 그때가 되면 까치들은 은하수에 다리를 놓으러 간다고 보이지 않다가 칠석이 지나면 까치의 머리가 벗어진다고 한다. 수수떡 할멈과 짚신장수 영감이 만난다고 한다. 상제님의 손녀와 목동 견우가 혼인하여 상제님이 노여움으로 동서로 갈라놓아 1년에 한 번씩 까막 까치가 오작교를 놓아 만나게 하며, 이별의 눈물이 비가되었다고 한다.

쑤의 제초를 마치고 농부들이 하루를 즐긴다.

15일 중원절

경비를 각출하여 개를 잡고 시원한 곳에 모여 논다.

삼복이 지나면 풋굿(풋구 草宴)을 먹으며 들놀이이나 물맞이 등의 놀이를 한다.

농부들이 논밭의 일을 마쳐 놓고 술떡으로 회식한다. 개 잡아 먹고 목욕하고 국수, 과일 등으로 윗 어른을 대접한다. 복따름 한다.

8월

15일 추석, 한가위

신라 유리왕 때 8월 보름에 길쌈 대회를 하여 술과 밥으로 내기를 하였는데 진편은 사례하고 여자들이 춤을 추며 회소회소하며 탄식했다 한다.

햇곡식으로 떡을 하여 조상에게 차례하고 산소에 성묘한다. 추수감사를 하는데 뜻이 있다. 달맞이 한다.

9월

9일 중양절, 중구

추석에 햇곡식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한 사람은 이날 조상께 제사를 지내며, 추수감사의 뜻도 있다. 양수가 겹치는 날이라 하여 무슨 일이든지 마음 놓고 한다. 제비와 모기가 없어지는 날이다.

9월이 되면 햇곡식을 가신을 위한 독에 넣고 신곡밥을 지어 가내 안일을 기원한다.

10월

10월 이되면 사대조 이상의 조상에게 햇곡식으로 음식을 하여 산소에 가서 제사 지낸다(묘사).

10월에 날을 받아 안택한다. 집안 평안하다고 하여 밤새도록 봉사를 데려다 독경한다.

10월에는 고사도 지낸다. 신(지신, 천신)에 고사, 추수감사, 풍년을 기도하기 위해 햇곡식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 떡을 해서 도신하고 먹는다. 성주께 시루떡으로 빈다. 햇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성주께 올린다.

11월 동지

백말의 피는 잡귀를 쫓는데 유일한 것으로, 대신 팔죽을 해서 집 벽에 뿌려 잡귀를 몰아낸다고 한다. 팔죽을 끓여 기둥, 외양간, 대문벽에 뿌리면 액운을 면한다고 한다. 共公氏의 못난 아들이 죽은 날로서 팔죽을 끓여 제사지낸다고 한다. 팔죽을 끓여 제사를 지낸다. 팔죽을 쑤어 조상신, 성주께 빌고 모든 병을 막는다고 하여 술잎으로 팔죽을 사방에 뿌린다. 자기 나이대로 수제비를 먹는다.

12월

30일 그믐(除夕) (작은설)

신년을 맞기 위하여 한 해의 괴로움을 씻는 날이다. 짐승의 범접을 못하게 한다. 밤새도록 불을 켜 놓고 잡귀를 오지 못하게 한다. 잠을 자면 눈섭이 센다고 밤을 세운다. 묵은 근심, 걱정을 없애기 위해 집안을 청소하고 소금을 뿌린다.

Ⅲ. 民俗놀이

1. 줄당기기

줄당기기는 주로 삼남지방에서 성행하던 집단놀이의 하나로 아시아의 수도재배권에 공통적으로 분포되고, 정초에 한해의 풍년을 점치는 농경의례가 그 모태이다.

한자로는 주로 索戰으로 표기하는 줄다리기는 ‘줄싸움놀이’ 등으로 부르고, 방언으로는 대체로 줄당기기(줄쟁기기)로 부르는 곳이 많다. 동남아시아, 남중국, 일본열도 등 벼농사지역에 역사 오랜 분포를 보인다.

줄당기기의 역사는 민속자료를 통해 보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으나 통시적으로 고찰하기는 힘들다. 줄당기기에 대한 기록은 《東國歲時記》上元조에 충청도와 영남지방의 줄다리기가 기록되어 있다. 또 8월조에는 제주도에서 照里戲라고 하는 줄당기기를 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대구지방에서는 줄다리를 ‘줄땡기기’ ‘줄당기기’ 등으로 부르며, 마을마다 음력 정월보름과 2월 사이에 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구지방의 큰 줄땡기기는 용두방천에서 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용두방천 ‘큰 줄땡기기’를 정확하게 기술하기는 제보자들의 기억이 불분명하여 어려우나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개설해 두고자 한다.

제보자 金海龍(남, 1987년조사 당시 82세)과 吳義敬(남, 1987년 조사 당시 73세)이 10세 전 후에 용두방천에서 대구시민들이 줄당기기를 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다고 한다. 처음부터 줄당기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월 대보름 때 아이들이 패갈림을 해서 골목에서 ‘골목 줄’을 수시로 당기는데, 아이들의 줄당기기를 ‘골목 줄 당기기’라고 한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끼를 거두고 저희들이 짚을 얻어다 새끼를 꼬기도 하여 점점 커지게 된다.

골목줄이 차츰 커지면서 조그만 아이들이 당기다가 나중엔 짚새끼를 나무에다 매어두고 처음에는 세명이 돌아가면서 꼬게 된다. 나무에 새끼가닥을 매어 아이들이 쥐고서 왔다 갔다하면서 줄을 끈다. 열두서너살이 된 아이들이 놀다가 줄이 커지면 중년들도 나와서 참가한다. 아이들이 골목줄을 만들어서 당기는데 손발이 얼어터지거나 추워도 노는 걸 좋아했다. 줄이 커지고 줄 당길 인원수가 많아지면 처음엔 한가닥이던 줄에 가지줄을 만든다. 이렇게 자꾸 크게 만들어지면 봉덕동 같은 곳에서는 조그만한 골목줄을 합쳐서 동치를 크게 만든다. 범어동, 황천동(현재 황금동) 수성동 사람들이 또 모인다. 수성천 건너 사람을 ‘물건너 사람’이라고 하대하였는데, 그쪽에서도 이쪽 동네와 마찬가지로 줄을 만든다. 구장이나 마을 유지들이 이쪽, 저쪽을 번갈아 다니면서 이제 큰줄땡기기를 할 때가 되었는 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상대방이 만들고 있는 줄의 크기를 어느 정도 알아보고 줄이 대단히 굵으면 자신들도 줄을 좀 더 크게 만든다. 대략 이러한 절차를 거쳐 언제쯤 당기자고 결정한다. 줄을 당기는 시기는 대개 정월 대보름 전후에서 2월 영등 전까지 사이에 날짜를 잡아 당긴다.

줄당기는 날은 보름인데 달빛이 좋으니까 대략 저녁 5-6시쯤 달을 이용해 놀면서 각 동네마다 농악을 모두 데리고 나온다. 남산동은 농사짓는 집이 얼마되지 않기에 대명동, 봉덕동, 성당동, 화원, 비산동, 다사동에서 줄을 당기러 왔다.

줄을 당길 때 금년에는 서쪽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

도 이겨야 하므로 온 동네 사람을 동원시켜 줄당기러 간다. 줄을 언제 당긴다는 날짜가 결정 되면 온동리에 연락을 한다. 성당뭇이 있는 성당동에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모두 참가하였다.

동쪽에서는 청도, 경산, 자인사람까지 올때도 있었다. 양쪽면 모두 인원의 제한은 없다. 그러므로 줄이 크고 넉넉해 가지줄이 대단히 많아야 했다. 많은 사람이 같이 당겨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줄을 당긴다고 하면, 동네구장이 몇날 몇점이라고 구두로 알리며 사람들은 이를 철저하게 지켜 모여 들었다. 암줄과 솥줄은 저녁때쯤 걸 수도 있고, 점심먹고 나서 “줄을 건다”고 하면서 걸 수도 있다. 이때는 힘을 좀 쓴다고하는 장사들은 모두 ‘줄 고’ 곁으로 몰려든다. 고를 거는데는 몇시간이 걸린다. 동·서 양편에는 기도 갖고 오고 풍물도 갖고와서 일곱여덟군데에서 농악을 논다. 고를 걸때는 ‘고 건다’하며 소리치면서 ‘암줄’ ‘솥줄’을 거는데 큰 나무 등치를 고 밑에 두고 힘센 사람들이 전부 몰려든다. 암, 솥줄을 걸때는 심한 음담패설이 오고가고 승강이도 벌여 모두가 웃고 즐긴다. 옛날에 수집된 대구지방의 민요에는 다음과 같은 음란한 노래도 있어, 줄당기기가 갖는 깊은 의미를 연상케 한다.

부왔네 부왔네 동쪽×이 부왔네
달왔네 달왔네 서쪽×이 달왔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

고를 뽑았다 하면 줄을 빨리 잡아야 하는데 여기서 시비가 많이 생기게 된다. 고를 뽑고 있는데 양편에서 서로들 빨리 당기려고 줄을 쓸쓸 잡아줄 때도 있다. 양쪽편에서 힘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뽑고 즉시 당겨야 하는데, 이것이 대단히 어렵다. 고 걸기전에 서로 잡아 당기면 사람들이 자빠지고 줄고를 걸 수 없게 된다. 승강이를 벌이다가 줄을 놓아버리고 담배를 한 모금 태우거나 술을 가져와서 마시기도 한다. 이때 풍물도 치고 시비도 벌인다.

줄옆에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응원을 하고 어떤 여자들은 치마를 벗어 ‘당겨라 당겨라’하면서 깃발처럼 흔들기도 하고, 아예 치마에 돌을 엮어서 줄위에 얹아 버리기도 한다. 상대방으로 안당겨 가도록 무겁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몰때쯤 되면 고를 뽑는다고 온갖 승강이를 하면서 술도 많이 먹어 흥이 고조된다. 힘센 사람은 빙빙 돌아다니면서 “내가 당겨라하면 합심해 당겨라”하면서 응원한다.

양쪽의 줄은 거의 비등하다. 한쪽이 너무 짧고 다른 쪽이 길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길이의 차이는 한 두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하다.

줄을 당기는 장소는 중동의 수성학교 앞의 다리(대봉교)와 중동교 사이의 천변에서 당기는데, 이곳이 편편하고 자갈이 적당히 깔려 있고 넓어서 많이 이용되었다. 대구 사람들이 모두 모인다. 구경하려고 온 처녀들은 연애도 했다.

보통 줄을 당기는데, 어느선까지 당겨야 이긴다는 약속은 없었다. 동쪽편이 힘이 달려 서쪽으로 당겨가면 사람들이 줄옆에 매달려 쭉 달려 간다. 심보가 나쁜 사람들은 천변에 있는 자갈들을 상대방에게 마구 던진다. 상대방이 주춤하면 이쪽에서 잡아 당긴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또 돌을 마구 던진다. 그래서 당겨진 줄을 빨리 당겨 멀리 끌고 가버리면 완전히 이긴다. 이긴 편은 밤이 새도록 풍물을 치고 술을 마시며 논다. 마지막으로 큰 줄을 당긴 것은 51년 전에 현재의 앞산 비행장 주변에 있던 넓은 연병장이었던 것 같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인들이 줄당기기를 허락을 하지 않아 놀지 못하였다. 일본사람들이 이유인즉 줄당기기만 하면 끝나고 나서 싸움이 벌어지고 소란스럽다는 것이다.

당기고 난 그 줄은 놔두면 이튿날 사러오는 사람이 있다. 줄을 팔아서 술을 받아 먹고 논다. 줄을 서로 사갖고 갈려고 한다. 그 줄을 썰어서 소에게 먹이면 살이 찌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한다. 또 줄은 거름하기가 보통 벼짚보다 낮고 소죽 끓이기도 나왔다고 한다. 해방전 서성로에 살때, 수레에 줄을 싣고 수성천 용두방천으로 옮기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수레길이가 대단히 길었다. 줄의 크기는 사람키 만큼이나 굵었다(이금조, 여, 1987년 조사 당시 77세, 북구 침산 1동).

17살 되던해 정월 수성천에서 줄 당기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줄을 향교마당(현, 교동 조흥은행 옆)에서 만들어 수레에 싣고 수성천변으로 갔다. 동편과 서편은 약전골목을 중심으로 갈랐으며, 줄 하나는 두개를 포개서 겹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암줄이고, 한쪽은 외줄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숫줄이다.(金甲龍, 남, 1987년 조사 당시 84세, 복현동)

2. 달집태우기

‘달집태우기’는 한해의 풍흉을 점치는 ‘달맞이’때 달을 보고 일년의 풍흉을 점치는 月占에서 유래된 관습이라 할 수 있다.

달맞이 행사나 月占의 관습은 《東國歲時記》, 《열양세시기》 등의 正月 上元조의 기록에도 보이는 대단히 오랜 전국적 현상이다. 달집태우기는 달집을 짓고 이것을 사를 때, 불꽃의 힘과 모양 등으로 점을 치며, 달을 보고 풍년을 기원하고 달의 크기와 빛깔 등에 의해 풍·흉을 점친다. 달집이 잘 타거나 연기가 많이 올라가야 마을에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달집태우기는 풍년기원과 집단놀이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세시풍속이다. 달집태우기는 충청 이남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 대구지방에서도 ‘달불농기’ ‘달불집’ 등의 명칭으로 마을마다 달집태우기를 했으며, 달집을 태울때는 거의 농악을 놀았다.

동구 도동의 달불집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도동의 달불집은 음력 정월 보름날 현재의 1구와 2구의 두 곳에서 놓았다. 1구는 마을의 ‘향산말랭이’, 2구는 ‘향야곡산’이라는 곳에 달집을 짓는다.

달집은 마을의 청년들이 먼저 큰 나무로 삼각발 형식으로 뼈대를 만들고 솥갑(소나무)을 위에 덮고,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입구를 만든다.

저녁이 되면 마을에서는 동민들이 풍물을 치면서 산으로 올라간다. 이때 질매구(길매구)를 치면서 간다. 산에 갈때는 彩服은 하지 않고 꼬깔만 쓰고 간다. 이는 채복에 불씨가 튈까 염려해서 입지 않는다고 한다. 1구와 2구의 주민들은 서로 연기가 많이 올라가도록 할려고 애쓴다. 연기가 많이 올라가는 마을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또 달이 동쪽이 두꺼우면 풍년이 들고, 서쪽이 두꺼우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달이 뜨면 달집에 불을 붙이고 쇠가락에 맞추어 모두 달을 보고 절을 한다. 사람들은 “오호 방아야”하며 신명대로 춤을 추기도 한다.

산에서 달집 태우기가 끝나면 ‘질매구’를 치면서 마을에 돌아와서 풍물을 치면서 한바탕 논다고 한다. 이날 특히 마을 일꾼들에게는 주인집에서 청어를 구어서 주기도 했다고 한다(1987년 조사, 제보자: 손길곤 73세).

이외에 월배지역은 동제를 지낸후 청술과 검줄을 거두어서 개천에서 달불을 놓는다. 침산동, 검단동 등에서도 행해졌으나, ‘청술가지’를 그냥 마을의 뒷산에 쌓아 놓고 달이 뜰 때 불놓는 경우도 있다.

3.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겨울철의 대표적인 놀이로 어린이나 어른 모두가 즐긴다. 시기는 대체로 12월 중순부터 정월 대보름날까지 성행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2월 영등에 액막이 연을 날리기도 한다.

연날리기의 유래는 《三國史記》에 金庾信장군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연을 띄웠다는 기록이 보인다. 《三國史記》의 기록으로 보아 연은 眞德王 원년(A.D.647)에 이미 날렸다고 볼 수 있다. 《東國歲時記》에는 최영장군이 탐라를 정벌할 때에 시작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에는 漢代에 韓信이 군사목적으로 만들었고, 일본은 A.D. 930년경 연을 만들어 날렸다

는 기록이 보인다. 서양에서는 B.C. 400년대에 희랍의 아르타스가 연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연날리기는 세계적으로 오래된 놀이인 것 같다.

고대의 문헌에는 연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나, 조선시대 歲時記인 《京都雜誌》正月 上元조에 의하면 아이들이 “厄”이라는 글귀를 쓴 연을 띄우다가 해질 무렵에 연줄을 끊어버린다. 정월 보름에 날리는 연은 ‘액막이’연의 성격으로 전국적으로 날렸다. 연의 종류는 꼬리연, 반달연, 치마연, 초연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대구지방의 연날리기는 제보자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金海龍, 남, 82세. 박윤규, 남, 70세, 강옥철, 남, 74세, 吳義敬, 남, 73세. 나이는 1987년 기준임).

연날리기는 수성천변에서 많이 하였다. 아이들이 모여 연싸움을 하는데 연실을 질기게 만 들고 유리를 곱게 뺀아서 연줄에 먹인다. 독위에서 옆으로 쪽 늘어서서 연을 띄우고 서로 연줄을 엮어서 연이 걸리면 줄을 당겼다 놓았다 하면서 상대방의 연줄을 끊는다. 싸움에 진 상대방 연은 떨어져 날아간다.

농촌에는 연줄이 없어서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연줄을 꼬아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한다. 면화를 타서 물레에서 실을 곱게 잣아 잘 묶어 연줄 꾸리미를 만든다. 신나게 연을 날리다가 줄이 툭 끊어지면 연은 멀리멀리 날아가 버린다. 어떤 때는 연을 주울려고 하빈까지 내려가기도 하였으며, 연을 주울려고 십리길을 넘게 뛰어가기도 한다. 명주로 실을 탄다고 하여도 연줄이 워낙 고와서 쉽게 잘 끊어진다.

연싸움은 일대 일로 개인싸움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사람이 편을 갈라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줄이 마구 걸리면 이쪽 저쪽에서 줄을 당기거나 시루거나 한다. 연줄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걸려도 항의하지 않는다. 능숙한 기술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때에는 연줄을 마구 당겨 다른 연줄을 싹 자르고 자신의 연이 걸렸다고 하면 연줄을 풀어 버리고 하는데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운 놀이다.

설에는 연을 아주 소중하게 잘 간직하면서 갖고 놀다가 보름에는 연의 ‘모가지’쪽에 한발 쯤 되는 쭉꾸러미를 달아놓고 이곳에 불을 붙인다. 설에 띄우던 연을 이렇게 불을 붙여 보름에 날리는데 보통 하늘 높이 까맣게 올라가서는 불에 타서 날아가 버린다.

대구지방에서는 특히 2월 영등때의 소지종이로 만든 ‘액막이 연’을 날렸다는 것이 팔달동, 칠곡, 무태동, 김단동 침산동 등지에서 확인되었다.

4. 석전

석전은 문헌에는 石戰, 邊戰, 便戰 등으로 기록되어 있고 민속어휘는 ‘돌싸움’ ‘팔매싸움’, ‘편싸움’ 등으로 일컬어진다.

석전은 들판이나 강변에서 한 마을 혹은 한 지방사람들이 동·서 혹은 남·북으로 편을 나누어 돌을 던져 싸우는 것이다.

석전에 대한 기록은 《隋書》卷 81의 高句麗傳에 보이고, 《高麗史》에도 보인다. 이 두 기록은 모두 왕이 직접 지휘하거나 구경하는 가운데 진행된 나라 행사의 성격이었다. 그 시기는 고구려에서는 정초에, 고려때는 단오 때 행했다. 조선조의 《東國歲時記》, 《京都雜志》등에도 촌락사회에서 석전이 행해졌음을 기록하고 있다.

문헌에 나타나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석전은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고 고려·조선조를 통하여 각지에서 성행하였고, 일제 때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석전의 유래를 군사적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으나,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례의 뜻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대구지방에서는 침산동 일대에서 석전을 행한 적이 있다고 구전으로 전 할 뿐이고, 그 규모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비산5동 장귀동(남, 1987년 조사 당시 85세) 옹의 제보에 따르면 지금부터 약 70년전에 날피와 침산 사이의 들판에서 석전, 즉 ‘팔매싸움’을 했다고 한다. 매년 보리싹이 틀 때면 날피와 침산의 어린이들이 편을 갈라 ‘돌싸움’을 했다고 한다. 15세 전후의 어린이가 참석하였다고 하며 제보자는 13세때쯤 구경만 하였을 뿐이라고 한다.

5. 씨름

일반적으로 단오날의 남자놀이로는 씨름을 들고 있다. 기록에는 씨름이 단오날 뿐만 아니라 7월이나 추석 때에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씨름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滿洲 輯安縣 通溝에 있는 고구려 고분에 씨름하는 광경이 보이고, 문헌상으로는 《高麗史》에 씨름에 관한 기록이 처음 보인다. 조선시대는 《實錄》에 씨름에 관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東國歲時記》5月 端午조에 서울의 南山이나 북악산 기슭에 모여 씨름을 했고 지방의 씨름이 세시풍속으로 김천지방에서 5월 단오, 충청도에서 7월 15일(中元)과 8월 16일에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록상으로 보아 씨름은 단오뿐만 아니라 7월 中元, 추석 등에 지방마다 열린 것 같다.

대구지방에서도 수성천변, 무태천변, 강창천변 등에서 씨름을 했다고 한다.

6. 장치기

우리나라의 장치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高麗史》卷 1 太祖 원년(9918) 九月 甲午조에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장치기는 고려 이전의 삼국시대에도 習武 수단으로 이용된 것 같다.

장치기는 여러 사람이 같은 수로 편을 갈라 나무뿌리나 새끼를 공모양으로 만든 다음 긴막대기로 쳐서 상대방 문안에 넣는 경기다. 장치기는 오늘날의 “필드하키”와 비슷한 것으로 반세기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많이 행해졌다.

장치기에는 두종류가 있다고 한다. 한 가지는 줄을 쳐 놓고 그위로 공을 높게 넘기는 것이며, 다른 한가지는 골문없이 땅에 선을 그어 놓을 뿐 줄은 치지 않고 열사람이면 다섯사람씩 나누어 쳐서 먼저 공을 넘기게 되면 이기는 방식이다. 대구지방에서는 양자가 습합된 장치기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 성서3동 배실마을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장치기 놀이는 농한기에 뭇감비축을 위해 산에 나무하러 가서 자주 하는 놀이다. 놀이장소는 넓고 평평한 장소이면 어디나 적당하다.

평지의 중앙에 ‘살포’라고 부르는 경계선을 긋고, ‘장공’과 ‘장태’를 만들어서 놀이 준비를 한다. 그리고 나서 양쪽이 동수가 되도록 편을 짠다. 장공은 나무나 짚으로 둥글게 만든 공이며, 장태는 나무막대기이다. 양편이 서로 마주 보고 살포에 선다. 그리고는 장공을 굴려서 상대방의 진을 먼저 돌아오면 이기게 된다. 놀이꾼들은 공을 굴리면서 “네베, 네베”라고 외친다. 이것은 공이 네편으로 가라는 뜻이라고 한다.(1987년 조사, 제보자:허노성 남, 72세)

IV. 市民祝祭

지역 단위로 거행되는 ‘축제’⁹⁾행사는 80년대 이전에는 몇몇 곳에 한정되었으나, 8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구의 옛이름을 딴 달구벌축제도 이러한 정부차원의 향토축제 지원정책으로 개발된 ‘시민축제’로 자

9) 축제란 개념이 우리의 전통적인 용어인지, 아니면 외국어의 번역인지 또는 일본어의 차용어인지에 대한 명백한 본거는 아직 발견할 수 없다. 우리의 추측은 번역어 또는 일본어 차용어라는 데 있지만 여기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할 자리가 아닌 것으로 안다. 다만 학계 일부에서 이는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 ‘대동굿’에 해당하는 놀이마당으로 보는 견해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본다.

리매김 되면서 해마다 가을철에 개최되고 있다.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 된 다음해인 1982년 ‘대구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시민화합의 도모’를 목적으로 출발한 달구벌축제는 1992년으로 11회를 맞는다. 특히 이 해는 제73회 전국체전이 대구직할시에서 열리게 되어 대구직할시는 ‘시민의 날에 개최하는 범시민적행사인 달구벌축제를 제73회 전국체전과 연계하여 겸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더 높임은 물론 향토문화를 선양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힌다.

대구시가 1981년 직할시 승격이후 10월 8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 이날을 전후하여 ‘달구벌축제’를 개최한 이래 각 구청별로도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각구청은 “각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행사와 전통문화의 계승으로 구민들의 화합과 애향심 고취”라는 취지로 1987년 이후 동구의 팔공문화제(1987년, 1회), 남구의 대덕제(1987년, 1회), 달서구의 두류축제(1989년, 1회), 중구의 동성로 축제(1990년, 1회), 서구의 날피축제(1993년, 1회) 등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축제들은 각 구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향토문화제의 발굴과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 시민들의 참여로 대구 지방의 문화를 가꾸고 계승하는 일에 모두 힘써야 할 때이다.

대구직할시가 행사는 ‘달구벌 축제’의 내용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 자료로 제1회 달구벌 축제의 행사 계획서를 기록하여 둔다.

達句伐祝祭行事計劃

目的

— 直轄市 昇格을契機로 —

- 市民의 協同과 團合으로 市民總和
- 市民의 精神文化 啓發로 傳統있는 文化都市 建設

方針

- 毎年 市民의 날(10월8日)을 前後하여 祝祭行事 舉行
- 現代的 祝祭行事는 加급적 止揚하고 傳統性·歷史性을 부각할 수 있는 行事 發掘 舉行
- 많은 市民의 參與로 名節처럼 즐거운 雰圍氣 造成

○ 가능한 單位行事는 民間主導型으로 舉行

行事主管

- 主催: 達句伐祝祭 推進委員會
- 後援: • 教育委員會 • 商工會議所
- 藝總市支部 • 市體育會
- 漢藥協會 • 每日新聞社
- 大邱文化放送 • 大邱放送局

行事日程

- 市民의 날: 10월 8일
- 行事期間: 82. 10. 8~10. 10(3日)

行事概要

- 階層別 行事現況

- 靑少年行事：12鍾
- 一般市民行事：26鍾
- 老人層行事：4鍾

慶祝行事

〈식 전 행 사〉

- 日 時：82. 10. 8(金)
- 場 所：市運本競技場
- 行事內容
 - 鼓笛隊퍼레이드：경희여상 100名
 - 軍樂隊퍼레이드：空軍(K-2)樂隊 50名
 - 儀仗隊示範：2군 의장대 50명
 - 農樂놀이
 - 孤山農樂：50명
 - 飛山農樂：30명

〈慶 祝 式〉

- 開會宣言, 行事參加者入場, 慶祝辭 등
- 施 賞：자랑스러운 市民賞
- 慶祝合唱
 - 市民의 노래, 능금노래 등
 - 人 員：2,000名
- 祝賀飛行：5管區 航空隊
- 風船 및 비둘기 날리기
 - 風 船：6,000個(景明女中 600名)
 - 비둘기：200首

〈式 後 行 事〉

- 日 時：82. 10. 8(금)
- 場 所：市運 本競技場
- 行事種類
 - 마스크게임
 - 古典舞踊
 - 人 員：1,000名 程度
 - 老壯마라톤 大會
 - 日 時：82. 10. 8

- 區 間：3km 정도
- 出戰者：180名 정도
- 施 賞：9名 정도

〈불 꽃 놀 이〉

| 日 時 | 場 所 | 數 量 |
|-------------|--------------|--------------|
| 10. 7 20:00 | 대구여중 두류공원 | 150발 150발 |

〈鄉 土 巡 禮〉

- 期 間：82. 10. 9~10(2日)
- 場 所：市運 野球場
- 參 加：中·高·大學生
- 內 容：徒步行事

〈野 球 大 會〉

- 期 間：82. 10. 9~10(2日)
- 場 所：市運 野球場
- 參 加：프로팀
 - 三星, OB, 靑龍, 해태

假裝行列

- 日 時：82. 10. 8(金)
- 區 間：4km 程度

〈引導事 및 軍樂隊〉

- 警 察 白 車：2臺 程度
- 警察사이카：10臺 程度
- 2軍司令樂隊：50名

〈儀 仗 隊〉

- 2군사 儀仗隊：40名

〈學 生 樂 隊〉

- 參加學校：7個校 350名 程度
 - 경일여상
 - 보성고등학교
 - 협성상고
 - 경원고교

第7章 民俗文化

- 협성상고 • 경원고교
- 대륜고교 • 경희여상
- 대구농고

〈和合旗手團〉

○ 參加旗手團

- 太 極 旗:3名 • 祝 祭 旗:7名
- 市旗·區廳旗:40名 • 새 마을 旗:40名
- 民 防 衛 旗:40名 • 豫 備 軍 旗:40名
- 學徒護國團旗:40名 • 機關團體旗:40名

〈纖維行列〉

○ 纖維아씨:眞·善·美

〈農 樂 行 列〉

- 孤山農樂:50名
- 飛山農樂:30名

〈區廳假裝行列〉

○ 中 區:監司行次 84名

- 宣化堂 模型
- 慶祝表示(旗 등)
- 觀察使 行列

○ 東 區:200만의 휴식처 팔공산 60명

- 八公山 模型
- 農 樂 隊
- 自然保護 假裝行列
- 行樂秩序 行列

○ 西 區:베짜는 古典舞蹈團 37名

- 農 樂 隊
- 무 역 선
- 베짜는 모습 再現

○ 南 區:교육과 田園의 都市 100명

- 鼓笛隊:樂隊
- 冊 및 四角帽子
- 앞산公園 模型
- 補化院 行列

○ 北 區:輸出의 北區 3工團 80名

- 樂 隊
- 3工團 模型
- 各國 춤의 行列
- 室內體育館 模型

○ 壽城區:에덴의 東山 116名

- 鼓笛隊, 農樂隊
- 仙女行列
- 새마을 機動純察隊
- 農園假裝行列

〈外國人 行列〉

○ 大邱華僑 協會員:50名

- 사자놀이
- 손오공(목발)놀이
- 당나귀 놀이

○ 大邱駐在 美國人

〈大學生假裝行列〉

○ 參加學校:4個校 程度

- 慶北大學校
- 嶺南大學校
- 啓明大學校
- 大邱大學校

〈企業體假裝行列〉

○ 參加企業體:10個팀 程度(候補業體:17個)

- 第一毛織 • 東國織物
- 韓一合織 • 코 오 룡
- 甲 乙 • 汎洋食品
- 金 福 酒 • 大邱百貨店
- 東亞百貨店 • 太平洋化學
- 韓國化粧品 • 新羅纖維
- 朝鮮織物 • 茂林製紙
- 成安織物 • 삼공織物
- 南鮮輕金屬

民俗行事

〈줄 다 리 기〉

- 日 時: 82. 10. 8(金)
- 場 所: 市運 本競技場
- 參 加: 6個팀(區廳別 1個팀)
- 人 員: 120名(男·女 60名)
- 假 裝: 韓服, 머리띠

〈그 네 뽀 기〉

- 日 時: 82. 10. 8(金)
- 場 所: 市運 本競技場
- 參 加: 6個팀(區廳別 1個팀)
- 種 目: 團體戰, 個人戰

〈씨 름〉

- 日 時: 82. 10. 8(金)
- 場 所: 市運 補助競技場
- 參 加: 6個팀(區廳別 1個팀)
- 種 目:
 - 團體戰
 - 個人戰

文化藝術行事

〈音 樂 祭〉

- 主 管: 藝總市支部(音樂協會)
- 日 時: 82. 10. 8~10. 9
- 場 所: 市民會館 大講堂
- 內 容
 - 市警演奏會
 - 音樂의 밤
 - 大合唱公演
 - 人員: 400名 정도

〈演 劇 祭〉

- 主 管: 藝總市支部(演劇協會)
- 鄉土劇團公演
 - 日 時: 82. 10. 9
 - 場 所: 頭流公園 또는 鳳山洞 3流 1號線

· 演劇競演大會

- 日 時: 82. 10. 8
- 場 所: 市民會館 小講堂
- 參 加: 市內 大學校, 專門大學

〈白 日 場〉

- 主 管: 藝總市支部
- 日 時: 82. 10. 9
- 場 所: 앞산公園
- 內 容
 - 韻文部
 - 散文部

〈國樂대잔치〉

- 主 管: 藝總市支部
- 日 時: 82. 0. 10
- 場 所: 頭流公園 또는 鳳山洞 3流 1號線
- 內 容
 - 民俗舞蹈
 - 唱
 - 民 謠
- 出 演
 - 有明國樂人, 演藝人
 - 地方國樂人, 演藝人

〈寫 眞 展〉

- 主 管: 藝總市支部(寫眞協會 市支部)
- 가. 寫眞攝影大會
 - 日 時: 82. 10. 9
 - 場 所: 達城公園
 - 內 容
 - 갈라, 黑白
 - 人物(모델), 風景
 - 施 賞: 10名 精度
- 나. 大邱의 發展像 寫眞 懸賞募集
 - 募集期間: 82. 10. 1~10. 20
 - 內 容
 - 達句伐祝祭
 - 새마을事業
 - 建設事業
 - 施 賞: 12個 程度

〈演藝대잔치〉

- 主 管：大邱放送局
- 日 時：82. 10. 9(土)
- 場 所：室內體育館
- 內 容
 - KBS “100分쇼”
 - 生放送 全國放映

〈古典衣裳發表會〉

- 主 管：
- 日 時：82. 10. 12
- 場 所：市民會館 小講堂
- 內 容
 - 古代衣裳 50點 程度
 - 人氣演藝人 出演

〈美術展覽會〉

- 主 管：藝總市支部
- 期 間：82. 10. 5~10. 30
- 場 所：市民會館 展示室
- 公募部門
 - 韓國畫 • 洋畫 • 書藝 • 工藝
 - 建 築 • 版畫 • 彫刻 • 寫真
- 施 賞
 - 大賞 1 • 推薦招待作家賞 1
 - 金賞 8 • 特選 35 • 入選 300

〈文化賞 施賞〉

- 施 賞 日：82. 10. 20(文化의 날)
- 施賞部門：學術, 藝術 I, 藝術 II, 教育, 言論, 文學
- 施 賞 金
 - 部門別 200萬圓

〈국화展示會〉

- 主 管：曉星女子大學校
- 期 間：82. 10. 7~10. 16
- 場 所：中央公園
- 內 容：국화 등 展示

傳統行事

〈藥令市開設〉

- 主 管：漢藥協會
- 期 間：82. 10. 7~10. 30
- 場 所：약전골목
 - 漢藥材 都賣市場
- 概 要
 - 各種 漢藥材 展示 및 割引販賣
 - 農藥놀이
 - 大型아취
 - 현수막
 - 令 旗
 - 令 燈
 - 弘報팝프리트
 - 其 他

〈纖維祝祭〉

가. 纖維展示會

- 主 管：大邱商工會議所
- 期 間：大邱驛 地下道
- 內 容：30個 業體 程度
 - 먼직, 마직, 견직, 모직, 화섬직, 메리야스 등

나. 假裝行列

- 纖維아가씨：眞·善·美

다. 纖維아가씨 選拔大會

- 主 管：大邱文化放送
- 期 間：82. 10. 7
- 場 所：市民會館 大講堂
- 本選參加者：20名 2程度
- 施 賞：眞·善·美, 人氣賞(2名)

〈夜市場 開設〉

가. 生活必需品 販賣

- 主 管：大邱商工會議所
- 期 間：82. 10. 7~10. 14

- 場 所：鳳山洞 3流 1號線(新築道路) 또는
頭流公園
- 內 容
 - └ 店 鋪 數：100個 程度
 - └ 店鋪面積：2,000坪 程度(個當 20坪)

나. 8도 特産物賣場

- 期 間：82. 10. 7 ~ 10. 14
- 場 所：鳳山洞 3流 1號線(新築道路) 또는
頭流公園
- 內 容
 - └ 販賣場：9個所 程度
 - └ 各 市 道 特産物

다. 味樂莊設置

- 內 容：8個所 設置
 - └ 各 地 方 別味飲食
 - └ 土俗酒
 - └ 떡전골목 再現
- 種 類
 - └ 山中飲食 곡類, 밥類, 麵類, 酒類, 肉類
 - └ 湯類, 떡類

라. 酒類原價販賣

- 種類
 - └ 막걸리
 - └ 소 주

慶祝雰圍氣造成

〈靑紗초롱달기〉

- 6개 幹線道路：321個所

〈꽃거리 造成〉

- 꽃 塔：4個所
- 꽃 桶：국화 등 60,000本
- 꽃거리：幹線路, 국화 등 300,000本

〈꽃車輻運行〉

- 버 스：1,000臺

- 택 시：4,700臺

〈業所割引奉仕〉

- 環境業所
 - 食品業所
 - 劇 場
- 20% 割引奉仕

〈記念메달製作販賣〉

- 主 管：大邱商工會議所
- 內 容
 - └ 앞面：祝祭象徵마크
 - └ 뒷面：大邱名物
 - └ 鍾類：8鍾

〈其 他〉

- 大型아취：主要幹線道路 5個 程度
- 祝 祭 塔：主要幹線道路 20個 程度
- 애드버른：30個 程度
- 현 수 막：50個 程度
- 街 路 旗：市旗, 새마을旗
- 公園無料開放：達城, 中央公園
- 本 部 席：裝飾

行事弘報

- 메스컴弘報
 - TV, 라디오 現地 中繼
 - 新聞, 放送 特輯報道
- 案内油印物
 - 綜合案内書：200部
 - 프 로 그 램：10,000部
 - 포 스 타：2,000枚
 - 표 어：1,000枚
- 記錄用 비디오製作
 - 主要行事
 - 1時間 程度

【참고문헌】

金宅圭, 〈慶北地方의 年中行事〉, 《靑丘大學論文集》8, 靑丘大學出版部, 1967, pp.321 ~ 344.

金宅圭, 〈慶北地方의 年中行事〉, 《靑丘大學論文集》9, 靑丘大學出版部, 1968, pp.467 ~ 478.

金宅圭, 《韓國農耕歲時의 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金宅圭 외, 《民俗藝術》, 大邱直轄市, 1987.

第5節 農 樂

I. 序言

농악의 기원은 문헌기록의 빈곤으로 그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농사를 주된 생업으로 영위해 온 三韓地方의 韓民族은 풍년을 하늘에 축원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祭天儀式을 행할 때, 歌舞演戲의 의례형태가 따라왔고 여기에서 농악의 始原도 찾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三國志》〈魏書 東夷傳〉에 “언제나 오월 씨뿌리기를 마치고 농신을祭하는데 무리지어 노래하고 춤추며 날을 이어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 그춤은 수십명이 함께 일어나서 서로 따르는데 땅을 높게 낮게 굴린다…… 10월에 농사를 마쳤을 때도 역시 이와같이 되풀이 한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농악의 기원을 찾아 봄직 하다. 그러나 당시의 축원의 가무 의식의 형태가 오늘날처럼 악기가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춤을 위주로 장단을 맞추고 가장 원초적 악기로 보이는 북을 울리면서 높게 낮게 사위를 지어 춤추는 형식이었을 것이다.

농악은 이런 시원적인 祝願儀式의 가무에서 비롯하여, 점차 악기를 더하여 갖추게 되고, 오늘날의 품물꾼(농악대)과 같은 편성을 이룩하였을 것이다.

농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祝願起源說, 軍樂起源說, 佛教起源說 등의 학설이 있으나 아직 정설은 없는 것 같다. 그 형태의 유래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축원형태설, 노작형태설, 걸립형태설, 연예형태설 등이 있으나, 그 전개과정이나 발전과정을 규명할 길은 없다. 현존하는 농악을 개관해보면, 위의 여러 기원설에 해당하는 농악은 그 수효에는 차이가 있어도, 거의 모든 형태가 남아서 분포하고 있다.

대구시에 남아 있는 농악만보아도, 비산농악은 ‘천왕매기굿’에 관련되는 축원농악에 가깝고, 고산농악은 모의농사굿의 색채가 짙은 축원농악과 연예농악으로서의 판굿이 복합된 농악이며,

옥수농악은 정초의 동제때 올리는 축원농악이면서도 모의농사굿의 요소는 거의 보이지 않고, 모의군사굿의 요소가 두드러진 농악이다. 그리고, 이들 농악은 모두 걸립형태와 지신밟기의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런 현존양상에서, 농악의 통시적인 전개과정을 축원형태→노작형태→걸립형태→연예형태로 도식화한 설명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도식화 하기에는 농악의 실상은 대단히 복잡적이어서, 그 발전과정의 전후를 통시적으로 체계화 하기는 어렵다. 현존하는 농악을 그 演戲形態로 목적에 의해서 분류해 보면, 축원의례, 모의농사, 걸립(지신밟기), 연예(판굿) 등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고, 특히 모든 농악이 판굿의 형식으로 예능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다.

祝願形態의 농악은 원래는 고대 농경사회 특히 일찌기 농경을 정착시킨 三韓地方에서 앞의 《三國志》의 기록처럼 씨뿌리는 봄철에는 풍농을 천신에 축원하고, 추수한 뒤에는 수확을 감사하는 제천의식을 올린데서 그 기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농악이 옛 삼한지방에 해당하는 영남·호남지방에만 밀집분포하고, 중부와 이북에는 거의 농악이 없는 것을 보면, 나락(벼)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상도에서는 농악을 ‘매구’ ‘매구친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埋鬼’ ‘埋鬼굿’이라고도 쓴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동해안과 소백산맥 기슭을 따라 마을들의 수호신, 개척신을 ‘골매기’라고 하고, 동제때 농악을 올리는 일을 “골매기 친다”고도 한다. 대구시에서도 비산농악은 마을의 상당·중당·하당의 3당으로 된 동제당에 올리는 농악에 의한 동제를 ‘천왕매기굿’이라 한다. 이 역시 천왕신이 골매기인 셈이니 골매기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동제가 洞神인 ‘골매기’에 대한 鎮魂의 기능을 한다하여 埋鬼로 한자로 표기되기도 하나, ‘매구’는 골매기와 관련지어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법하다.

模擬農事굿은 일년의 농경생활의 진행과정의 모찌기, 모심기, 논매기, 벼베기, 타작 등의 형태를 춤과 몸짓으로 연희하는 것이 골자가 되어 있다. 특히 여기서는 象毛꾼의 묘기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대체로 마지막은 전 품물꾼이 흥겹게 춤추는 판굿으로 대단원을 지우니, 다음의 연예형태의 농악은 이 판굿이 강조된 연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乞立形態의 농악은 ‘지신밟기’ ‘마당밟기’ ‘성주풀이’ ‘걸립’ 등 다양한 민속어휘로 불리고 있다. 대구시나 경북지방에서는 지신밟기가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고, 마당밟기, 성주풀이 등도 간혹 보이며, 걸립은 경기, 호남지방에서 많이 통용되는 어휘다. 乞立形態의 농악은 질굿(걸굿)과 安宅굿이 그 주요 구성요소가 되어 있다. 그리고 軍樂과 陣法을 모의하여 연희되어 온 것이라고도 한다.

정월 정초부터 보름까지 마을의 품물꾼(농악대)이 마을의 집집마다 돌면서 걸립을 한다. 집과 집사이에는 길곳으로 행군악을 치며, 집들에 들어 서면 正寢에서 치는 성주풀이를 비롯하여 부엌, 장독대, 마당, 우물, 외양간, 뒤안, 변소 등 집들의 중요한 생활공간마다 걸맞는 대단히 긴 노래의 사설을 걸드려 농악을 올린다.

걸립농악의 형식은 조선시대의 불교사찰들이 빈곤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화주승을 비롯한 무리들이 민가를 돌면서 걸립하던 ‘굿중패’에서 유래되어가다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다. 현재도 볼 수 있는 농악의 복색에 고깔을 쓰는 곳이 많고, 그때 ‘자바라’를 치고, 때로는 잡색에 ‘중’이 끼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이 불교문화의 잔존으로 해석된다. 농악의 복색이나 상모꾼이나, 쇠잡이가 쓰는 상모는 고려시대의 몽고식 군복의 영향이라는 학설도 있다.

아무튼 현재도 마을의 농악대가 마을의 공익을 위한 모금을 위하여 걸립을 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대구시의 시장이나 상가에서도 정초가 되면, 상가들을 찾아 다니는 걸립꾼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지신밟기’의 걸립형식은 거의 모든 형식의 농악에 복합되어서 오늘날 연행된다. 대구시의 농악은 거의 모두가 이 지신밟기의 행사를 해 왔으며, 현재는 ‘지신밟기’만 남아서 농악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도 많다. 이것들은 처음부터 ‘지신밟기’로 독립되어 있었다기 보다 마을 단위의 품물이 쇠잔한 끝에 남아 있는 잔존부분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연예형태의 농악인 판굿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원래는 농악의 마지막 한마당을 장식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분히 많은 관중이 모인 가운데서 신나게 흥겹게 묘기와 춤사위와 쇠가락을 보이며, 군중과 함께 즐기는 한마당이다.

오늘날 농악이 마을의 오솔길이나 논바닥을 떠나서 광장이나, 미리 마련된 무대적 연희장에서 연행되는 경향은 더욱 이 판굿의 연예형태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질굿’을 치고, 마을의 큰집 마당에서 놀고, 타작마당에서 온 마을이 즐기는 판굿으로 진행되던 농악은 거두절미되어, 판굿만을 과장하여 놀게 되는 경향으로 변천하고 있는 것이겠다.

위의 축원굿(의례), 농사굿(모의농경), 지신밟기(걸립), 판굿(연예) 형식의 농악은, 원래는 그 목적과 기능, 그리고 그 형식이 각기 다른 농악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남아 있는 농악은 대체로 위의 여러 형태가 복합되어 있고, 대구시 일원에도 마찬가지 인것 같다.

때로는 경북 금릉군의 「빚내농악」처럼 완전한 군대의 진법을 모방한 군사굿이라할 만한 것도 있고, 청도군 차산농악처럼 순수한 모의 농사굿도 있다. 가령 「비산농악」이나 「고산농악」은 축원굿에다 농사굿이 판굿이 되어 있으면서 지신밟기의 기능도 한다. 「옥수농악」은 축원

곳에 농사곳의 요소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외따먹기’와 ‘오방진’과 같은 모의진법이 곁드려 있고, 아울러 특이한 ‘질곳’은 군악의 행진곡에 방불하며, 지신밟기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대구시의 농악은 복합적인 것이다.

II. 飛山農樂

1. 생성배경과 유래

비산농악은 속지명을 ‘날뵈’라고 하는 현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동에서 자생한 농악이다. 아득한 옛날부터 이 지역 주민들이 신앙해 오던 동제당인 천왕당(기천왕, 중천왕, 말천왕)에서 정월보름에 행하던 동제인 ‘천왕매기 곳’때의 ‘지신풀이’에 그 모태를 두고 발전해 온 것 같다.

‘날뵈’라고 부르는 지명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아득한 옛날에 달내(달천)의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하늘의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모양의 구름이 날아오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동산 또 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에 떨어져 동산이 되었다.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뵈’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는 비산이라 쓰게 되었다. 현재의 대구직할시 비산동의 지명이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다. 날뵈의 전설은 옛 달구벌의 산성이던 달성(현 달성공원)이 있던 산의 기원설화로 우리나라 상고의 신모신앙에 근원하는 지명전설이다. ‘날뵈’라고 부르는 지명전설의 화근에 우리나라의 원초적인 지모신신앙이 깔려 있는 것만 보아도 이 농악의 뿌리가 대단히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비산동의 ‘원고개’는 달성과 달천(금호강)사이의 넓은 들을 가로지르는 ‘서울나들’이었고, 기록에는 대구의 관도로 나타나 있다. 비산농악은 정월 상원의 천왕매기와 지신풀이 뿐만 아니라 이 관도를 오고 가던 ‘원님’의 행차때에도 원고개에서 놀았다고 고로들은 전한다.

비산농악은 농사곳의 성격보다는 ‘군사곳’이라 할 만한 성격이 짙은 것이 그 특징이라할 것이다. 전체의 놀이는 열두마당으로 되어 있으나, 전성기에는 마당수를 늘려 얼마든지 긴 시간을 놀 수 있었다고 한다.

2. 연행과정

(1) 질곳(길곳): 행진곡. 천왕당까지의 길매구 가락이다.

(2) 정적궁이: 상쇠는 단마치. 대원은 자신의 보폭으로 가락에 맞춰 원형으로 돌면서 허

리춤, 어깨춤으로 돌아간다.

(3) 반직굿(자반드기): 마당굿이라고도 하며, 다양한 상쇠의 가락에 일사불란으로 맞춰 단채무악의 묘를 살리며 끝은 덧배기(덧백이)춤이다.

(4) 엮어빼기굿: 2채로 시작하여 4채로 넘어 가면서 특히 설북에 따라 몸을 뒤집어 엮어 빼면서 빠른 사위로 돌아간다.

(5) 다드레기굿: 도드리와는 다르다. 3채로 시작하여 7채 단모리 가락으로 넘어 가며 전단원이 한줄로 몰아친다.

(6) 강강술래굿(허허굿): 단원은 원을 그리면서 설북이 2채에서 4채로 넘어가면 갈지자 걸음으로 유도하면 이내 따라 뛰면서 허허굿으로 끝난다.

(7) 살풀이굿: 풍요의 환희를 상징하는 우렁찬 북소리와 어깨춤의 놀이이다.

(8) 진풀이: 덕석말이라고도 하며 천왕기와 농기를 중심으로 전대원이 질주하면서 자진가락에 맞추어 원진을 치고 푸는 진풀이이다.

(9) 놀이굿: 징, 북, 장구, 법구의 각 잡이들이 따로 묘기를 보이는 놀이마당이 전개된다.

(10) 모듬굿: 1채, 2채, 3채를 치면서 원을 그리며 흠어졌다. 모임을 세번 거듭하고 설북장단에 4채, 8채, 12채로 대북을 높이 뒤집으면서 돌아가는 놀이이다.

(11) 덧배기굿: 덧배기, 들놀이 가락으로 대북이 특히 3채, 6채로 몰아치고 12채까지 흥겨운 장단으로 특힌 상모놀이가 돋보이는 마당이다.

(12) 길굿: 지신풀이를 위하여 마을굿의 행사장으로 돌아가는 행진곡이다.

3. 농악단의 편성

비산농악은 쇠 2명, 징 6명, 북 4명, 소북 10명, 양반 1명, 포수 1명, 기수 3명, 나팔수 1명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복색은 다음과 같다.

(1) 상쇠: 상모를 쓰고 흰옷과 붉은 조끼를 입고 청·홍·황색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홍색은 허리에 두르고, 청색은 좌측 어깨에서 우측 겨드랑 쪽으로 하고, 황색은 우측 어깨에서 좌측 겨드랑 쪽으로 맨다.

(2) 종쇠: 상모를 쓰고 흰옷과 푸른조끼를 입고 청·홍·황색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 (3) 징: 흰 꼬깔을 쓰고 흰옷과 푸른조끼를 입고 청·홍색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 (4) 북: 징과 같은 복색이다. 단 설북은 상모를 쓴다.
- (5) 장고: 징과 같은 복색이다.
- (6) 소북: 상모를 쓰고 흰옷과 푸른조끼를 입고 청·홍·황색 띠를 한다.
- (7) 양반: 흰 두루막이를 입고, 턱에 수염을 달고 갓을 쓴다.
- (8) 포수: 누른옷을 입고, 등에 망태, 꿩 등을 메고 손에는 목총을 든다.
- (9) 기수: 장과 같은 복색을 한다.
- (10) 나팔수: 징과 같은 복색을 한다.

4. 비산농악의 전승자들

비산농악의 대표적인 예능보유자로는 상쇠 임문구와 설북 김수배 등을 들 수 있다.

상쇠 임문구는 비산동 토박이로 이 마을의 최봉수(남, 84세 추정 사망)를 따라 다니며 종쇠를 쳤고, 그에게 쇠가락을 전수받았다 한다.

쇠가락은 모두 12채인데 임문구는 이 가락을 모두 치며, 특히 잔가락이 많다고 한다. 현재 비산농악의 상쇠이며, 그의 쇠가락은 종쇠 김수기(남, 46세)에게 전수되고 있다.

김수배는 청도군 각북면 오산동에서 태어나서 16세때부터 비산동에 정착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비산동의 상쇠 최봉수에게 북을 배웠다고 한다.

1947년 경에는 최봉수, 임문구 등과 함께 농악대를 만들기도 했다. 6·25사변으로 농악대가 없어졌으나, 1953년 10월경에 비산농악대를 조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수배는 1968년 처음으로 「비산농악」으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 바 있으며, 그후 「비산천왕매기」 「날뽕북춤」 등으로 여러번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갔다.

특히 농악대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배가 농악대의 전승과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날뽕북춤」 기능 보유자로서 대구시직할시 지방 인간문화재 1호이다 (1987년 조사, 제보자: 임문구, 남 71세 김수배 남, 62세).

III. 孤山農樂

1. 생성배경과 유래

고산농악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내환동에서 자생하여 전승되는 농악이다

내환동은 고려시대부터 ‘谷己’라 불리우는 옛 「서울나들」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농촌의 자연 촌락이며 각성마을이다.

고산농악은 마을 개척시기부터 전승되어 오면서 농악 원래의 소박성을 그 원형대로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다. 내환동에서는 매년 음력 正月 보름에 동제(上堂, 中堂, 下堂)를 지내는데 이 동제의 왕복길에 농악을 잡히며 동제가 끝난 뒤에도 풍물을 쳤다 한다.

내환동농악의 특징은 한 자연촌락의 노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고유의 전통적인 美를 잃지 않고 마을 단위의 향토색 짙은 농악형태를 유지하는 점이다. 연행 과정에서 “닭쫓기”놀이는 이 마을에만 있는 독특한 놀이마당이다.

내환동은 농악의 전승유지를 위해 19세기부터 契가 조직되어 있으며, 그때 사용한 契牒도 남아 있다.

1983년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文公部 長官賞을 탔다. 그때 받은 상금을 기금으로 고산농악대를 조직하여 전승하고 있다.

현재는 대구직할시 무형문화재 1호이다.

2. 연행과정

1) 堂山祭굿

당산제굿에는 中堂山祭굿과 下堂山祭굿이 있다.

(1) 중당산제굿: 짚이들은 길매구가락을 치면서 길놀이를 하고, 中堂山나무 주변으로 모여 제관과 축관은 젓상에 재배하고 축문을 불사른다. 이때의 쉬가락은 덧배기, 천왕가락, 우장각뽕이 등이 있다.

(2) 거리굿: 이열종대로 벌려 서고, 쇠문을 비롯하여 복짚이·雜色들이 안으로 들어가 개인 놀이를 하는 가운데 이른바 춤매구·우장작뽕이 등 덧배기가락을 친다. 그리하여 길군악을 치면서 길놀이를 하고 하당굿으로 들어간다.

(3) 하당제: 제관이 축문을 낭독하고 재배, 음복하고 축문을 사르는 등, 중당산 제문을 다시 그대로 행한다.

2) 지신밟기

(1) 문굿: 짚이들이 문 앞에서 “주인 주인 문 여소 나그네 손님 더 간다” 하고 농악을 치

면 주인이 나온다. 잭이들이 주인께 인사를 하면 주인은 그들을 안으로 인도한다.

- (2) 성주풀이: 마루에 제물을 차리고, 덧배기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한다.
- (3) 조왕풀이: 부엌으로 가서 덧배기가락을 치고 조왕굿을 한다.
- (4) 장고방풀이: 장고방에 가서 덧배기가락으로 장고방풀이를 한다.
- (5) 용왕풀이: 장독대에 가서 덧배기가락을 용왕굿을 한다.
- (6) 고방풀이: 고방으로 가서 덧배기가락으로 고방굿을 한다.
- (7) 방앗간풀이: 방앗간에 가서 덧배기가락을 치면서 방앗간굿을 한다.
- (8) 마구간풀이: 마구간에서 덧배기가락을 치면서 마굿간굿을 한다.
- (9) 마당풀이: 마당을 돌면서 덧배기가락으로 마당굿을 한다.

(鄭昞浩, 《農樂》, 1986, pp. 184 ~ 190. 참조)

〈지신밧기 사설〉

(1) 성주풀이

| | |
|------------|------------|
| 어루지신아 | 지신밧아 누르자 |
| 이집지은 대목은 | 어느대목이 지었소 |
| 박대목이 지었나 | 김대목이 지었자 |
| 그중에서도 도대목이 | 용머리에 터를 닦아 |
| 호막주추 | 유리지둥 |
| 사간팔측집을 | 지을라하니 |
| 성주지동이 | 부족이라 |
| 앞집에 김대목아 | 뒷집에 박대목아 |
| 첫닭울어 밥해먹고 | 두희울어 신발하고 |
| 연장망태 둘러메고 | 첩첩산중 들어가서 |
| 그나무한주 싯뜻하여 | 그나무한주 잡아노니 |
| 황색독색 새끼치고 | 까막까치 알을낳아 |
| 그나무도 | 부정이라 |
| 또한나무도 잡아노니 | 토끼선생 하는말이 |
| 그나무나자 내나자 | 그나무도 부정이라 |

가자가자 들어가자
강원도라 금강산
그나무한주
동쪽으로 뻗은가지
높은가지 활가지
은장도 드는칼로
대톱도 걸어놓고
못하겠네 못하겠네
못하겠네 못하겠네
이집이라 대주양반
술한잔 없거들랑
서른서이 역꾼들아
배고프면 밥을먹고
밀어라 톱질이야
서러렁서러렁
허러렁허러렁
상통은 베어다가
중통은 베어다가
어떤나무 팔자좋아
어떤나무 팔자좋아
어떤나무 팔자좋아
이집을 세웠으면
자자오로 세웠으면
어따그집

이리저리 불인입춘
입춘하니 대길이요
소재하니 황금출이여
이집짓고
아들형제 팔형제

강원도로 들어가자
상상봉을 올라가서
담아놓고
서쪽으로 읊은가지
낮은가지 젓가지
이리저리 다쳐놓고
소톱도 걸어놓고
배가고파 못하겠네
목이 말라 못하겠네
어딜가고 안오시노
찬물냉수 한잔주소
이내말씀 들어보세
목마르면 술잡주소
당겨라 톱질이야
톱질이야
톱질이야
옥왕전에 시주하고
나라님전 시주하고
우리나라 용상되노
공자님에 두근되노
이집성주가 되었노
자자오로 세웠나
장자문을 달았나
잘지었다
나무아미타불
연연하고 잘그렸다
건양하니 다경이라
개문하니 만복래라
삼년만에
팔형제 칠형제

한살두살 말을배워
경주서울 첫서울
과거라고 하신후에
이집이라 대주양반
남의눈에 꽃이되고
이집이라 나무대신
오동장농 객기쇠에
구름같이 허튼머리
앞에는 은봉채여
남갑사 겹저고리
의복단장 하였으니
부모는 천연수요
막아주자 막아주자
정월이라 드는살
이월이라 드는살
삼월이라 드는살
사월이라드는살
팔월이라 드는살
구월이라 드는살

십오세 글을배와
과거하기만 힘을쓰오
정승판서 유진하소
동서남북 다녀도
남의눈에 잎이되고
치장한번 하여보자
너모빃집 끼여놓고
물결같이 빗겨내려
뒤에는 금봉채라
홍갑사 겹치마에
자식치장 하여보자
자식은 만년수라
열두달 막아주자
이월무방수 막아주고
삼원삼진날 막아주고
사월초파일 막아주자
칠월칠석에 막아주고
구월구일이 막아주고
시월상달에 막아주자

(2) 조왕풀이

찾아가자 찾아가자
지신밟아
조왕각시
조왕아 각시아
큰술에 안친밥
먹고남고 쓰고남고
은종지로 부란나
쌀독안에 부인각시

어루어루 지신아
누르자
찾아가자
무얼먹고 부랴노
작은술에 안친밥
태산같이 부랴주소
금종지로 부란나
물독안에 용왕각시

(3) 장고방풀이

| | |
|-----------|----------|
| 찾아가자 찾아가자 | 어루어루 지신아 |
| 지신밟아 | 누르자 |
| 장고방을 | 찾아가자 |
| 큰독은 닷말독 | 작은독은 서말독 |
| 작은독에 꿀치고 | 가리독에 줌친다 |

(4) 용왕풀이

| | |
|-----------|----------|
| 찾아가자 찾아가자 | 어루어루 지신아 |
| 지신밟아 | 누르자 |
| 용왕님전 | 찾아가자 |
| 동해바다 용왕아 | 서해수를 땡기소 |
| 서해바다 용왕아 | 동해수를 땡기소 |
| 남해바다 용왕아 | 북해수를 땡기소 |
| 북해바다 용왕아 | 남해수를 땡기소 |
| 물밑에 용왕아 | 은하수를 땡기소 |
| 엇다 그물좋다 | 꿀떡꿀떡 잡소 |
| 엇다 그물좋다 | 꿀떡꿀떡 잡소 |

(5) 고방풀이

| | |
|-----------|----------|
| 찾아가자 찾아가자 | 어루어루 지신아 |
| 지신밟아 | 누르자 |
| 고방으로 | 찾아가자 |
| 들라라 들라라 | 삼천석을 들라라 |
| 들라라 들라라 | 오천석을 들라라 |
| 들라라 들라라 | 백만석을 들라라 |

(6) 방앗간 풀이

| | |
|-----------|-----------|
| 어루어루 지신아 | 지신밟아 누르자 |
| 가자가자 찾아가 | 방앗간을 찾아가자 |
| 이방아가 뉘방아고 | 강태공에 조직방아 |

강태공은 어디가고
서서짚는 화식방아
물힘으로 돌아간다
낮이나 밤이나
쌀천석을 짚으라

방아하나만 남았노
만첩산중 물레방아
엇다 그방아좋다
털커덩 털커덩
억만석을 짚으라

(7) 마구간풀이

어루어루 지신아
가자가자 찾아가자
누르자 누르자
누르자 누르자
소라고 메거들랑
말이라고 메거들랑
엇다
나가면은 반마리
엇다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지신뵈아 누르자
마구간을 찾아가자
마대장군을 누르자
춧대장군을 누르자
고래소가 되어주소
오초말이 되어주소
그소좋다
들어오면 온마리
그소좋다
고래소리
고래소리

(8) 마당풀이

어루어루 지신아
어루어루 지신아
앞에는 앞노적
노적노적 삼노적
위에섬에 짝이나고
일년하고 열두달
삼백하고 육십일
잡귀잡신은 다내치고

지신뵈아 누르자
지신뵈아 누르자
뒤에는 뒷노적
구슬노적 풀노적
밑에섬에 움이나네
과년하고 열석달
하루같이 점지하고
만복은 이리로

(鄭昞浩, 農樂, 1986, pp. 276~278. 참조)

3) 판국

(1) 덩덕궁이(원진): 상쇠의 지휘에 따라 가볍게 뛰면 시계반대방향으로 원진하고 이어서 태극을 만들기 위하여 원을 링만돌고, 계속해서 태극무늬를 만들며 시계방향으로 돈다.

(2) **돌석(진곳)**: 원을 돌며 상쇠의 쇠 꺾음에 따라 뒤돌아가기를 두번한 후 상쇠가 다시한 번 쇠를 꺾으면 뒤로 돌아 두개의 동심원을 그린다.

(3) **춤굿(판굿)**: 상쇠의 덧배기 가락에 따라 원을 돌면서 각자 흥법계 춤을 엮어 나간다.

(4) 닭쫓기: 이는 다른 농악놀이에는 없는 특이한 놀이 형태로 상모팀 전원이 원 중앙에서 서로 손을 잡고 원을 돌면서 닭(각시와 양반)을 쫓는다.

(5) 방석말이(오방굿):農旗를 구심점으로 상쇠가 원을 돌면서 좁혀 들어갔다가 다시 반대로 풀어 나온다.

(6) 모내기굿: 원이 풀어지면서 징, 북, 장고가 1열로 서고, 상모가 1열, 이렇게 2열 종대로 마주보고 상모가 중앙에서 쇠를 치는데 이는 모내기, 모심기, 김매기 놀이의 형태이다.

(7) **법고놀이**: 상모, 장고, 북, 징의 순으로 각 악기팀 전원이 원 중앙에 나와 팀별 놀이를 진행한다.

3. 고산농악 가락의 전승

고산농약은 상쇠 장이만(남, 사망)에 의하여 쇠가락이 전승·보존되어 왔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락마치, 조름세, 굿거리, 살풀이가락 등의 가락을 칠 수 있었다고 한다.

고산농약의 매구가락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락마치(길매구가락)

4분박의 빠른 4박의 길대구가락이다. 팽과리는 ‘갱갱갱개개개개 개개개개 개개개개 —’하고 친다. 부락마치는 행진할 때 쓰는 가락이다.

(2) 조름쇠

4분박의 매우 빠른 4박의 가락이며 팽과리는 네 가지의 가락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쇠가락은 ‘개개갠 개개갠 개개개개 개개갠지갠지 개개갱’으로 치고, 둘째 쇠가락은 ‘개개갱 개개갱 개개개개 개개갱 개개갱’이며, 셋째 쇠가락은 ‘개갱개개갱 갱갱개개갱개개갱개개갱 개개갱개개갱’으로 치며, 넷째 조름세 쇠가락은 ‘갱갱갱갱 갱갱갱갱—’을 반복한다.

(3) 굿거리

굿거리는 4분박의 보통 빠르기 3박자의 가락이다. 쇠가락은 ‘갱개갠 개갠개갠 갱개개갠 개—’으로 친다.

(4) 살풀이

살풀이는 4분박의 보통 빠르기 3박가락과 4박 가락으로 이루어진 혼합박자이며, 팽과리는 ‘갱응응 갱응갱갱지갱갱갱’으로 치고, 다시 ‘개갱지 개갱지’하면서 친다.

4. 농악단의 편성

고산농악은 쇠 2명(상쇠와 종쇠가 있다), 징 6명, 북 10명, 장고 10명, 소고(상모) 14명, 포수 1명, 양반 1명, 색시 2명, 농기 3명, 평각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V. 旭水農樂

1. 생성배경과 유래

옥수농악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옥수동에서 자생하여 전승되는 농악이다.

옥수동은 1981년 7월 경상국 고산면 옥수동에서 대구직할시로 편입된 130여호의 주민이 논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자연촌락이다. 옥수농악은 이 마을 동제당에서 해마다 정월 초사흘날 관행하던 「천왕받이굿」에서 파생한 농악이다.

원래 옥수농악은 동제때 동제당에서 신내림을 축원하는 「천왕받이굿」과 이 내림굿에서 뒤따르는 판굿과 보름날의 구결(지신풀이), 그리고 달불놀이 때의 「마당놀이」가 하나의 틀이 되어 전승되어 왔다. 동제는 1970년대의 도시화 과정에서 중단되었고, 달불놀이는 입산금지 이후 없어졌으나 농악과 지신풀이는 1963년부터 친목계를 조직하여 전승하고 있다.

연행구성 중에서 「외따기」는 경상도 남부지방에서는 드문 진형을 가진 놀이이다. 쇠가락은 비교적 빠른 가락이 많고 잔가락이 적은 영남농악의 특징을 보유하며, 특히 길긔의 가락이 독특하다. 옥수농악은 동제와 연관된 축원농악과 판굿 즉 연희농악이 복합된 농악이며 경상도 내륙의 농악에 농사굿에 많은데 비하여 전체의 구성은 진긔에 가까운 농악이다.

옥수동은 1963년부터 친목계를 조직하여 전승하고 있다.

특히 1987년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공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것을 계기로 옥수농악대를 더욱 조직적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2. 연행과정

옥수농악의 연행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질매구(질굿): 쇠는 박자로 치며 3가지 리듬으로 변주하는 이 마을의 독특한 가락의 길풀이 이다.

(2) 천왕받이굿: 동제당 앞에서 신내림을 받는 곳이다. 주민들은 이 때 쇠가락이 「천왕님 천와님 처령 처령 내리소」하는 소리로 들린다고 한다.

(3) 둥글데미: 대원들은 원형을 지어 상쇠가 무정지경이, 허허깅깅, 잣은모리의 3가지 가락으로 변주하면 대원들은 악기장단에 맞추어 원무를 춘다.

(4) 마당놀이: 다자형의 대형에서 징, 북, 장고, 법고잡이들이 각각 조별로 묘기를 보인다.

(5) 외따기: 2열 종대의 대형에서 마주보고 앉자 있는 대원들을 상쇠가 빠른 가락으로 Z자형으로 돌면서 징, 북, 장고, 법고열로 끊어 일으켜 풀어나간다.

(6) 덧배기: 상쇠가 춤매구가락에 맞추어 흥겨운 장단으로 어깨춤을 춘다.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 가락을 가진 춤굿이다.

(7) 오방진: 상쇠, 종쇠, 잡색이가 중앙에 원형을 만들고 징, 북, 장고, 법고가 각각 네군데 원형을 그리면서 오방진을 만들어 논다.

(8) 덕석말이: 톨톨말이라고도 한다. 농기를 가운데 세우고 전원이 질주하면서 자진가락에 맞추어 원진을 치고 또 풀면서 태극형을 그리면서 두군데서 밀집적 원진을 그린다.

3. 농악단의 편성

옥수농악은 쇠 2명(상쇠 1명, 종쇠 1명), 징 6명, 북 8명, 장구 8명, 법고 12명, 목나팔 1명, 양반 1명, 포수 1명, 색시 1명, 농기수 1명, 기수 2명 등 43명으로 편성어 있다. 복색은 다음과 같다.

- (1) 상쇠: 병치를 쓰고 흰옷을 입고 적·황·녹색의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 (2) 종쇠: 흰옷에 적·황·녹색의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르고 병치를 쓴다.
- (3) 징: 흰옷에 적·황·녹색 삼색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르고 회색 고깔을 쓴다.
- (4) 북: 징과 같은 복색을 한다.
- (5) 장구: 징과 같은 복색을 한다.

- (6) 범고: 흰옷에 적·황·녹색의 띠를 양어깨와 허리에 두른다.
- (7) 목나팔: 징과 같은 복색을 하고 오동나무로 만든 목 나팔을 분다.
- (8) 양반: 두루마를 입고 종이로 만든 정자관을 쓴다.
- (9) 포수: 검은 옷을 입고 털모자를 쓰며 등에 망태, 꿩털, 토끼털을 메고 목청을 든다.
- (10) 색시: 노랑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는다.
- (11) 농기수: 징과 같은 복장을 한다.
- (12) 기수: 징과 같은 복장을 한다.

4. 옥수농악의 전승자들

옥수동에서 대표적 예능보유자는 朴元鎬·李萬邦 등이다.

설쇠(상쇠) 박원호(66세)는 이 마을에서 출생하여 이옥관(100세 추정, 사망)→서병극(86세, 사망)으로 이어지는 전승자로서 옥수마을의 토박이다.

설상모 이만방(77세)은 현재 친목회장을 맡고 있으며 13세때부터 이마을의 상쇠였던 서병극을 따라 다니며 끝범구를 치고 상모를 돌렸다.

이외에 주요한 전승자들은 최태산(남, 64세), 최대규(남, 58세), 박희호(남, 63세) 정용대(남, 57세), 박수조(남, 55세), 권갑암(남, 64세) 등이다.

【참고문헌】

鄭炳浩, 《農樂》, 열화당, 1986.

金宅圭 외, 《民俗藝術》, 大邱直轄市, 1987.

金宅圭 외, 《大邱의 禮樂》, 大邱直轄市, 1988.

第6節 民 謠

I. 序言

민요는 촌락사회나 전통사회의 집단에서 자생하여 구전으로 전승되어 ‘백성’들이 즐겨부르는 노래로서, ‘백성’들의 삶과 애환, 바람 등이 표현된다. 민요에는 사실과 가락과 몸짓이 함

게 어우러져 있다. 사설에서는 문예적 의의, 가락과 장단의 음악적 미, 그리고 춤사위가 가지는 무용적 극적 효과가 어우러져 있는 복합적인 未分化藝術(종합예술체)이다.

민요의 사설이나 가락은 창작자나 형성년대는 알 수 없어도 오랜 역사를 두고 民의 삶 속에서 시간을 거둬들이면서 고쳐지고 다듬어져 민족특유의 정감을 표출하며, 민족문화의 한 기층을 이루게 된 것이다.

민요는 생활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멸·생성되고 구전자의 재능, 가창하는 연행환경에 따라 사설과 가락이 변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또, 어느 한 개인의 노래가 아니고, 공동체 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농요는 농경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이기고 여러 사람이 보조를 맞추어 농사일을 효율적으로 또 흥겹게 치러내기 위해서 일정한 율동이 가락과 사설로 이루어져 있다. 사설은 남·녀의 연정, 남편에 대한 원망, 늙음에 대한 탄식, 신세타령 등을 주된 내용으로 전통사회 성원들의 감정과 욕구, 생활의 고뇌 등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

민요의 대부분은 제의와 노동에 관련되어 형성되었고, 그 기원도 여기서 찾을 수 있으나 그 발생시기를 정확하게 알 길은 없다. 그러나, 《三國志》 등 고대의 기록에 보이는 「東盟」, 「舞天」, 「迎鼓」, 「祭天」 등의 의례에는 반드시 노래가 따랐을 것이니, 그 기원과 전개는 민족의 역사와 자취를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민요는 고대의 集團歌舞에서 그 원초적 양상을 찾을 수 있고, 고조선의 「公無渡河歌」, 고구려의 「黃鳥歌」, 백제의 「井邑詞」, 신라의 「薯童謠」, 가야의 「龜旨歌」 등도 민요로 추측되며, 진덕왕대에 편찬되었다는 기록이 보이는 《三代目》 같은 歌集에도 많은 양의 민요가 기재되었을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高麗俗謠」도 모두가 고려시대의 민요로 생각된다. 그러나 민요의 속성이 구전에 의해 전승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단편적인 문헌기록에서 그 통시적인 생성과정을 추정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조선시대의 민요는 史書에 전하는 것을 비롯하여 歌集·小說 등에도 삽입되어 있고 직접 수집되기도 했다. 世宗때 朴堧은 민요의 수집에 힘을 기울렸고, 世祖는 지방행차때 농민들의 노래를 듣기도 했다. 이는 민요가 백성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알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보인다.

우리 민요의 본격적인 수집·연구는 1930년대부터 민족문화운동과 민속학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대구지방의 민요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집·연구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문헌에 보이는 대구지방의 민요는 任東權 編 《한국민요집》(全6卷)에 수록된 100여 수가 대표적인 자료라 하겠다. 이 민요집은 編者의 수집 이외에 《朝鮮口傳民謠集》(金素雲, 1933),

《朝鮮民謠選》(林和·李在郁, 1938), 《朝鮮民謠集成》(方鍾鉉·金思燁·崔常壽, 1948), 《朝鮮民謠の研究》(高晶玉, 1949), 《朝鮮의 鄉土娛樂》(村山智順, 1941) 등에 수록된 민요를 모은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수록된 대구지방의 민요들은 간접조사에 의한 수집이 많고, 체계적인 조사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민요가 ‘民’의 삶을 표현하는 종합예술체라면, 그 사실과 가락에서 특정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엿볼 수 있다. 1987년 민속예술 조사에서 촌락단위의 지역차는 적지만 대구지방의 특성을 나타낼 만한 민요들이 많이 채록된 바 있다. 채록된 민요들은 ‘모찌는 노래’, ‘모심기 노래’, ‘논매기 노래’, ‘타작 노래’, ‘방아타령’, ‘풀베는 노래인 ‘어사용’ 등 農謠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성들이 부르는 ‘베를 노래’, ‘시집살이 노래’ 등도 다수 채록되었다. 특히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모찌기나 모심기 할 때 부른 노래는 여성들의 선소리꾼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농요의 경우 농경생활과 연결되어 있어 노동의 현장에서 가창될 것이 농업 생산양식의 변화로, ‘두레’노동이나 ‘품앗이’가 사라지고, 노래만 잔존하고 있다. 생업과 연결된 농요는 농경생활과 밀착되던 맥락에서 떠남으로서, 농민들의 의식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도시산업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변화이지만, 가락과 사실은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II. 모찌는 소리

모찌는 소리는 주로 부녀자들이 서로 품앗이를 하거나 논을 하여 모를 심을 경우 모내기할 모를 묘판에서 쪼낼 때, 모자리에 빙둘러 모를 찌면서 앉아 부르는 노래이다. 모를 찢 때는 세 수대야나 짚단으로 깔판을 만들어 깔고 앉아 깔판을 끌어당겨 메기고 받는 창법으로 교창하면서 모를 찢며 전진한다.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앞소리(메김소리)를 하면 모두가 후창, 즉 뒷소리(받음소리)를 한다. 앞소리꾼이 사실을 이어가지 못하면 뒷소리꾼의 어느 누가 받아서 부르기도 한다. 또 교창으로 두 패로 나누어 한 패가 앞소리를 부르면, 다른 한 패가 뒷소리를 받아부르기도 한다. 같은 소리의 사실이라도 그 마디마디에서 편바꿈을 하여 단조로운 권태성을 덜기도 한다.

모찌는 소리는 소리의 사실이나 가창방법, 등이 비슷하다.

1. 파산동 모찌는 소리

사실은 4음절 1구절 형식이며, 내용은 2구절씩 짝을 이루고 있다. 1음절은 4자로 구성되어 있다. 가창방법은 앞소리(메김)과 뒷소리(받음소리)가 편바꿈하면서 부른다. 보통 두패로

나누거나 앞소리꾼이 있어서 먼저 2구절을 부르면 앞소리의 사설에 이어 다른 2구절의 사설을 뒷소리로 한다. 첫 구절을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뒷소리의 사설이 정해진다.

〈소리의 사설〉

| | | | |
|------|------|-------|------|
| 들어내자 | 들어내자 | 이 모판을 | 들어내자 |
| 이여내자 | 이여내자 | 이 모판을 | 이여내자 |
| 잡아내자 | 잡아내자 | 저승처사 | 잡아내자 |
| 이여내자 | 이여내자 | 이만석을 | 이여내자 |

(1987년 조사, 앞소리: 김차석 여 69세, 뒷소리: 최은녀 여 79세, 김복수 여 71세, 김복수 여 70세, 신돌봉 여 78세)

2. 신당동 모찌는 소리

사설은 4음절 1구절 형식이고, 사설내용은 2구절씩 짝을 이루고 있다. 꼭 같은 가사를 편바꿈을 하여 반복하여 교창으로 하였다. 1음절을 4자 구성이다.

〈소리의 사설〉

| | | | |
|------|------|-------|------|
| 들어내세 | 들어내세 | 이 모판을 | 들어내세 |
| 여히내자 | 여히내자 | 이 모판을 | 여히내자 |
| 들어내자 | 들어내자 | 이 몰판을 | 들어내자 |
| 여히내자 | 여히내자 | 이 모판을 | 여히내자 |

(1987년 조사, 앞소리: 최석암 남 78세, 뒷소리: 전정목 남 78세 외 다수)

3. 갈산동 모찌는 소리

사설의 구성은 4음절 형식이며(4자구성), 앞소리, 뒷소리 형식으로 5구절로 되어 있다. 4구절은 앞소리와 뒷소리로 반복하다가 마지막 5번째 구절을 구별없이 합창한다. 첫째와 둘째 구절의 교창의 음조와 셋째와 넷째구절의 교창의 음조는 달리한다. 그래서 노래가 단조롭지는 않다. 1음절은 4자 구성이다. 마지막 5번째 구절은 합창한다.

〈소리의 사설〉

| | | | |
|------|------|--------|------|
| 들어내자 | 들어내자 | 이 모자리를 | 드러내자 |
| 이워내자 | 이워내자 | 이 모자리를 | 이워내자 |

| | |
|-----------|-------------|
| 드러내자 드러내자 | 이 모자리를 드러내자 |
| 저승처사 강림도령 | 이 모자리를 잡아가자 |
| 이승처사 이명수아 | 이 모자리를 드러내자 |

(1987년 조사, 앞소리:6이용길 남 53세, 뒷소리:이해오 남 55세, 서석재 남 55세 외 3명)

4. 대곡동 모찌는 소리

가창자 김송도는 대곡동 태생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는 성격이 차분한 편이며, 목소리가 처량한 것 같으면서 청량하다. 모찌는 노래 이외에 모내기, 논매기, 보리타작 노래 등의 농요를 기억하고 있다.

사설은 4음절 1구절 형식으로 사설의 내용을 2구절씩 짝을 이루고 있다. 1음절은 4자 구성이다. 가창방법은 교창을 주로 한다.

〈소리의 사설〉

| | |
|-----------|------------|
| 들어내자 들어내자 | 이 모판을 들어내자 |
| 휘어내자 휘어내자 | 이 모판을 휘어내자 |
| 밀어내자 밀어내자 | 이 모판을 밀어내자 |
| 휘어내자 휘어내자 | 이 모판을 휘어내자 |

(1987년 조사, 소리:김송도 남 62세)

5. 율하동 모찌는 소리

소리의 사설에서 "미랑당당 큰애비 호미손을 놀리라"하는 소리는 모찌기가 안됐으니 손가락을 밀구멍에 넣어서 파라는 뜻이며, "미랑당당, 대추남게 대추 많이 달렸다"는 말은 일심을 넣어서 하자는 뜻에서 노래가 나왔다 한다. 4음절 형식이며, 1음절이 3자 또는 4자로 구성되어 있다.

가창방법은 모를 쥘 때는 선소리하는 편과 뒷소리 편으로 나누어 교창으로 하나 조사에서는 1명이 선소리를 하고 뒷소리 하는 형식으로 채록하였다.

〈소리의 사설〉

| | |
|---------------|------------|
| (선소리) 능천아 호미야 | 호미손을 놀리라 |
| (뒷소리) 업치고 잡치고 | 모를잡아 밀치라 |
| 들어내자 들어내자 | 이 모판을 들어내자 |

| | | | |
|------|------|-------|------|
| 에와내자 | 에와내자 | 이 모판을 | 에와내자 |
| 미랑당당 | 큰애배 | 호미손을 | 놀려라 |
| 미랑당당 | 대추남게 | 대추 많이 | 달렸다 |

(1987년 조사, 선소리:이하상 남 79세, 뒷소리:진용수 남 67세, 손순칠 남 75세)

6. 울암동 모찌는 소리

사설의 형식은 4음절 1구절 형식으로 가사내용은 2구절씩 짝을 이루고 있다. 가창방법은 교창이다.

〈소리의 사설〉

| | | | |
|------|------|-------|------|
| 들어내자 | 들어내자 | 이 논뺨이 | 들어내자 |
| 호미같은 | 열손가락 | 만장같이 | 들어내자 |

(1987년 조사, 선소리:이태관 남 66세)

7. 관음동 모찌는 소리

사설의 구성은 4음절 1구절 형식으로 사설의 내용은 2구절 뿐이다. 1음절 3자를 기본 구성으로 한다. 가창방법은 모질때는 2구절의 사설을 반복하여 부른다고 한다.

〈소리의 사설〉

| | | | |
|-----|-----|-------|---------|
| 절우자 | 절우자 | 이 모판을 | 절우자 |
| 절우자 | 절우자 | 이 모야 | 창파를 절우세 |

(1987년 조사, 선소리:이태원 남 72세)

III. 모심기 소리

모심기할 때 부르는 소리는 일명 ‘모소리’라고도 한다. 여러명의 일꾼이 모심을 논에 늘어 서서 모를 심을 때 손을 맞추고 일의 능률을 올리며, 오랜 시간 동안 모심을 때 지겨움을 덜기 위하여 모소리를 부른다. ‘줄모’를 심을 때도 물론 모소리를 부르지만 옛날에 ‘별모’를 심을 때는 모소리를 부르면 작업의 속도가 일정해지고 손이 맞기 때문에 즐겨 모소리를 불렀다고 한다.

모소리의 소리의 사설은 남녀의 연정이나 남편에 대한 원망, 늙음에 대한 탄식, 신세타령의 내용이 많다. 전통사회 성원들의 감정과 욕구, 생활상 등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모노래는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침에 부르는 노래와 점심때 부르는 노래,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부르는 노래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1. 파산동 모소리

사설은 4음절 1구절 형식으로 1음절 4자 구성이 대부분이다. 가사내용은 2구절씩 짝을 이루고 있다. 사설에서 “이 물꼬, 저 물꼬”는 머슴이 불렀다고도 하고 마누라가 불렀다고도 전한다. 그 내용은 논에 나가 보니 농사일은 다 제쳐두고 첩의 방에 놀러 간 서방을 원망하면서 부른 노래이다. “서마지기 이 논빼미-”는 모심기를 해서 논을 가득 채워 정자처럼 만들고, 부모님 산소에 소나무를 가득 심어 정자같이 만든다는 의미의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다.

“풍당풍당 수제비를-”라는 노래는 점심 때 수제비를 끓이는데 아버지가 재를 치워주면서 불이 잘 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위에 오른 수제비국을 보니 자신에게는 국물만 있고 건데기는 없어서 속상하여 부른 노래라고 한다. 이 노래를 부르면 모심는 손이 빨라져서 일의 능률이 오른다고 한다. 매우 빠른 곡조이기 때문이다.

4음절의 한 구절을 선소리꾼이 노래부르면 그 다음의 구절을 뒷소리꾼이 받는다. 선소리든 독창도 하고 제창도 한다. 그러나 뒷소리는 제창하는 것이 보통이다. 노래의 단순함을 피하기 위해 한 노래가 끝나면 음조를 바꾸거나 장단과 가락에 변화를 주어 부른다.

〈노래의 사설〉

| | |
|-----------------|--------------|
| 절레꽃을 살끔 뒤치 | 이모버선 불을 걸자 |
| 이 버선 보고 임을 보니 | 버선을 주자 정이 없다 |
| 모시적삼 안섶 안에 | 분통같은 저 젖 보소 |
| 마이 보면 병날끼고 | 옆으로 살짝 보소 |
| 능청능청 저 비리 끝에 | 무정하다 저 오빠야 |
| 나두 죽어 후승 가서 | 낭군님부터 섬길라요 |
| 상추야 산골에 흐르는 물에 | 상추 씻는 저 큰아가 |
| 잎이랑 훑어서 광주리에 담고 | 줄기 한상 나를 줄세 |
| 당신이 날 언제 봤다고 | 상추 속을 달라카요 |

서울이야 남정 정에
 찹쌀 닷말 멍쌀 닷말
 방긔방긔 웃는 애기

수건수건 반디수건
 수건 띠가 떨어지면

서울이라 유다락에
 그 알 한 개 나를 주면

해가 지고 저문 날에
 이태백이 본처 죽어

사래지고 강처분발
 너의 집이랑 어디 가고

초롱초롱 청사초롱
 임도 눕고 나도 눕고

밀양 삼단 궁모 늪에
 연밥 줄밥 다판다나

이 물꼬 더 물꼬 다 헐어놓고
 문에야 대전복 손에 들고

서마지기 이 논뻘미
 니가 무신 반달이고

서마지기 이 논뻘미
 우리야 부모님 산소등에

알곰 삼삼 고분 처녀
 오메 가메 빛만 비고

머리 좋고 키 큰처녀
 오메 가며 빛만 비고

점심참이 늦어오네
 인이라꼬 더디오네
 젓준다꼬 더디 오다요

이 수건 띠가 떨어지나
 인정조차 떨어지나

금비둘기 알을 낳네
 금년 과거 내가 하지

웬놈의 행상이 떠나가노
 그의 행상이 떠나가네

목화밭에 저 큰아가
 해가 저도 아니 가네

임 방에 불 밝히라
 초롱불을 누가 끄리

연밥 따는 저 큰아가
 원순이는 끊지마라

주인네 양반 어디로 갔소
 첩의 방에 놀러갔소

반달같이도 떠나갔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모를 심어 정자로다
 소를 심어 정자로다

올맹당 고개로 넘어간다
 대장부 간장 다 녹이네

올맹당 왔다간다
 대장부 간장 다 녹이네

| | |
|----------------|--------------|
| 해는 지고 저물어가고 | 고을고을마다 연기나게 |
| 오란님은 어디 가고 | 연개넬 줄 모르느냐 |
| 서울 갔던 선보들아 | 우리 선보 안오더나 |
| 오거시 오지마는 | 칠성판에 실려오요 |
| 풍당풍당 수제비를 | 사우 상에 다 올랐네 |
| 권 양반 재치고 | 멀국 마시니 쉼네 |
| 이 놈의 할마이 이디 가고 | 딸을 동제시켰노 |
| 해가 지고 저문 날에 | 어린 처자 울며간다 |
| 어린 동동 앞세우고 | 잘 데 없이 울며간다. |

(1987년 조사, 앞소리: 김차석 여 69세, 김분순 여 70세, 뒷소리: 최은녀 여, 79세, 김복수 여 71세, 신돌봉 여 78세)

2. 신당동 모소리

사설은 한 귀절을 구성하며, 각각 2구절이다. 1음절은 4자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5자 또는 6자가 되기도 한다. 앞소리는 독창이 보통이고 뒷소리는 제창이 보통이다. 앞소리를 제창할 때도 있다고 한다.

〈소리의 사설〉

○ 점심 때 부르는 노래

| | |
|-------------|-----------|
| 서울이라 나무정자 | 점심창이 늦어지네 |
| 참쌀 닷말 맵쌀 닷말 | 점심창이 늦어가세 |

○ 저녁 때 부르는 노래

| | |
|--------------|------------|
| 서마지기 이 논빼미 | 반달같이 떠나가네 |
| 지가 무슨 반달이고 | 초생달이 반달이지 |
| 호랑이 부채야 청사도포 | 꽃을 보고 지나간다 |
| 꽃을 꽃아 서러마라 | 명년 3월 돌아온다 |
| 서울이라 키 큰 처녀 | 울퍽남피 앓아 우네 |
| 연밥 줄밥 내 따주께 | 시간살이 나카 하세 |

| | |
|-------------|------------|
| 해다지고 저문 날에 | 골골마다 연기나네 |
| 나를 두고 어디 가노 | 저녁할 줄 모르는고 |

| | |
|-------------|-------------|
| 해다 지고 저문 날에 | 울명 가는 저 처녀야 |
| 너거야 집은 어디인고 | 해당 까려 우행 가노 |

(1987년 조사, 앞소리: 최석암 남 78세, 뒷소리: 전정목 남 78세 외 다수)

3. 갈산동 모소리

사설은 4자가 1음절로 구성된 형식의 가사이다. 노래가 4음절 형식으로 구성되어 한 구절을 이루고 있다. 원래는 앞소리와 뒷소리로 나누고 교창으로 한다.

〈소리의 사설〉

| | |
|----------------|---------------|
| 능청능청 저 비리끝에 | 무정하다 저 오라비 |
| 난도 죽어 저승가서 | 낭군한번 섬겨볼래 |
| 서마지기 이 논빼미 | 모를 숨겨 정자로다 |
| 니가 무슨 반달이고 | 초생달이 반달이지 |
| 상주함창 공갈못에 | 연밥따는 저 큰아가 |
| 연밥줄밥 다 따다나 | 원순이나 따지마라 |
| 해는 지고 다 저문 날에 | 어이 골골마다 연기나네 |
| 우리야 부모님 이다가고 | 어이 연기낼줄 모르는고 |
| 서마지기 이 논빼미 | 어이 모를 심어 정자룰세 |
| 우리야 부모님 산소덤에 | 어이 술을 심어 정자로다 |
| 우리야 부모님 병환이 들어 | 어이 순금씨야 배깁어라 |
| 순금실적 깎은 배는 | 어이 맛도 좋고 연할소나 |
| 능청능청 저 버들끝에 | 무정하다 올 오라바이 |
| 나도 죽어 후성가서 | 낭군부터 섬길라네 |

| | |
|----------------|---------------|
| 서울이라 금다락에 | 금비들개 알을 낳아 |
| 그 알 하나 나를 주마 | 금년과게 내가 하지 |
| 밀양 삼당 공노숲에 | 연밥 따는 저 처녀야 |
| 연밥줄밥 내따주마 | 시간살이 나랑하자 |
| 머리 좋고 키 큰 처녀 | 울뽕남게 앓아우네 |
| 울뽕줄뽕 내 따주마 | 우리 부모 섬겨주소 |
| 상주 산골 흐른 물에 | 배추씻는 저 처녀야 |
| 겉에 겉잎 다 제쳐놓고 | 속에 속내를 나를 주소 |
| 모시적삼 안섶 안에 | 분통같은 저 젖 보소 |
| 오며가며 빗만 뵈고 | 대장부 간장을 다 녹인다 |
| 한번 보고 두번 보고 | 볼 때마다 정들래라 |
| 물꼬는 어정청 다 헐어놓고 | 주인내 양반은 어딴 갔소 |
| 문어야 대전복 손에 들고 | 첩의 방으로 놀러 갔네 |
| 해는 지고 다 저문 날에 | 우연한 처녀가 울며 가네 |
| 어린 동생 앞세우고 | 잘 때 없이 울며가네 |
| 모야모야 노란모야 | 니 언제 커서 열매 여노 |
| 한살 먹고 두살 먹고 | 세살 먹어 열매 열지 |

(1987년 조사, 앞소리: 이용길 남 53세, 뒷소리: 서석재 남 55세, 이해오 남 55세 외 다수)

4. 가무내마을 모소리

일반적으로 4자가 1음절이 되어 한 구절이 4음절이다. 총 2구절의 8음절로 구성되었다. 원래는 앞소리(이 마을에서는 맥이는 소리라고 한다)와 뒷소리(들청소리라고 한다)로 나누어 교창한다.

〈소리의 사설〉

| | |
|-------------|------------|
| 서울이라 공갈못에 | 떠댕기는 금붕어야 |
| 붕어 잡아 뒤에 놓고 | 춘아 풍아 술부어라 |

| | |
|------------------|-------------|
| 이 물고 저 물고 다 헐어놓고 | 집에 양반 어디 갔노 |
| 네거야 대장부 손에 들고 | 첩에야 방에 눌러앉네 |
| 능청능처 저 버들 끝에 | 무정하다 우리 오라배 |
| 나도 죽어 후성가면 | 남편부터 심길란다 |
| 서마지기 저 논빼미 | 반달같이 떠나가네 |
| 니가 무슨 반달이고 | 초생달이 반달이지 |
| 애기야 도련님 병환들어 | 숨거실어 백합 가라 |
| 숨근 실어 깎은 배는 | 맛도 좋고 애날래라 |
| 짜구짜구야 이끼마라 | 죽은 남괴물이 나라 |
| 아가야 아가야 늙지마라 | 죽으지면 저지나라 |
| 해다졌네 해다졌네 | 영성들에 해다졌네 |
| 비물었네 비물었네 | 영성들에 비물었네 |
| 그 비가 비 아니라 | 원한이사 핏물이라 |
| 하늘이라 옥황선녀 | 구름을 타고 희롱하네 |
| 동해바다 뱃사공은 | 배를 타고 희롱하네 |
| 비 올었네 비 물었네 | 성학산에 비 물었네 |
| 우의 들고 마중 가니 | 구중 처자가 설피우네 |
| 서마지기 이 논빼미 | 모를 심어 정자로다 |
| 우리야 부모님 상사땅에 | 쌀을 심고 정자로다 |

(1987년 조사, 선소리 : 최규호 남 54세)

5. 대곡동 모내기 소리

오전, 점심, 오후에 부르는 사설이 다르며 4음절이 1구절 형식이다. 1음절은 4자가 기본적

이고 5·6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창과 후장이 교창으로 한다.

〈소리의 사설〉

○ 오전에 부르는 소리

| | |
|----------------|---------------|
| 능청능청 저 버들 끝에 | 무정하다 울 올배야 |
| 난도 죽어 후생 가서 | 낭군님부터 섬길라네 |
| 서마지기 이 논뼤미 | 반달같이 더나간다 |
| 니가 무슨 반달이고 | 초승달이 반달이지 |
| 서마지기 이 논뼤미 | 장잎이 피서 성할레라 |
| 우리의 부모님 선산땅에 | 술을 숨겨서 정자로다 |
| 알골 삼삼 나분쳐녀 | 원망산 고개 넘나든다 |
| 오미 가미 빈맛비고 | 대장부 간장 다 늙히네 |
| 모야 모야 노랑모야 | 니 언제 커서 열매 맺래 |
| 이달 크고 훗달 크고 | 칠팔월에 열매 맺지 |
| 진주 달성 안사랑에 | 바둑 두는 저 남손아 |
| 여중일색 늙어두고 | 남중호걸 나를 줌세 |
| 밀양삼당 궁노숲에 | 연밥파는 저 처녀야 |
| 연밥 줄밥 내 따주께 | 세간살이 나캉살자 |
| 애기여 도련님 영혼에 들어 | 순금씨야 배 깎아와 |
| 순금씨야 깎은 배는 | 맛도 좋고 연할소냐 |

○ 점심 때 부르는 소리

| | |
|-------------|------------|
| 서울이라 남정자에 | 점심참이 늦어진다 |
| 참쌀 닷말 밍쌀 닷말 | 해오느라고 더디오네 |

○ 오후에 부르는 소리

해다지고 저문날에
이태백이 본처 죽어

우여느의 행상 떠나가노
이물 행상이 떠나가네

해다졌네 해다졌네
방긔방긔 웃는 애기
앵두리마 해다졌네

양산땅에 해다졌네
못다 보고서 해다졌네
업은 애기 동제갔네

(1987년 조사, 선소리: 박해술 남 77세, 뒷소리: 김송도 남 62세)

6. 상인동 모내기 소리

사설은 4음절 1구절 형식이다. 선소리와 뒷소리가 교창한다.

〈소리의 사설〉

능청 능청 저 비루 끝에
난도 죽어서 후세상 가서

무정하다 올 오라바이
낭군부터 섬길래라

해다지고 저문 날에
우리 님은 어데 가고

꿀꿀마다 연기난다
연기넬줄 모르더냐

서마지기 이 논빼기
지가 무슨 반달이라고

반달같이 남았구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이 물고 저 물고 다 헐어놓고
문어야 대전복 양손에 들고

권네 양반 어데갔노
첩의 방에 놀러갔다

머리 좋다 시낭처자
울뽕줄뽕 내파주마

울뽕 위에 앉아 우네
시집살이 내캉살자

밀양삼당 국로숲에
연밥줄밥 내파주마

연밥따는 저 큰애야
시집살이 내캉살자

(1987년 조사, 선소리: 정도리 남 75세)

7. 평광동 모심기 소리

모를 심을 때 한 명이 앞소리를 하고 서고 뒤에 뒷소리 사람들이 모를 심으면서 뒷소리를 한다. 이때 인원은 보통 15명 혹은 많을 때 30명 이상이 품앗이를 하면서 모를 심는다. 사실은 4음절이 1구절인데 대부분 1음절이 4자로 구성되어 있다.

〈소리의 사실〉

이 물꼬 저 물꼬 다 헐어나 놓고 권네 양반 어데갔노
무내야 대장부 손에 들고 임으방에 놀러갔네

첩의 집은 꽃밭이요 이네집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춘추이요 연못 금붕어는 사철이라

이 논빼미 서마지기 반달같이도 떠나가네
초승달이 반달이지 그건 무신 반달이나

이 논빼미 서마지기 모를 숨아 정자로다
우리야 부모님 산소등에 술을 숨아 정자로세

능청능청 비랑끝에 무정하구나 우리 오빠
나도 죽어서 후세상 가여 낭군님부터 심길라요

참쌀닷말 맵쌀닷말 이니라고 늦어가네
방긋방긋 우는 아기 젖준다고 늦어가네

배가 고파 지은 밥이 미도 많고 돌도 많다
돌 많고 미 많은 것은 임이 없는 탓이로세

(1987년 조사, 선소리:송문창(남, 56세))

Ⅳ. 논매기 소리

논매기는 아시논매기와 두벌논매기, 세벌논매기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논을 매기도 하

고 여러명이 품앗이나 두레, 혹은 뉘을 하여 논을 매기도 한다.

논매기노래는 여러명이 논을 땀 때 즐겨 부른다. 한 여름의 내려쬐는 햇빛을 받으며 밀짚 모자를 쓰고 등에는 나뭇가지를 달아 햇빛을 가리며 논을 맨다. 피곤함과 지겨움 속에서 가창력 있는 사람의 매김소리에 뒷소리를 받으며 일손을 맞춘다.

특히 세벌논매기를 할 때는 “그저 구정물만 난다”고 할 정도로 벼 포기 사이를 두 손으로 더듬으로 빠른 속도로 논을 매며 노래를 한다. 이때는 여러가지의 장난도 뒤따른다. 한 필지의 논을 다 매고 다른 논으로 이동할 때는 손에 잡고 있던 풀주먹을 다른 사람의 등허리에 던지고, 논두렁에서 엎돌기도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풍장을 울리며 다른 논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모내기 노래는 모두 앞에서 선소리꾼이 백이고 뒤에서 받는 형식이다.

1. 파산동 논매기소리

매기는 소리는 일정하지 않고 매김소리꾼의 창작으로 그때 그때 口演된다. 받는 소리는 “에이요--오-헤--야--”로 한정한다. 노래말의 자와 행의 구성도 매김소리꾼의 창작에 따라 서사형으로 구성된다. 받는 소리는 매기는 소리가 끝나고 들어가지만 매기는 소리는 받는 소리가 끝나기 전에 들어가 “야-하-아-등”의 걸말을 칸 후에 본격적으로 매긴다. 그래서 소리가 부드럽게 지속되는 느낌을 준다.

〈소리의 사설〉

| | |
|----------------|-----------------|
| 에이요-- 오헤야- 아-- | 아- 술도 있고 밥도 있고- |
| 에이요-- 오헤야 | 오늘 해도 다지는데 |
| 얼른 매고 잠을 자자 | 에이요- 오헤야 |

(1987년 조사, 매김소리: 이기태 남 51세, 받는소리: 정삼식 남 72세, 김휴탁 남 56세, 김성록 남 60세, 외 다수)

2. 갈산동 논매기소리

매김구절의 본문은 2음절로 1음절은 4자 구성이 대부분이다. 노래말에 굴림음이 들어가는 자의 구성은 정확하지 않다. 받음구는 “오--헤이-야하아”이다. 처음에는 “워-이--, 워-이--, 오--헤이--야하아”하는 소리를 매김소리꾼이 매기고 받는소리꾼이 “오--헤이--야하아”하는 소리로 받는다. 받는 소리가 끝나고 매기는 소리가 들어가기로 하지만 받는

소리 끝나기 전에 메김소리꾼이 받는소리의 끝음을 간 후에 메김소리를 메김으로써 노래말과 리듬이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구성을 보이기도 한다.

〈소리의 사설〉

| | |
|------------|------------|
| 위이－해야 | 짓고 짓고 살았더니 |
| 기억자를 집을 짓고 | 가히없는 이네몸이 |
| 가가하고 겨격하니 | 나나하고 너너하니 |

(1987년 조사, 메김소리: 이용길 남 53세, 받는소리: 서석재 남 55세, 이해오 남 55세)

3. 신당동 논매기소리

받는소리는 “어－히이요－－오－호－－에－－야－－”이다. 메김소리의 본문은 서사체의 사설이다. 가사는 옛날 어른들이 하던 것을 기억하여 소리하기도 하지만 창작하여 부른다고 한다. 받음구에 이어 메김소리의 걸음에 따라서 노래의 사설과 리듬이 끊어지지 않는다.

〈소리의 사설〉

| | |
|------------|-------------|
| 어히요 오호해야…… | 해가는 지장들아 |
| 어히요 오호해야…… | 한번 일지 하여 주오 |
| 어히요 오호해야…… | 서른서이 역군들아 |
| 이네말을 들어보소 | 어히요 오호해야 |
| 해가는 지장들아 | 한 재죽도 빠짐없이 |
| 어히요 오호해야…… | 해가는 지장처사 |
| 한번 일치 하여주소 | 어히요 오호해야…… |

(1987년 조사, 메김소리: 전정목 남 78세, 받는소리: 최석암 남 78세 외)

4. 가무내마을 논매기소리

받음구는 “아－호－－－오, 어히이－요－－오”다. 메김소리는 일정한 문구가 없다고 한다.

〈소리의 사설〉

| | |
|---------------|-------------|
| 아호－－호 어해이요－－오 | 사방난다 돌러 사방 |
| 아호－－오 어해이요－－오 | 우리 부모 나 키워서 |

아호—오 어해이요—오 청국장을 따다아 삼아서
(1987년 조사, 선소리: 최규호 남 51세)

5. 대곡동 논매기소리

매기는 소리는 일정하지 않으나 4음절 형식으로 되어 있다. 1음절은 5자 구성이 많다. 받는 소리는 “오호 헤이야”이다.

〈소리의 사설〉

(합 창) 위—요호 오호—헤이야

(선소리) 잘도 한다 썩 잘도 한다

(뒷소리) 위—요호 오호—헤이야

올려 가자 빨리가자

위—요호 오호—헤이야

시월아 네월아 가지를 말어

” ”

아까운 청춘 다 늙는다

” ”

내몸 하나만 가지마소

” ”

잘도 한다 썩 잘도 한다

” ”

참은 죽어 해도지요

” ”

목포노지가 행화초라

” ”

산지조종은 곤륜산인데

” ”

수지근본은 황해수라

” ”

삼년경천 투바데 뜰에

” ”

경피혼난 저마를에

” ”

난노랑고 가든이하

” ”

(1987년 조사, 선소리: 박해술 남 77세)

6. 평광동 논매기소리

3벌 논맬 때 한다. 선소리꾼이 뒤에서 사설을 엮어 나가면 앞에서 논매기하는 사람들이 뒷소리로 “—이오호호—이오호야”의 후렴을 한다. 논을 다 매고 끝에 조금 남아 있으면 사람들은 원을 만들어 ”우아 전례”하면서 전례를 한 후 목나팔을 불고, ‘칭칭이’를 하면서 논두렁으로 나온다. 큰머슴은 버드나무가지를 머리에 쓰고 소를 탄다. 일꾼들이 계속 칭칭이를 하면

서 주인집에 들어간 후 마당에서 논매는 흥내를 내기도 한다. 이어서 판굿으로 한바탕 논다. 사설은 대체로 4음절씩 되어 있다.

논맬 때 소리와 집으로 돌아갈 때의 ‘칭칭이’는 메기고 받는다. 논맬 때의 받는 소리는 ‘이-후후야 이-이-’형식이고 칭칭이는 ‘꽤지나칭칭나네’이다. 전례는 합창 형식이다.

〈소리의 사설〉

○ 논맬 때

| | |
|------------|---------------|
| 이오-오호호야 | 이-후후야 이-이- |
| 가자가자 청산가자 | 청산나비여 너도 가자 |
| -이오오호- | 무정세월을 다 버리고 |
| 허송세월 같이 오니 | 이오 이오 이오- 이오와 |
| 간다간다 나는 가네 | 이오 오호호야 |

○ 전례

얼씨구나 우아 전례 우아- 절씨구 우아 전례 우아- 잘도 한다

○ 칭칭이

| | |
|--------------|---------|
| 칭칭나네 | 꽤지나칭칭나네 |
| 얼씨구나 절씨구나 | 꽤지나칭칭나네 |
| 지화사 좋을씨구 | 꽤지나칭칭나네 |
| 무정한 세월아 가지마라 | 꽤지나칭칭나네 |
| 아까운 청춘 다 늙는다 | 꽤지나칭칭나네 |
| 우리 농부 생각하니 | 꽤지나칭칭나네 |
| 피눈물이 너무 많아 | 꽤지나칭칭나네 |
| 하느님의 은덕으로 | 꽤지나칭칭나네 |
| 우리야 농민들 | 꽤지나칭칭나네 |

(1987년 조사, 선소리:송문창 남 56세, 뒷소리:손인갑 남 63세)

7. 율하동 논매기소리

논맬 때 뿐만 아니라 타작할 때도 이 노래를 부르며 율하마을에서는 ‘오혜야’라고 한다. 맥

이고 받으며 메김소리는 1음절씩이다. 받음구는 ‘오혜야’이다.

〈소리의 사설〉

| | |
|-----------|----------|
| 오혜야 오혜야 | 오혜소리 오혜야 |
| 잘도 한다 오혜야 | 신농씨에 오혜야 |
| 별을 받아 오혜야 | 후생들이 오혜야 |
| 짹을 지어 오혜야 | 유월절적 오혜야 |
| 쌓인 재물 오혜야 | 나라님을 오혜야 |
| 상고하고 오혜야 | 선조님에 오혜야 |
| 한상에 오혜야 | |

(1987년 조사, 선소리: 이하상 남 79세)

8. 관음동 논매기소리

메김구가 보통 2음절형식이나 이태원의 선소리는 긴 사설의 형식으로 일정한 음보를 갖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가창방법은 메기고 받는다. 받는소리는 ‘우-야 해해-’이다. 선소리가 뒤에 서서 북을 치면서 앞소리를 한다. 앞소리가 딱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뒷소리가 나온다.

〈소리의 사설〉

(북치면서) 아-호-이-이오-
(앞 소 리) 바람 광풍아 부지마라 순풍낙엽 떨어진다.
(뒷 소 리) 우-안 에헤-
(앞 소 리) 아-호-이-에헤이오- 오호 에-에-헤-
(뒷 소 리) 우-야 해해
(앞 소 리) 시월(세월)아 가지마라 알던 청춘 다 늙는다.
(뒷 소 리) 우-야 해해

(1987년 조사, 선소리 : 이태원 남 72세)

V. 보리베기 소리

보리베기 소리는 보리를 베는 시기인 5·6월에 부른다. 보리베기는 다른 농작업과 달리 개

별노동에 의존하여 노동을 하는데 행동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장단도 느린 편이며 주로 독창으로 부른다고 한다. 다른 일꾼들은 그저 흥을 돋구어 주는 "좋다"라는 말로 응수를 할 뿐이다.

보리베기 노래는 노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나 노동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의식을 나타내는 구절로서 즉흥적일 수도 있고 전승적일 수도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월배3동 대곡마을에서만 채록된 자료가 보인다.

1. 대곡동 보리베기소리

〈소리의 사설〉

이— 허리아파 못하겠네 못하겠네 못하겠네
영감아 영감아 이 개떡 잡소
서마지 술에 개떡 잡소

(1987년 조사, 선소리: 김송도 남 62세)

VI. 타작소리

보리를 깔아 놓고 보리이삭을 터는 작업 때 부르던 노래이다. 보통 보리타작에는 ‘도리깨’라는 농기구가 사용되는데 소리없이 도리깨를 내려치면 일손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로 하기조차 하다. 이때 여러 명의 타작꾼 중에서 힘이 좋고 도리깨질을 잘 하는 목도리깨가 보리이삭을 두드리고 빠져서 옆으면서 선도해 가고 종도리깨꾼이 엮어진 보리이삭을 두드리면 작업능률이 좋아진다.

목도리깨꾼이 타작노래를 메기면 종도리깨꾼이 받는소리를 낸다. 맞아 떨어지고 노래가 흥겨워 지겨움을 잊게 된다는 경험자들의 이야기이다.

1. 파산동 타작소리

받음구는 “때리라”이다. 메김소리는 “어— 넘어간다”, “요놈의 보리”, “중놈의 보리” 등 그때마다 신과 흥에 따라 창작한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메김소리로 “때리라” 하면 받는 소리도 “때리라”이다. 반복하다가 메김소리의 본문에 들어간다. 결국 메기고 받는 형식의 노래가 된다. 타작을 하다가 보리이삭의 몽치가 크거나 이삭이 잘 털리지 않으면 빠른 곡조로

“때리라”하는 소리를 주고 받는다.

〈소리의 사설〉

때리라 어— 넘어간다 익! 익!

때리라 어— 넘어간다 익! 익!

때리라 어— 또 넘어간다

(1987년 조사, 메기는 소리:정삼식 남 72세, 받는 소리:김상진 남 65세)

2. 대곡동 보리타작소리

선소리꾼이 메기는 소리는 1음절씩 되어 있다. 가창방법은 메기고 받는다. 받는 소리는 ‘엿해야’이다.

〈소리의 사설〉

| | | | |
|---------|-----|---------|---|
| 엿해야 | 엿해야 | 해야소리 | ” |
| 잘도한다 | ” | 요노무 보리가 | ” |
| 해동해 보린가 | ” | 불긋불긋 | ” |
| 조노무 보리가 | ” | 몽실몽실 | ” |
| 해야소리 | ” | 넘어간다 | ” |
| 꿀대밀에 | ” | 때려주소 | ” |
| 잘도한다 | ” | 기산영수 | ” |
| 맑은 물은 | ” | 소부현주 | ” |
| 숫아있고 | ” | 당나라 | ” |
| 양귀비는 | ” | 죽어지니 | ” |
| 허사로다 | ” | 진나라 | ” |
| 진시황도 | ” | 죽어지니 | ” |
| 허사로다 | ” | 천하장사 | ” |
| 초패왕도 | ” | 죽어지면 | ” |
| 소용없고 | ” | 백만장자 | ” |
| 석승이도 | ” | 죽어지면 | ” |

| | | | |
|-------|---|-------|---|
| 허사로다 | " | 명산대천 | " |
| 들곳난곳 | " | 백리남은 | " |
| 팔시말고 | " | 꿀대밑에 | " |
| 때리주소 | " | 간다간다 | " |
| 어서가자 | " | 이수건네 | " |
| 백노가자 | " | 백노행은 | " |
| 함께가세 | " | 죽장 짚고 | " |
| 만귀실어 | " | 천리강산 | " |
| 들어갈 때 | " | 폭포도 | " |
| 좋다마는 | " | 여산경치 | " |
| 여기로다 | " | 해야해야 | " |
| 엥해야 | " | 잘도 한다 | " |
| 파우산천 | " | 둘러봐도 | " |
| 그 산경계 | " | 여기로다 | " |
| 허허허허 | " | 잘도 한다 | " |
| 강산경기 | " | 타고났네 | " |
| 강산정기 | " | 타고났네 | " |
| 이 세상에 | " | 낯는 사람 | " |
| 뉘 덕으로 | " | 낯단말가 | " |
| 석가여래 | " | 공덕으로 | " |
| 아버님전 | " | 뼈를 빌고 | " |
| 어머님전 | " | 살을 빌어 | " |
| 칠성님전 | " | 명을 빌고 | " |
| 제석님전 | " | 복을 빌어 | " |
| 우리 인생 | " | 탄생하니 | " |
| 한두살에 | " | 철을 몰라 | " |
| 부모은공 | " | 알손가 | " |
| 이삼십이 | " | 다지내도 | " |
| 부모은공 | " | 못다갚고 | " |
| 의미없고 | " | 애닦구나 | " |

절통하다 " 통분하다 "
허허허허 " "

(1987년 조사, 전소리: 박해술 남 77세, 뒷소리: 김송도 남 62세)

3. 평광동 옹헤야 소리

평광동은 타작노래를 ‘옹헤야’라고 한다. 메김소리도 1음절형식이다. 메기고 받는다. 받는 소리는 ‘옹헤야’이다.

〈소리의 사설〉

| | | | |
|---------|-----|---------|-----|
| 헤야헤야 | 옹헤야 | 여기보소 | 옹헤야 |
| 동해동산 | " | 돋는 해느 | " |
| 서이 서산 | " | 넘어간다 | " |
| 헤야헤야 | " | 얼씨구나 | " |
| 잘도가네 | " | 골찌밑에 | " |
| 저 비리보소 | " | 뭉창뭉창 | " |
| 떠리나주소 | " | 헤야헤야 | " |
| 어이얼시 | " | 개구리 벌이가 | " |
| 시염도 지나 | " | 양반에 머리강 | " |
| 몽실몽실 | " | 짐도 없네 | " |
| 헤야헤야 | " | 지수씨도 | " |
| 내손만 바래고 | " | 형수씨도 | " |
| 내손만 바래네 | " | 아이구 | " |
| 내손 바래 | " | 내 못살겠네 | " |

(1987년 조사, 전소리: 송문창 남 56세)

4. 울암동 보리타작소리

메김구가 4자, 5자, 6자 등이고, 받는소리는 ‘옹헤야’이다.

〈소리의 사설〉

| | | | |
|-----|-----|-----|-----|
| 옹헤야 | 옹헤야 | 때리도 | 옹헤야 |
|-----|-----|-----|-----|

| | | | |
|---------|---|---------|---|
| 요놈의 보리가 | " | 개구리보린가 | " |
| 풀썩썩썩 | " | 뛰기도 한다 | " |
| 이놈의 보리는 | " | 양반의 보린가 | " |
| 수염도 길다 | " | 어허어허 | " |

(1987년 조사, 선소리:이태관 남 66세)

5. 관음동 타작소리

사의 사설은 일년 12달을 노래하는 것이나 제보자는 젊을 때 하던 것을 잊어버리고 일부만 기억하고 있었다. 메기는 소리는 2음절 형식이다. 관음마을의 타작노래는 받는 소리인 웅혜야 소리가 다른 마을과 달리 ‘오-흥혜야’로 부르는 특징적인 가락을 갖고 있다.

〈소리의 사설〉

| 오-흥혜야 | 오-흥혜야 | 오-흥혜야 | 오-흥혜야 |
|-----------|-------|-----------|-------|
| 잘도한다 | " | 정월이라 십오일에 | " |
| 망월하는 소현들아 | " | 훈풍도 | " |
| 보련이와 | " | 부모봉양 | " |
| 생각하라 | " | 신체발부 | " |
| 사계절은 | " | 부모님께 | " |
| 태어나니 | " | 태산같이 | " |
| 깊은 냇과 | " | 하해같이 | " |
| 깊은 정을 | " | 어이하야 | " |
| 잊어리요 | " | 천만시를 | " |
| 믿었더니 | " | 봉래산에 | " |
| 불사약과 | " | 불로초를 | " |

(1987년 조사, 앞소리:이태원 남 74세, 뒷소리:최종택 남 72세 외)

VII. 어사용

어사용은 ‘나무꾼노래’, 혹은 ‘들노래’라고도 한다. 일꾼들이 산이나 들에 나가서 나무를 하

거나 풀을 베거나 쉬면서, 혹은 일을 끝내고 내려오면서 지게작대기로 지게목발을 두드려 장단을 맞추며 부르는 노래다.

노래의 가사는 긴 서사시 형태가 많다. 불행한 처지에 있는 여인이나 홀애비의 가련한 생활상이나 감정을 해학을 섞어서 엮어나간다.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슬픔을 느끼도록 하는 신세타령조의 노래로 볼 수 있겠다.

1. 파산동 들노래

노래말은 일정한 형식이 없이 서사시 형태의 가사이다. 한 구절이 끝나고 다음 구절이 시작될 때는 흐느끼듯 “어-이-”라는 걸음이 깔려서 애절하고 가련한 느낌을 더해준다. 제보자 설명에 따르면, 이 마을에 사는 어떤 홀애비가 들에 나가 벼단을 지게에 가득 실어놓고 쉬면서 신세타령조로 불렀던 노래라고 한다. 그것을 주변에서 듣고 옮김으로써 전승된 것이라고 하였다. 가창방법은 독창이다. 말하듯이 촘촘한 리듬이 특징이며, 자유리듬이다. 한 구절이 끝나면 길게 빼서 다음 구절을 잇는다.

〈소리의 사설〉

| | |
|---------------|---------------------|
| 할마이야 할마이야 | 우리 할마이야 |
| 오곡잡곡 다해놓고 | 우리 할마이 어디 갔노 |
| 어이- 할마이야 | 오곡잡곡 다해놓고 |
| 죽어지니 그뿐이네 | 어이- 북평으로 날아가는 갈가마귀야 |
| 우리 할마이한테 가거들랑 | 말 한마디 전해도고 우- 어이야 |
| 아- 가마귀야 | 동네 얼싸 어디 두고 어후야- |
| 어미 팔아 친구사고 | 애비 팔아 여자사고-- |

(1987년 조사, 전소리:김차석 여 69세)

2. 갈산동 어산용

어산용은 서사시 형태의 가사이다. 중간 중간에 “우-----후우우-”하는 한숨 섞인 가사가 들어간다. 전체 가사의 내용은 과부의 신세를 표현하는 것이다. 가사의 내용은 죽은 영감을 생각하며 신세타령하는 것이 해학적이다. 가창방법은 독창이다. 자유리듬으로 마디마디 음을 자유롭게 깔아서 다양한 변화를 준다. 구절마다 끝에 다양한 굴림음을 사용하여 애절한

느낌을 준다.

〈소리의 사설〉

| | |
|--------------|----------------|
| 지리산천 | 갈가마구야 |
| 우리 영감아 | 메뚜기 뒷다리에 |
| 채어죽은 우리 영감아 | 한쪽다리 곰배영감 |
| 열아홉살 먹은 과부가 | 스물아홉살 먹은 딸을 잃고 |
| 금강산 머리 돌아가다가 | 슬피 울고 또 슬피 운다. |

(1987년 조사, 선소리:이용길 남 53세)

3. 가무내마을 나무꾼소리

가사의 내용은 일정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신세타령의 내용으로 창작한다고 한다. 가창방법은 독창이나 높은 음으로 시작하여 말하듯 촘촘한 리듬을 사용한다. 구절의 끝에는 “이——야——”하는 걸음을 깎는다. 그리고 중간이나 마칠 때는 “히—후———”하고 외친다.

〈소리의 사설〉

산천초목 늪지말고
 이팔청춘 다보내네—— 이—이—야——
 지리산천 갈가마구야
 배떠난데 왜들 왔노 히후후———

(1987년 조사, 선소리:최규호 남 54세)

4. 대곡동 어사용

신세타령조의 사설이고, 지계목발 장단에 맞춰 독창을 한다.

〈소리의 사설〉

어——
 열아홉살 먹은 과부가 스물아홉살 묵은 딸을 잃고
 금강산 엇바람이 떠나가다가 오줌이 누려워서

| | |
|----------|-----------------|
| 숫새피가 사이에 | 오줌을 누다가 |
| 거개를 찢렸다 | 아파도 울고 |
| 슬퍼도 울고 | 어데로 가고 니딸 내 봉덕아 |

| | |
|-----------------|---------------|
| 지리산 갈가마구야 | 니 얼굴 검다고 한탄마라 |
| 겉이 꺼머서 가마구지 | 속속들이 검을소냐 |
| 죽은나무 철가지에 | 두줄속에 목을 옹고 |
| 백팔염주 목에 걸고 | 곧태산을 넘자니 |
| 없던 시매(시름) 절로 난다 | |

| | |
|---------|----------|
| 이이-- | |
| 오르만 내르막 | 잔나 지침소리- |
| 우리 농부- | 지침소리- |
| 왜 호호호- | |

(1987년 조사, 선소리: 박해술 남 77세)

5. 평광동 나무꾼소리

사설은 4음절 형식으로 1음절이 대부분 4자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신세타령을 하는 것이다. 독창이므로 처량하게 부른것이 특징이다.

〈소리의 사설〉

| | |
|---------------|------------------|
| 어- 어- | |
| 내 날 적에 너도 나고 | 네 날 적에 나도 나고 |
|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 고대광실로 높은 집에 |
| 삼오에 평강달로 | 희롱하며 살건마는 |
| 이네몸은 어찌하여 | 이 농부로 태어났노 |
| 불겉이 더븐날에 | 구슬같은 땀이 뚝뚝 흐르며 |
| 금강산 일만이천봉 | 팔만구암자 앞에 |
| 열 아홉살 먹은 과부가 | 스물아홉살 먹은 내 딸을 두고 |
| 해는 지고 저문날에 | 내 딸 봉덕이를 |

어드레 어드로

테려갈꺼나

(1987년 조사, 선소리: 송문창 남 56세)

6. 율하동 어사랭이

율하마을에서는 어사용을 속칭 ‘어사랭이’라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어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옛날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어떤 집에서 사람들을 놀하여 산골로 풀을 베러 갔다. 산에서 풀을 먼저 베는 사람은 “구마야 구마야 까마구야 갈까마구야 나 먼저 간다”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풀을 덜 베는 사람은 더 빨리 베어야겠다고 마음먹고 빨리 하게 된다고 한다. 주인은 일꾼들이 풀을 한줌씩 베고 나면 술을 한잔씩 주고 숟가락을 하나씩 나눠준다. 만약 숟가락이 하나 남으면 주인이 이 숟가락을 빨리 숨겨버린다고 한다. 풀베는 사람들이 숟가락 하나가 남은 것을 알면 한 사람이 산에서 범에게 물려 간다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풀을 다 베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기 때문이라 한다. 독창으로 한다.

〈소리의 사설〉

도봉산을 풀지게 지고 올라 가서

너는 어이해서 밤을 지새서

구야구야 까마구야 곁이 검지 속도 검나

백구야 검지마라

남날 때 나도 나건만 어찌 내 신세가 와 이려노

(1987년 조사, 선소리: 서재술 남 71세, 진용수 남 67세)

7. 관음동 어사용

1음절이 3자, 4자, 5자 등으로 구성된 4음절 형식이나 부르는 사람이 ‘사친가’ 가사 등을 넣어 부른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거나 풀을 벨 때 지게목발을 두드리며 독창한다.

〈소리의 사설〉

삼월이라 십오일에

망월하는 소현들아

훈풍도 보려니와

부모봉양을 생각해라

열아홉살 묵은 과부가

스물아홉살 딸을 잃고

강원도 금강산

비탈길로 지내다가

구부러져도

내 딸 봉덕아

아— 울어운다.

(1987년 조사, 선소리:이태원 남 74세)

VIII. 방아타령

‘방애타령’이라고도 한다. 머슴들이 논을 다 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피로를 풀고 여흥을 돋우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이다. 매기고 받는 형식의 노래인데, 매기는 사람은 북이나 장고를 치면서 장단을 맞추어 매기고, 받는 사람은 매구나 북, 장고, 징 등을 들고 춤을 추면서 받는다. 옛날에 두레논을 맬 때는 상머슴을 소등에 태우고 농기를 앞세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을로 들어오기도 했다고 한다.

1. 갈산동 방애타령

매김소리의 첫구절이 “오호 방애타”로 시작되며, 받는 소리는 “오호 방애타”로 일정하다. 방애타령의 본문은 일정하지 않아 특별하게 구전되는 것이 없고, 신명있는 사람이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가사를 붙인다. 대체로 인생살이에 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매기고 받는 형식으로 매김구가 1음절이 4자로 된 4음절의 사설이다. 이러한 형식은 다른 지역의 방아타령과 유사하다. 매김이 끝나고 받고, 받는 소리가 끝나기 전에 “야—”라는 걸음을 깔아서 메긴다.

〈소리의 사설〉

아 호호 방애타

이 방아가 누 방하냐

강태공의 조적방하

이 방아 걸은 연은

경신년에 걸은 방하

작은아 큰아가

쿵덕쿵덕 쪼더라도

방해코도 닳지말고

방해싸개도 닳지말고

수천석 쪼어주소

녹음방초 성화시에

해는 어찌 쉽게 가노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군 살림살이

요만하면 만족하지

명사십리 해당화야
 명년삼월 봄이 오면
 가련하다 우리 인생
 공산야월 두견조는
 월화에 슬피나 울어
 정월이라 대보름은
 청춘남녀 짝을 지여
 이월이야 한식절은
 북만산천 찾아가서
 무정하고 야속한 님
 삼월이라 삼짇날은
 기흥득에 천공활에
 한번 가면 다시 올줄
 우리님은 어데 가고
 사월이라 초파일은
 집집마다 등을 달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오월이라 단오날은
 오락가락 추천뛰네
 추천뛰자 말이 없나
 유두명절 이 아니냐
 줄깃줄깃 맛도 좋다
 혼자 먹기 못먹겠네
 견우직녀 만나는 날
 일년에 한번 만나는데
 십년에 한번 못 만나나
 중추가절 이 아니냐
 기러기도 옛집 찾고
 미물이 짐승 알건마는
 일거허에 무소식이나

꽃진다고 설워마라
 너는 다시 피건마는
 한번 가면 못 온다네
 나와 같이 한이련가
 울어울어 한을 푸네
 답교하는 명절인데
 완월산보 말이 없나
 계자추의 뉘이로다
 무덤 안고 통곡하니
 왔다소리 아니하네
 제비는 옛집 찾고
 기러기도 돌아가네
 미물짐승도 알건마는
 집 찾을 줄 왜모르나
 석가모니 탄생인데
 자손발원 하건마는
 임없는 날 소용없다
 녹이홍상 미인들은
 우리 님은 어데 가고
 유월이라 십오일은
 백부청유 지진 전병
 님없는 빈 방에서
 칠월이라 칠석날은
 은하작교 먼먼길에
 우리 님은 어데 가고
 팔월이라 한가위는
 구월이라 삼일날은
 한번 가면 다시 올줄
 우리 님은 어데 가고
 시월이라 상당에는

| | |
|--------------|-----------------|
| 집집마다 고사치성 | 불살임전에는 백설인데 |
| 터주전에 무설기라 | 재수소망도 빌어난다 |
| 우리님 명복도 빌어보자 | 동짓달을 잡아드니 |
| 절기는 내년인데 | 동지팔죽 먹고나니 |
| 원수의 나이는 | 한살 더 먹었네 |
| 나는 한 살 더 먹는데 | 님은 하나 안 생기나 |
| 설달은 막달인데 | 빛진사람 쫓리는데 |
| 이동작이 지나고 보니 | 설달 그름이 고대로다 |
| 복조리는 사라는데 | 님 건지는 조리는 왜 없느냐 |

(1987년 조사, 메김소리: 서석재 남 55세, 받는소리: 이해호 남 55세, 이용길 남 53세)

2. 서호동 방애타령

사설은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메김구가 2음절 형식으로 되어 있다. 1음절 4자 구성이다. 받는소리는 ‘우우 방아야’이다.

〈소리의 사설〉

| | |
|-----------------|---------|
| 우우 방ैया | 우우 방ैया |
| 이 방ैया 뉘방아고 | " |
| 강태공에 젖은방아 | " |
| 강태공은 어딜 가고 | " |
| 방ैया 하나만 남았는가 | " |
| 덜거덩 덜거덩 찡는 방ैया | " |
| 하루찌도 사천석 | " |

(1987년 조사, 선소리: 권현도 남 73세)

3. 서변동 방애타령

사설의 형식은 메김소리는 2음절 형식이 많다. 1음절은 3자·4자로 구성된다. 가창방법은 메기고 받는다. 받는 소리는 ‘오-방ैया’이다.

〈소리의 사설〉

오－ 방혜야

이 방아가 누 방아고

경신년 경신시

강태공 조작방아

빙빙돌아 돌방아

둘이 찢는 가래방아

하나둘이 찢는 방아

열두무리 잡수시요

오－ 방혜야

”

”

”

”

”

”

(1987년 조사, 선소리:이주희 남 62세)

4. 관음동 방애타령

사설의 형식은 메김소리가 일정한 음절로 되어 있다기 보다 앞소리하는 사람이 적당한 사설을 읊는다. 가창방법은 메기고 받는다. 받는소리는 ‘오 방에야’이다.

〈소리의 사설〉

오－ 방에야

늘고서－ 젊어서 노자

늙어지면 못 노니라

이만한 시절 돌아보자

오 방에야

오 방에야

오 방에야

오 방에야

(1987년 조사, 앞소리:이태원 남 74세, 뒷소리:최종택 남 72세 외)

【참고문헌】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1949, 首善社.

任東權 編, 《韓國民謠集》 I ~ VI, 集文堂, 1975.

金宅圭 외, 《民俗藝術》, 大邱直轄市, 1987.

金宅圭 외, 《大邱의 禮樂》, 大邱直轄市, 1988.

第7節 傳 說

I. 中區

1. 칠성석의 유래

조선 정조 19년에서 21년까지 3년간 경상도 감사로 이태영이란 사람이 재직하였다. 그에게는 아들 7형제가 있었는데, 어느날 밤 꿈에 하늘에서 북두칠성이 광채를 내면서 밖에 떨어져 찬란한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일찍 일어난 이 감사는 비록 꿈이지만,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서 별이 떨어진 북문밖으로 나가보니 어제까지 없었던 7개이 커다란 바위가 북두칠성모양으로 놓여 있는 것이었다. 이감사는 필시 좋은 징조하고 생각하고 7개의 바위에다 자기 일곱 아들의 이름을 하나씩 새겼다. 즉 제일 동쪽에 있는 바위로부터 義甲, 義斗, 義平, 義升, 義準, 義章, 義肇의 순서로 새겨 나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후 일곱 아들이 차츰 장성함에 따라 얼굴이나 성품이 자기 이름을 새긴 바위를 닮아 가는 것이었다. 울퉁불퉁하고 험상궂게 생긴 세개의 바위에 이름이 새겨진 세 아들은 자라서 무관이 되었고, 깨끗하고 동그스름하게 생긴 세개의 바위에 이름이 새겨진 세명의 아들은 문관이 되어 출세했다. 그리고 그저 평범하게 생긴 바위에 그 이름이 새겨진 한 아들은 아무 벼슬을 못하고 평범함 일생을 마쳤다.

그 뒤에 이 의두의 후손이 역시 경상감사가 되어 선조의 기적을 영구히 전하기 위하여 칠성바위 주위에 나무를 심고 중앙에 정자를 세워 依北亭이라 했다. 그러나 의북정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퇴락해 헐려 버렸고 그때 심은 소나무만 노송으로 자랐는데 그 뒤부터 멀고 가까운 곳에서 자식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부귀다남을 빌었다. 현재 七星洞이란 동명은 여기에서 따온 것이다.

2. 건들바위의 유래 및 사연

대구직할시 기념물 제2호로 지정된 건들바위는 그 소재지가 대봉동인데, 봉산시장에서 수도산으로 뚫린 약간 꾸부러진 신작로 중간 우측 언덕 밑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도로를 곧게 내려고 했으나, 이 건들바위 때문에 도로를 좌측으로 굽혔다고 한다.

건들바위는 어느 때부터 생긴 이름인지는 오랫동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표지판에도 그 유래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로부터 갓을 쓴 노인 같다고 하여 笠巖

이라고도 불리워 왔다고 한다.

지금의 신천 도랑이 원래는 이 곳 수도산을 끼고 제일여상고 쪽으로 하여 반월당으로 흘렀다. 즉 100여년 전만 하더라도 이 바위 앞에는 맑고 깊은 냇물이 흘러 낚시를 하며 즐겼던 경치 좋은 명소로 알려져 있었다. 건들바위 앞에 놓인 표지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대구십경중의 하나로서 徐居正(1420~1488)선생의 笠巖釣魚의 詩題가 바로 이곳을 두고 읊었던 것이다, 한편 근세에 이르기까지 기이하게 생긴 이 바위에 점장과 무당들이 몰려와 지성을 드렸는데, 특히 아기를 갖지 못한 부인들이 치성을 드리러 많이 찾았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에도 초 사흘 초 이레가 되면 촛불을 켜고 비는 부인들이 많아 이 날만 되면 촛불을 켜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제보자의 얘기로는 실제로 건들바위에 빌어 아기를 낳았다는 사람들 몇명 만나 보았다고 한다. 또한 동화사 동편에 있는 갓바위도 아기를 갖게 해 주는다는 사실과 이 건들바위를 관려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도 무속적인 신앙이 이처럼 시내 한가운데서도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지금 건들바위는 많이 마멸된듯하고 또 뒷면에는 바위 벼랑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고 건들바위 중간 부분에 잡목이 하나 있는데, 바위가 손상될까봐 당국에서는 끊어 없앨려고 하나 주민들이 못 끊게 하고 있다.

3. 달성공원의 유래

옛날에는 달성공원이 큰 들과 논밭으로 이루어졌었고, 지금의 달서천 앞으로는 소나무숲과 조그마한 시내가 있었다. 이 시내는 부인들의 빨래터로 이용되었는데, 하루는 한 노파가 달밤에 아이를 업고 빨래를 하다가 달빛아래 산이 움직여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노파가 이것을 아이에게 이야기하자, 아나는 거짓이라고 하였다. 아이의 말이 끝나자 산은 그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지금의 달성공원이 되었다고 한다.

4. 청어샘

달성공원 앞을 흘러 금호강으로 들어가는 달서천은 지금은 대구의 하수가 모두 모여 오물로 뒤범벅된 더러운 강이 됐지만 옛날에는 한없이 맑아 이 일대 주민들이 이곳에서 빨래는 물론 채소도 여기서 씻어 먹었다.

물이 맑다보니 민물고기는 물론 바다고기까지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으러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다가 금호강을 거쳐 이곳까지 왔다고 한다.

그렇게 물이 맑을 때, 이곳에 청어샘이라는 우물이 달서천 부근에 있었다(지금은 없어진 일제 때 시립풀장이 있던 곳. 이 샘이 청어샘이란 이름이 붙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고서이다.

이 마을에 마음씨 곱고 이웃에 인정있는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하고 이웃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달려가 일을 거들어 주는이 과부를 동리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다. 이 과부의 집에 하루는 귀한 손님이 찾아 왔다. 모처럼 귀한 손님이 왔지만 집안 형편이 가난하니 맛있는 반찬은 구할 수 없고 따뜻한 밥이라도 정성껏 지어 대접하자는 생각을 하며 샘으로 물통 길으러 갔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데 다른 때보다 두레박이 한결 묵직하다. 웬일인가 해서 바삐 끌어 올려보니 이게 무슨 조화인지 두레박 속에는 튼 청어 한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게 아닌가. 과부는 그 청어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귀한 손님을 대접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도 기적은 되풀이 되었다. 그 일이 있는 뒤부터 이 마을 어떤 집에 손님이 와서 그 주인이 이 샘에 물을 길으러만 가면 두레박 속에는 손님의 수효대로 청어가 담겨 올라오는 것이었다. 즉 손님이 한 사람 온 집에는 한 마리가, 두 사람이 온 집에는 두 마리가 잡혀 올라 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뒤부터 이 샘을 청어샘이라 불렀는데 샘에서 청어가 나오는 것은 이 샘물깊이 땅 속에서 동해바다로 연결되어 있는데, 동해 용왕이 대구사람의 후덕한 마음씨를 기쁘게 여겨 청어를 보내 준 것이라고 믿었다 한다.

이와 비슷한 얘기로 이 샘에는 손님의 수에 따라 잉어가 나온다고 하여 잉어샘이라고도 함. 또 효자가 부친의 병에 미꾸라지가 종단 말을 듣고 이 샘을 발견하여 수많은 미꾸라지를 잡아 부친의 병을 고쳤다고 하여 미꾸라지 샘이라고도 한다.

5. 영선못(領仙池)

대봉동 영선시장 자리는 30여년 전만해도 영선못이라는 큰 못이었다. 따라서 영선시장이란 이름은 이 못 이름에서 딴 것이다.

지금은 없어진 영선못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얹혀 있다.

조선조 말엽에 이 부근에 한 고관이 살았다. 어느날 한 점장이가 이곳을 지나다가 유심히 지세를 살펴보니 고관 집에 들어가 “나으리 저기 보이는 저 넓다란 터에는 절대로 집을 짓지 마시오. 그곳에 집을 지으면 나라에 근심될 일이 생깁니다. 그곳에 12년을 걸려 큰 못을 판다면 거꾸로 나라에 경사스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고 일러 주곤 사라졌다.

고관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위낙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라 곧 사람을 사서 못 파기를 시작했다. 수백명의 일꾼이 눈비를 가리지 않고 못파는 공사를 계속했다. 도중에 쓰러지는 사람도 생기고 필요 없는 못을 파서 월 하느냐 불평도 많았지만 그 고관은 속셈만 할 뿐 왜 파야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12년을 끌어 커다란 못을 완공했다.

이래서 못이 완성되자 부근 산에서 흘러 내리는 물을 잡아 가뭄으로 여름 장마철에 물난리를 면하게 됐고, 가물때는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니,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 것만은 사실이었다.

6. 천황당못(天皇堂池)

대구 서문시장 자리는 원래 천황당이란 이름의 못이 있던 곳으로 1920년경 이 못을 메우고 이룩한 곳이다.

옛 시장이나, 읍진 큰장이 모두 옛 대구읍성이 있을 때 모두 서문 밖에 있었다. 이것이 이 곳 천황당 못 자리로 읍진 뒤부터 이상 이름을 바꾸어 서문시장이라 했다.

성내 한량들이 즐겨 찾던 놀이터요. 봄 가을이면 부근 부녀자들의 놀이터이기도 한 천황당 못은 주변 구릉에서 흘러내린 물에 저절로 만들어 진 자연호수였다. 주변 구릉에는 참나무 숲이 무성했다.

그런데 서문시장에는 큰 불이 자주 나는데 이른바 “서문시장 큰불”은 천황당 못에 빠져 죽은 원혼타이라고 믿고 있다. 즉 옛날 이 못에 실연당한 처녀가 못둑에 신을 벗어 둔채 투신 자살한 일이 있었다. 자주 일어나는 “서문시장 큰불”은 남자에게 희롱당하고 버림받은 처녀의 원혼이 해꽃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상인들은 2여년 전까지만 해도 불이 나면 비용을 거둬 원혼을 달래기 위한 굿을 올렸다.

7. 봉산동(鳳山洞)의 유래

봉산이란 지금 제일여중교에 소재한 자라바위가 있는 산을 말하며 순종때부터 正午을 알리는 午砲를 쏘고 발사하였다 하여 일명 오폭산이라도 하였는데, 옛날에는 서낭당이 있어서 봉산 동쪽에 있는 마을을 장승백이라고 하였다.

이 봉산은 다른 이름으로 월전산, 연구산, 운구산, 자라바우산이라고도 했는데 지금부터 약 200년 전 한 부부가 자라바위에 공을 드러 꿈을 꾸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전설에서 유래된 지명이기도 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옛날 이곳은 화산지대였다고 하는데, 앞의 비슬산을 비롯하여 앞산,

용두산, 수도산, 자라바우산 등에 모두 화맥이 뻗혀 있어 불이 자주나 피해가 심했다. 그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의 인심이 흉흉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렸다.

어느 시대 이곳에 부임한 고을 원님이 불을 막기 위한 방법을 주야로 생각하다가 물로써 화기를 억눌러야겠다고 생각하고 용두산에 얼음창고를 만들고 또 물을 상징하는 자라를 시가지 가까운 산에 놓아 두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을 원님은 자라모양으로 바위를 깎아 둘까도 생각했으나, 그것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자라가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 곳을 다녔더니 과연 자라 모양으로 생긴 바위가 있어 그것을 옮겼더니 그 영험인지 그 뒤로는 큰 불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II. 東區

1. 효목동의 유래와 그 주위의 지명

현재 행정구역상 효목동은 수성구 만촌동과 동구 신천동과 연결되어 있는데, 효목동이라고 불리기 이전에는 소목골이라 했다고 한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동래정씨가 난을 피해 당시 수성현 수북면 소목골에 입향하여 정착하였다고 한다. 신천동을 한골이라 한데 비해 효목동을 작은 골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동래 정씨 12대조의 정려각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그 위치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유달리 선조를 봉양하고 화목했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그 이후 효도하고 화목하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소목골을 한 자식으로 孝睦洞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효목동은 소목골의 다른 명칭이다.

이 동네는 갑오경장이후 487번지 땅에 당시 유일하게 기와집을 마련하여 서당을 만들어 자체 교육에 힘썼고, 그 이후 경로당, 고등국민학교로 이용되었으며, 지금은 그 자리에 마을회관이 들어서 있다. 또한 지금 효목교회 자리에는 당목이 있었고, 이 당목을 기점으로 하여서 작은골 큰골로 나뉘었다고 한다. 지금은 행정구역상 만촌동이지만 10여년 전에는 효목동이었던 효목못 주위에는 판교지라는 숲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못은 지금 메워져 효목공원으로 쓰이고 있으나, 그 주위의 느티나무는 아직까지 남아 효목동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은 신천동인 동부정류장 부근은 그때는 야시골이라 했는데, 유독 언덕이 높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지금은 만촌동으로 편입된 지역으로 군의학교 제일육군병원 뒤쪽 산을 인재가 많이 날 형상이라서 중국 당나라 이여송장군이 산줄기를 끊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당

시 효목동으로 들어 오려면 이 산을 넘었어야 했는데, 그 산 주위에 돌무덤이 있어서 쉬어 가곤 했다는 데서 쉬목골이라 불리워졌다고 한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현재 아양교 부근을 금정나루라 했는데, 이는 경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요충지 구실을 했다고 한다.

2. 백안마을의 지명유래

천지가 개벽을 하여 모든 마을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을 때, 한 마을만이 물레 잠기지 않았다. 배가 한 척 떠 있을 정도의 지역만 남았기 때문에 배안이란 말이 한자로 쓰여져 百安이 되었다고 하고, 마을 사람 백여명만이 살아 남을 수 있었다고 하여 百安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고도 한다.

3. 지묘일대의 지명 전설

동구 지묘동 자리는 표충단, 충렬비, 표충재를 합쳐 대구시 지방 문화재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전에는 달성군으로서 경상북도 문화재 14호였는데 대구시로 승격되고 난 뒤 1호가 된 것이다.

이 자리는 장절공 신승점 장군이 전사하신 곳이다.

지금부터 천여 년 전 서기 917년 태봉에서는 폭군 궁예를 내몰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때 신승점, 김낙, 배현경, 복지겸 네분이 왕건을 고려태조로 모시게 되었다. 그 뒤 10년 후 신라 경애왕 3년 포석정에서 견훤의 기습을 받아 신라는 사면초가가 되어 고려에 원군을 요청했다. 그리하여 고려는 기병 5천을 신라에 보내 왔다. 최초의 접전은 잘 알 수 없으나, 견훤의 군사는 연전연승, 기세가 등등, 승승장구하고 고려군은 연전연패하다가 최후로 포위된 곳이 지금의 지묘1구 이 자리라 한다.

이리하여 王을 구하기 위해 지묘에서 구출 작전이 벌어졌다. 전군사가 전몰하는 일이 있어도 왕을 살려야 했는데 그 방법이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용케도 왕건과 신장군의 얼굴이 흡사하여 거기서 신장군은 태조 왕건의 옷으로 갈아 입고 왕으로 가장 김낙장군과 더불어 진두지휘 하였다. 왕을 평복으로 갈아 입혀 숲을 숨기고 동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적의 시선을 끌고 왕은 그 새에 탈출시키는데 성공했다. 신장군은 그 곳에서 전사하였고 견훤의 군사는 나팔을 불고 기뻐했다. 그들은 신 장군을 왕으로 생각하고 신 장군의 머리를 잘라 갔으며 지금도 그 머리는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다고 한다.

그 뒤,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고려에서 시신을 거두려고 와 보니 머리는 없고 옷도 벗겨

져 분별하기가 힘이 들었다. 장절공 유적 책자에 보면 유금필 장군이 신 장군을 잘 알아 左足下에 七星이 있으니 그것을 보면 찾을 것이다 하여 그 말을 믿고 지금 봉분자리에서 시신을 찾아 지금의 강원도 춘천 춘성군 서면 방독리에 묘소를 세우고 장례를 치루었다. 왕건이 이를 추모하기 위해 그 자리에 지묘사, 미리사(大悲寺)를 그 근처에 지었다.

대비사는 동구 평광동(이것은 행정명이며 실제 마을 이름은 迭王)(시랭이) 또는 一名 大悲洞이라고도 한다)에 영정을 모시고 명복을 빌었다. 大悲寺는 탄 기록이 있으나 미리사와 지묘사는 불탄 기록이 없다. 아마 몽고란 때 부인사가 탈 때 근처 절이 전부 불탔다는 기록이 있어 같이 탔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大悲寺는 김천득이라는 자가 先拷의 묘를 쓰기 위해 중과 짜고 불을 질러서 영정이 없어졌다고 한다.

150년 전 무자년에 송축 기록이 있는데 그 후 자손이 다시 찾아와 비각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지묘사가 타고 지묘는 황폐해 졌는데 300년 전 유영순이라는 분이 이 자리와 보니 너무나 흔적도 없이 변해 버려 인근 사람들의 힘을 모아 표충사라는 사당을 짓고 충렬비를 세웠다고 한다.

표충사는 김낙, 신승겸, 두 분을 모시는데 그 뒤 신길원 장군을 모셔 내려오다 서원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대원군 때 서원 철폐의 국가령에 따라 지묘의 표충사가 헐리게 되었다. 지금의 표충재는 서원을 없애고 다시 재실을 짓고 후손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

파군재는 견훤의 군사가 신승겸, 김 낙 등 고려 군사를 깨뜨렸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견훤의 군사가 여기서 진을 거두었다는 데서 파군이란 이름이 생겼다고도 한다. 그러니 고려 군사가 여기서 진을 거두었다는 데서 파군이란 이름이 생겼다고도 한다. 그러니 고려 군사가 전멸 당한 뒤 후백제군이 작전을 그만 두고 군을 거두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시 고려군은 전멸했으므로 파군한 데서 나온 말이다. 이에 앞서 왕건의 군사가 나타날 것을 염려하여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데서 無怠란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나팔고개라는 것은 전쟁 때 나팔을 불었는 데서 연유 했는데 지묘를 중심으로 포위한 견훤의 군사들이 포위망을 압축시키기 위해 나팔을 분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역시 견훤의 군사들이 포위망을 압축시키기 위해 나팔을 분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역시 견훤의 군사들이 나팔을 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왕건의 군사가 무태로부터 6km를 긴장하면서 행군하다가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나팔고개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獨坐巖은 “독지바우”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봉무동 노인회관 북쪽 5m 지점의 개천가에 있다. 이는 태조 왕건이 지묘에서 참패를 당하고 왕산으로 달아나서 팔공산의 염불암 옆 一人

石에 앉았다가 다시 과군재를 넘어 봉무동 지금의 독좌엄이란 바위에 앉았다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전한다.

그 너머 불로동 마을 앞을 解顔이라 하는데 이를 동촌면이라 하기 전에 해안면이라 했다. 태조가 패잔병을 끌고 들판을 지나면서 몹시 걱정했는데 마침내 무사히 통과하여 얼굴의 수심이 가셔서 얼굴을 펼 수 있었다는 뜻에서 해안이란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지묘 1지구 뒷산인 王山은 왕건이 올라가서 능선을 타고 3번만에 뛰어 피신한 곳이다. 그래서 왕건이 죽을 것을 이 산 때문에 살았다고 하여 왕산이라 했다고 한다. 그 뒤로 간 곳이 동화사 뒤 염불암이다. 여기서 一人石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왕건이 거기 숨어 앉아 있으니 수도하던 도승이 첫 눈에 왕건인 줄 알고 그의 자백을 받기 위해 던지시 묻기를

“이 자리는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곳인데 그대는 누구인가, 내려오라”고 했더니

“내가 바로 王이다”라고 자백했다. 그러자 도승은 절을 하고 길을 안내해 주었다. 그 후 염불암 옆의 그 바위를 왕건이 혼자 앉았다 하여 一人石이라 부른다고 전한다.

지금의 지묘1구 앞들을 탐들이라 하는데 이는 옛날 지묘사의 탐이 있던 곳이라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지금은 탐이 없어졌다). 경지정리를 할 때 그곳을 파니 부역의 재와 검정이 나오고 기와 조각이 나왔고 요즘도 가끔 나오고 있다.

그리고 왕건은 지묘1구 뒷산인 왕산으로 달아나 동화사 뒤의 염불암의 一人石을 거쳐 다시 지금의 봉무동 노인회관 북편에 있는 큰 바위에 혼자 앉아 쉬었다가 다시 解顔지방을 거쳐 지금의 반야월에 오니 밤은(半夜)(한 밤중)이고 달(月)이 또 있다고 해서 반야월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이렇듯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 전해 내려와 지금의 지명이 된 것이 많다. 대구 근교 주위가 거의 이런 연관으로 이름이 지어졌는데 주위 이름이 산이나 강의 생김새를 보아 이름 지은 것에 비해 이곳은 역사적 일이 있어 이를 토대로 이름이 지어졌다. 지묘사라는 것도 智·妙 즉 작전을 펼 때 지혜와 묘책을 써서 왕건을 도망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의 지묘동은 옛날 지묘사라는 절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동명이라 전한다.

신승검의 왼쪽 발바닥에 7개의 점이 있는데 이는 왕건과 같게 하기 위해 바늘 땀을 떠서 먹을 넣었다고 전해 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태조의 左足下의 혹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고, 장절공의 시신을 거둘 때 머리도 없고 왕복도 거두어 가고 전혀 알 수 없었는데, 마침 유금필 장군이 신장군을 잘 알아 신장군이 좌족하의 혹성을 찾아낸 것이 단서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표충사를 혈단이라 부르는 것은 신 장군의 흘린 피를 모아 단을 만들었다는 뜻에서 시체가 묻힌 곳과는 다르다.

4. 나발고개·왕산·파군재에 얹힌 전설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 후백제의 침입으로 신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신라의 원병 요청으로 고려 태조 왕건은 후백제와의 일전을 벌이게 되었다. 왕건은 군사를 이끌고 지금의 대구시 북구 서변동을 지나 연경동, 지묘3동 방향으로 진군하고 있었다. 서변동 일대를 지날때 왕건이 군사들에게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해서 지금도 이 지방은 속칭 무태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리고 연경동 부근에 이르렀을 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와 왕건이 감탄한 마을이라 해서 硯經이라 불려진다고 한다.

진군을 계속하면서 지금의 지묘 3동에서 지묘 1동으로 가는 고개에서 적진을 향해 진군의 나팔을 불었다. 이로 인해 이 고개는 나발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일설에 의하면 견훤의 군사가 왕건의 군사를 둘러싸고 쳐들어 가며 나팔을 불었다 해서 나팔고개라고도 하고 왕건의 군사를 깨뜨린 견훤의 군사가 이 고개를 넘으며 나팔을 불었다고도 한다).

이 나발고개를 넘어간 고려군은 드디어 후백제의 견훤 군사와 일전을 불사하게 되었다. 이 싸움에서 고려군은 견훤의 군사에게 무참히 짓밟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이 때 고려 충신 신승겸이 왕건을 살리기 위해 곤룡포를 입고 왕건의 모습과 비슷하게 꾸며 적군의 눈을 속였다. 이 틈을 타서 왕건은 지묘1동 북쪽에 있는 산으로 무사히 피신을 해 화를 면했다. 이런 연유로, 이 산이 왕건이 살렸다는 뜻에서 왕산이라 부르게 된 것이라 한다.

왕을 보낸 고려군은 신승겸을 중심으로 끝까지 항거를 계속했다. 지묘 2동에서 파계사로 넘어가는 뒷산을 뚫고 위장전술을 폈으나 사기충천한 견훤 군사에게는 역부족이었으며 많은 군사가 쓰러지고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다. 간신히 남은 몇몇 군사를 수습하여 오른쪽 동화사 고갯길로 환로를 개척했으나 숨어 있던 적의 군사에게 비참한 희생을 겪고 지묘 앞 냇물을 간신히 건넜다. 왕산을 배후에 두고 최후의 싸움을 벌였으나 衆寡不敵이라 進退維谷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견훤의 군사들은 발바닥에 사마귀가 있는 왕건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신승겸을 팔공산 어느 자락에 숨어 있을 왕건이 잡힐까 두려워 자기 발바닥에 상처를 내어 먹물로 검은 점을 만들었다. 장군과 더불어 마지막 남은 고려군사는 견훤의 칼날 아래 쓰러져 팔공산 누리를 붉게 물들며 그 당시의 처참한 광경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신승겸의 군사가 제1차로 파해서 흩어진 곳을 아랫 파군재라 하고 제2차로 파한 곳은 윗 파군재라 불려지고 있어 지금도 이곳을 지나가는 이로 하여금 발길을 멈추게 한다.

5. 모단의 유래

동구 둔산 4구 지역은 속칭 ‘빼골’ 또는 ‘모단’이라 한다. 빼골이란 속명은 원래의 지역명인 빼어날 ‘秀’, 골 ‘洞’ 즉 ‘秀洞’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런데 모단이라는 속명에는 특이한 유래가 전해오고 있다. 옛날부터 전해오기를 터가 좋은 곳은 왕도가 아니면 역적이 난다고 한다.

지금의 모단 지역은 예전에 그 터는 좋았으나 역적이 나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이 지역을 역적이 난 곳이라 하여 주위에 큰 독을 쌓아 못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다 오랜 세월 뒤에 독은 자연붕괴 되었고 물이 빠진 후 다시 그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 되었다.

속명인 모단은 그래서 지어졌다고 한다. 못 안에 산다. 곧 ‘못안→모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 지역 사람들은 모단이라는 속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에 쌓았던 못독은 아직도 그 흔적을 여러곳에 남기고 있다.

6. 태봉의 유래

동구 연경동1통을 가리키는 마을 이름이다.

태봉이라 불리고 있는 마을 이름은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붙여졌다는 ‘研經’이라는 이름과 함께 현재까지는 병용되고 있다. 태봉은 胎封, 胎峰이라고 쓴다. 그러나 사적으로도 태실과 태봉은 같이 사용하므로 현지 주민들이 태봉이라고 하는 것은 태실의 위치가 묘하게도 산봉우리이기 때문에 대와 봉을 혼돈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태봉은 광해군의 태를 묻는 봉우리가 있다고 해서 해봉이라고 했다 하는데 지금도 ‘탯덩이’라고 부르는 봉우리에는 王子의 태실임을 밝히는 王子慶龍何只氏胎室이라 쓰여진 비석 조각이 남아 있다.

태봉의 파괴 시기는 한·일 합방 직후인 금세기 초라고 추측된다. 무태에서 연경동일대에는 오래 전부터 仁川李氏들이 많이 살았는데 서변동 일대는 무태파, 연경동 일대는 태봉파라고 하여 서로 갈라져 있었다고 한다.

합방이 되자 무태파에서 폐주의 태실이라 하여 파괴하려 했을 때, 태봉파와 알력이 있었으나 무태파가 세력이 커, 결국 파괴되었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일제 초에 인천 이씨의 한 집에서 태실자리가 정승이 될 명당자리라고 해서 그 바로 밑에 부친묘를 쓰다가 만상주가 죽고 그날밤에 둘째 상주도 죽었다. 그래서 점을 치니 태실을 깨뜨리라고 해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석물을 깨뜨려 봉우리 밑 태봉못에 버렸는데

그날 밤에 손자가 또 죽었다. 다시 굿을 해 보니 석물을 원상태로 해 놓으라고 해서 며칠 걸려 원상태로 맞추어 놓았다고 한다.

그 뒤로 그 집안은 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60~80세 노인들이 이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해방 이후에 인천이씨들이 그 산을 소유했고 1960년대 후반에 한 집안(인천이씨)에서 태실 바로 밑에 묘를 썼다가 망했으며 그 이후 다른 곳으로 이장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일제 초 묘자리 때문에 파괴되었다는 이야기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60년대 후반 묘자리를 파다가 발견된 비석은 대·소 두 점이었으며, 당시의 형태는 완전했으나 큰 비석은 균열이 심했다고 한다.

현지에는 비들이 깨어진 채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으며 작은 碑는 글씨가 아직 뚜렷했고 王子慶下只氏胎室 큰 碑는 일부가 소실되고 없었다.(萬曆 三〇 一月 〇日建)

萬曆은 명 신종의 治世年號로 재위기간은 서기 1573~1619년이다. 따라서 비의 건립 시기는 1573~1619년으로 추측할 수 있다.

광해군은 조선 제15대 왕으로 선조와 후궁 恭嬪金氏와의 사이에 1575년 출생했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선조25년 行宮에서 세자로 책봉되었으며 34세에 등극했다가 1623년 인조 반정으로 발주가 되었다.

이 태실에 광해군의 것인지 광해군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태실인지는 왕자 慶龍도 누구인지만 알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 지방 사람들은 모두가 광해군의 태실이라 믿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충분히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7. 道德마을 수구막 전설

도덕마을은 달성군 공산면 연경동이었다가, 대구시로 편입되어 지금은 행정구역상 대구직할시 동구 연경동이다. 태봉에서 북서쪽으로 1km쯤의 위치에 있으며 동래 정씨 임하공파(15대째 살고 있음. 宗宅에는 종손이 현재 살고 있음)를 중심으로 20여 호로 구성되어 있다. 도덕이라는 마을 이름은 옛부터 도덕을 숭상한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조 선조의 둘째 아들인 광해군이 태어나자 명산과 명당을 찾다가 연경동 뒷산에 그 태을 안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봉우리 밑의 마을을 태봉이라 하고, 왕자의 태실이니 만큼 석물이 웅장하고 화려 했으며 석상이 아주 훌륭했다고 한다.

그런데, 연경동 뒷산에 태실이 생기고 난 뒤부터 그 뒷마을 도덕에서는 괴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마을의 과년한 처녀나 시집 온 새색시들이 봄만 되면 태봉쪽을 하염없이 바라보

다가는 끝내 미쳐 마을을 도망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해를 거듭하며 계속되자 마을에서는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 여자들이 바람이 나서 마을을 떠난다는 것은 마을 체면과도 관련이 되고 또, 마을 자체 내에서도 곤란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리저리 고민을 하다가 무당을 불러 굿을 해 보니 태봉의 석상한테 반해서 마을 여자들이 미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왕실의 석물을 없앨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라 궁리 끝에 마을 앞에 소나무를 심기로 했다. 이곳은 도덕마을에서 보면 태봉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을 전체가 소나무를 가꾸기 시작했고 그 숲의 이름을 “樹口막” 또는 “수구맥”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그 후로는 여자가 성적으로 미쳐 마을을 떠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날 온 동네사람들이 모여 그 숲에서 풍악을 울리게 하고 한 해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원하고 또 고마움을 전했다고 한다.

이러한 풍습은 1960년대 후반까지 있어 왔으며 그때까지 울창했던 소나무 숲이 솔잎 흑파리와 태풍으로 한꺼번에 죽어 버렸다고 한다. 나무는 보통 둘레 2~3m, 길이는 7~10m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두 그루가 남아 있는데 한 그루는 말라 죽고, 한 그루만 남아 삼사백년 마을의 비밀을 안고 태봉을 바라보고 있다.

8. 도학1동의 범바우 이야기

지금은 도학1동이라고 불리워지는 팔공산 문턱의 작은 마을은 일명 학부마을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 윗쪽 산에는 장성사라는 작은 절이 있다. 이 절 아래쪽의 발터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를 속칭 범바우라고 한다.

옛날 이 마을에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산을 누비며 다녔다. 이 짐승의 성질이 워낙 난포하여 그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밤마다 나타나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결국 마을 주민들은 아래쪽으로 옮겨 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지금도 그 바위가 서 있는 아래쪽으로는 예전의 집터가 나타난다고 한다.

9. 용암산성과 옥천

도동에 있는 용암산성은 그 일대에서 발견되는 토기조각으로 학자들은 이 성이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성은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활동한 곳이기도 한데, 여기서 한 차례의 대격전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굴착된 것이 옥천이라 한다.

임진왜란 중 대구까지 쳐들어온 왜병이 마을을 불사르고 약탈하자 이에 분개한 백성들이 왜군과 맞서기 위해 이 용암산성에 모여 들었다. 왜병의 수가 워낙 많고 무기가 우세했으므로 의병들은 성을 내려가지 않고 왜병을 방어하기로 했다. 용암산성은 천연의 요새로서 왜병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안성마춤이었다. 그런데 이 용암산성에는 물이 없었다. 이 사실을 알아챈 왜병들은 성 주위를 포위하고 이들이 지치기만을 기다렸다.

의병들은 몇 명으로 나뉘어 물을 구하기 위해 밤에 산을 내려왔는데, 번번이 왜병에게 잡혀 죽음을 당했다. 할 수 없이 의병들은 성 내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 우물을 파기 시작하였다. 여러날 우물을 파기 시작한 끝에 깊은 바닥에서 드디어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의병들은 이로써 그 물을 마시며 성을 지킬 수가 있었고, 왜군들은 결국 퇴각하고 말았다. 의병들의 정성 때문인지 그 우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옥천이란 이름은 그 물이 항상 옥같이 맑고 차가운 물이 솟아난다고 한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10. 파군재의 전설

동화사와 파계사 갈림길에는 고려때 왕건 태조가 견훤과 싸워 패한 파군재가 있다. 동화사로 넘어가는 고개를 윗판군재, 파계사로 넘어가는 고개를 아래 파군재라고 했는데, 그 사이는 현재 도로가 나서 경계가 되어 있다. 왕건이 견훤의 군사포위망을 뚫고 달아난, 긴장된 얼굴을 풀었다고 해서 해안, 다시 그 활로를 밝혀주던 새벽달이 외롭던 곳 반야월, 파군재 이외에도 지형과 전설이 담긴 곳이 많이 있다.

왕건을 사지에서 구출해 준 신승겸장군이 전사한 지묘동의 표충단, 왕건이 앓았다는 독좌암 등 일일이 열거할 겨를이 없을 만큼 많은 전설들이 이 곳을 중심으로하여 산재해 있다.

11. 의자이랑의 전설

냉천동 동구에 서 있는 “의자이랑의 묘”라는 돌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애처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조선조 말엽의 일이었다. 더위가 시작되는 어느 여름날 부모님은 아침 일찍 논밭으로 김매러 나가고, 집에는 세살난 어린 동생과 일곱살밖에 안되는 어린 이랑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방에서 이랑이 어린 동생과 놀고 있던 중, 부엌으로부터 난데없이 불이 일어나 부엌 구석에 차곡차곡 재어둔 보리 쫄단에 불이 붙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온 집이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다. 갑자기 일어난 불길에 당황한 이량은 어찌할 바를 몰라 소리소리 외치다가 드디어 이 어린 동생을 어떻게 해서든 불길로부터 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불길은 하늘을 지를 듯이 추녀 아래를 휩쓸어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닥쳤다. 이량은 생각끝에 어린 동생을 자신의 배 밑에 깔고 엎드려 있었다. 뜨거운 불길에 누나 이량은 타 죽게 되고 누나 배 밑에 깔려 있던 동생은 생명을 구했던 것이다. 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냐!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속에서 혼자 살 수도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가특한 정신에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후 살아 남은 동생은 홀롭게 출세하여 항상 자기를 위해 죽은 누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누님의 지하 혼령이라도 위로해야겠다고 결심하여 義姉李娘之墓라는 비석을 세웠다고 한다.

12. 옷 골

대구시의 동쪽에 위치한 동촌에서 북으로 5리쯤 들어가면 옷골이라는 아담한 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은 남쪽을 제외하고 동서북쪽의 모든 산에 옷나무가 많아 옷골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경주 최씨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다.

동리 가운데는 정각이 있었는데, 어느 때 지나가던 노인 한 분이 정각에 올라 주위를 살핀 후 동리 사람들에게 “이 마을은 정자에서 금호강 물이 보이면 地氣가 쇠하여 마을이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주위 산에 꼭 서 있던 나무들이 말라 죽고 금호강 물이 보이자 이 동리 사람들은 차차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이들이 많이 생겨 심지어는 커다란 집을 텅텅 비워 두는 사례가 생겼다.

이 동리 이름은 옷나무가 많은 골짜기란 뜻으로 漆溪洞이라 불렀고 속명으로는 옷골이라고 부르고 있다.

III. 西區

1. 비산동의 지명설화

현재 비산동에 있는 구룡지는 옛날에는 평야였다. 평야이던 이곳에 산이 자리잡게 된데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 어느 시절 한 주부가 達川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한참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그윽한 음악소리 같은게 들려 왔다. 어디서 들리는 소리가 하여 기이하게 여겨 고개를 들어

보니 서쪽에 커다란 산이 뚱뚱 날아오고 그 위에서 음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빨래하느라 피곤해서 잘 못 봤는가 해서 한참 그대로 쳐다 봐도 불명한 산이었다.

멀리서 날아온 산이 달천을 막 넘으려고 하는 그 때 “야 산이 날아온다”고 여자가 소리치자 구름처럼 두둥실 공중에 떠서 날아 오던 산이 그만 그 자리에 내려 앉고 마니, 지금까지 평지였던 그 곳에 산이 생기게 되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파·날미·날매 등으로 불렀고 그것이 전하여 오늘의 비산동이란 동명이 되었다. 만약 이 여자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면 그 산이 어디까지 날아가 어떤 경치를 베풀었을까 모르는 일이다.

2. 자갈마당

자갈마당은 지금부터 50여년 전만 해도 저습지대로 쓸모없는 황무지였다고 한다.

그러나 6·25후 대구에 점점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되자 이곳은 대구의 북쪽 관문 구실을 한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이 일대 전체가 넓은 장터로 변했다. 그래서 한 때는 “넓은 마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특히 이곳은 빨감(주로 갈비·소나무잎이 마른 것)과 구들장을 팔기 위하여 인근 시골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었다.

그러나, 비만 오면 땅이 질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으므로 자갈을 많이 깔아 놓게 되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넓은 마당” 대신 “자갈마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IV. 南區

1. 대명동의 유래

大明洞은 본래 상수 서면의 지역으로서 대명골이라고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암동을 병합하여 대명동이라 해서 달성군 수성면에 편입되었다가 1918년 지방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 대구부에 편입되는 동시에 일부지역을 갈려서 대봉동에 넘겨 주었다. 흔히 동네 이름을 지을 경우에는 명지 즉, 그 지방에서 월등한 것, 빼어난 것 등에 의해서 짓는다.

조선조 말엽에 달성군 하수 서면이 달성군 수성면으로 바뀌었는데, 수성면에는 14개의 동이 있었다. 그 중 대명동이 으뜸이었는데 대구의 달성공원을 위시하여 큰 두덕이 있기 때문에 언덕구(邱)를 사용하여 大邱라고 사용했듯이 대덕산 아래 제일 크고 밝은 동네라고 하여 대

명동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전설도 있다. 임진왜란 당시 명라나의 진린장군의 막하에 杜장군이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끝나자 우리나라에 귀화해 이곳에 살았기로 큰(大)나라인 明나라 장수가 산다고 하여 대명동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V. 北區

1. 鳥山(造山)에 얹힌 전설

고려 초기(신라시대라고도 한다), 무태(지금의 대구직할시 북구 서변동)에 은씨 집안이 부락을 이루고 살았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무태는 지금의 지형과는 무척 달라 마을 앞에 내(川)가 있었고 은씨들은 방우들에 살았다 한다.

은씨 집안에는 대단한 부호 한 집이 있었는데 명문 집안답게 손님들이 끊일 새가 없었다. 은씨집 종부는 손님을 대접하느라 귀찮고 힘이 들어 어떻게 하면 손님이 오지 않을까 고심하였다.

어느날 大師가 집에 시주를 오니 종부가 그 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손님이 어떻게 하면 오지 않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스님은 집 뒤의 산을 파헤치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것이라 하였다. 집안이 망하면 자연히 손님이 끊어지니, 그것은 집안을 망하게 하는 방책이었다.

이런 당연한 이치를 망각한 종부는 남몰래 북으로 보고 머리를 감고 몸을 깨끗이 한 후 하인과 인부를 시켜 산을 파 없애게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산을 파 내려 가니 학이 세 마리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그 후로 대사의 말은 적중해서 종부의 남편을 비롯해 은씨 집안의 남자들은 하나 둘 죽어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였다.

은씨집 종부는 그제사 뉘우치고 하인을 시켜 산을 다시 이루게 하였으나 날아간 학은 돌아오지 않고 집안의 살림도 다시는 일어서지를 않았다고 한다.

그 뒤 사람들은 학이 날아간 그 산을 가리켜 鳥山이라고도 하며, 은씨집 종부가 다시 산을 돌로 쌓아 올리게 하였다고 하여 造山이라고도 한다.

당시의 은씨들은 지금은 무태에 겨우 2, 3호 집안만 살고 있을 뿐이며, 조산은 지금 고속도로가 산 아래로 지나고 과수원이 생겨 흔적은 별로 찾을 수 없고 지리만 확인 될 뿐이다.

2. 말샘의 전설

서변동 아랫마을 뒷산 중턱에 능성구(具)씨의 큰 재실이 있고, 그 맞은 편에 “말샘”이라 불리는 조그마한 샘이 하나 있다. 그에 얽혀 내려오는 전설은 다음과 같다.

조선조 중기,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수십년전 이곳 뒷산 저편 그러니까 지금의 조야동 뒷산인 함지산에서 그 산의 정기를 이어 받은 한 장군이 내려왔는데 그 장군이 지금의 말샘에 이르자 한 마리의 준마가 솟아나와 그 장군을 태우고 무태앞 들을 내달렸다.

그때 장군이 갖고 있던 말채찍을 분질러 한가지는 무태 앞 들에다 꽂고 나머지는 무태에서 제일 높은 산봉인 가남봉 정상에다 꽂았다고 전하는데, 무태 앞 들에 꽂은 가지는 지금도 주민들이 당나무라 하여 현존되어 있으나, 그 나무의 굴기로 보아 수령이 다소 의심스러우며 가남봉 정상에 꽂은 나무는 크게 자라 “마치나무(말채나무에서 유래)”라 하였으니 주민들도 모두 위험하게 생각하고 그 나무를 신성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십여년 전 이 산에 산불이 크게 나서 나무의 대부분이 소실되고 밀둥치만 남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약에 쓰인다고 캐어가 버려 지금은 구덩이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일설에 의하면 그 장군은 임란때 크게 활약한 김덕령장군이라고 하며, 그때 말을 내달려 무태 앞들을 지나 가남봉으로 올라가 말 채찍을 정상에 꽂고는 단숨에 팔공산 쪽을 향해 뛰었는데 그 때 남은 말발굽 자리가 지금의 연경동 뒷산에 있는 말발굽바위라 한다. 말샘은 지금은 물줄기가 말랐는지 맑은 물이 솟아 오르고 있지는 않으나, 물은 계속 그대로 괴여 남아 있다.

3. 광야제에 얽힌 전설

북구 매삼1동 솔야(松野)에는 廣野堤라 하는 거대한 못이 있다. 이 못에는 다음과 같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고려시대 어느 왕 때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여기에 노씨라는 성을 가진 집안이 살고 있었다. 노씨는 아들 8형제를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영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형제들이었다고 한다.

어느 해, 8형제는 함께 과거에 응시하여 한 사람의 실패도 없이 모두가 과거에 급제를 하여 관직에 나아가 그들의 뜻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니 가문도 역시 나날이 번창해 갔다고 한다.

그러나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서 8형제는 삭탈관직을 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가가 다시 기운을 찾아서 발흥하지 못하도록 노씨의 집을 헐어서 못을 만들고 이 집안의 가재도구를

함께 수장시켰다고 한다.

이후에 사람들은 수장된 물건에 손을 대면 반드시 재앙을 받는다고 하여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고 전한다. 그러나 정말로 가재도구가 수장되어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고, 다만 광야제라는 이름만이 전해 내려 오고 있을 뿐이다.

4. 脫鞍바위에 얹힌 전설

북구 매천동에 가면 ‘탈안바위’라는 이름의 바위가 있다.

이 바위가 ‘탈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이다. 임진왜란 당시에 왜인들은 부산포에 상륙하여 온갖 노략질을 일삼으며 자꾸 자꾸 북상하여 마침내 대구 근교의 팔달교가 있는 금호강 강변에 왜인들이 진을 치고 칠곡 쪽으로 진격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경상감사는 이 탈안바위 부근에 소수의 병력으로 방어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상감사는 막강한 병력을 상대하여 싸우기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는 격이라 생각하여 이곳의 지리적 조건을 잘 이용했다. 그리하여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병사와 군마를 탈안바위에 모이게 하여서 병사들로 하여금 말 안장을 벗게 하여 그것을 모두 바위 위에 놓아두고 휴식을 취하는 시늉을 하게 했다. 왜인들은 금호강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군의 진영을 환히 바라볼 수 있었다. 조선군들이 태평스럽게 말 안장을 벗어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여유를 보아서, 필시 대규모의 병력이 숨어 있음을 틀림없다고 판단한 왜장은 왜군을 철수시켰다고 한다.

5. 작살고개와 배자(裴蔡)못

북구 경북대학교 동북쪽에 있는 배자못은 원래 배채못이라고 불렀다.

이 부근에 배씨와 채씨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인가 이곳에 살던 사람중에 逆心을 품은 사람이 나타났다. 힘이 장사인 그는 어려서부터 전쟁놀이를 즐겼고 그 때마다 장수역을 맡았다. 그가 차차 자라남에 마음속에 역심을 품게 되고 은근히 부하들을 끌어 모으고 무기를 준비했다. 수백명의 부하가 모이고 무기 준비가 끝난 어느날 그들은 작당하여 관아가 있는 시내를 향하여 진격했다.

그들이 고개 마루 턱에 다달았을 때 소식을 듣고 달려 오던 관군과 맞부딪쳤다. 한동안의 혼전 끝에 반군들이 대패하여 혹은 죽고 혹은 달아났다. 그 후 이 고개를 반군들이 대패한 곳이라 하여 작살고개라 부르게 되었고, 배채못은 세월이 지나 오는 동안에 배자못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VI. 壽城區

1. 정려각에 얹힌 하광신의 효행

만촌동에 있는 하효자 정려각은 대구는 물론 경북지방 일원에서 가장 오래된 효자비의 하나로 고려시대에 이부상서를 지낸 하광신의 지극한 효성을 기리기 위해 조정에서 정문을 내려 세운 것이라고 한다. 하광신은 달성 하씨로 달성 하씨의 시조는 중국 송나라 대도독이었던 하흠인데,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그 후에 아들 하용이 고려를 침공하는 오랑캐를 무찔러 큰 공을 세우자 조정에서 달성군에 봉했는데, 이때부터 하씨들이 대구에 많이 살게 되었다. 하광신은 하용의 손자로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의 효성에 대한 얘기는 술하게 많은데 그 중에는 이런 것이 있다.

광신의 어머니가 몇해째 중병이 들어 있었다. 아직 눈이 다 녹지 않아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늦겨울이었다. 병상의 노모는 갑자기 복숭아를 찾았다. 효심이 지극한 광신이었지만, 기가 찼다. 엄동설한에 어디에서 복숭아를 구해 온단 말인가! 광신은 아무리 궁리를 해 보아도 복숭아를 구할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 자신의 효성이 부족함을 한탄하였다. 어느새 날은 어두워졌는데, 곁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언제 왔는지 모르게 송아지만한 호랑이가 한 마리 서 있었다. 광신이 기겁을 하여 달아나려 하다가 당장 호랑이에게 물려죽을 것만 같아, 가만히 있으니까 호랑이는 광신에게 덤벼들기는 커녕 그 앞에 엎드리더니, 꼬리로 자기등에 올라타라는 시늉을 하였다. 광신은 영문도 모르고 겁에 질린채 호랑이 등에 올라 탔다. 광신이 올라 타자마자 호랑이는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렸다. 켓전에 찬 바람이 스치기를 한참, 호랑이가 달리기를 멈춘 것 같아, 호랑이 등에 찰싹 달라 붙은 채 감았던 눈을 떠 보니 깊은 산속인데, 저만치 외딴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광신이 기이하게 여겨 불빛이 새어 나오는 집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주인이 방문을 여는데 광신의 눈에 막 제사를 마친 제삿상 위에 높은 불그스럼한 복숭아가 보였다. 다짜고짜로 방으로 들어간 광신은 사정을 얘기한 뒤 복숭아 한개를 달라고 간청하였다. 집주인은 광신의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깜짝 놀라며, 매년 집 주변 산에서 자생하는 산복숭아를 몇 접씩 따다가 식구들이 먹고, 그 중 싱싱한 것을 남겨 두었다가 부모님 제삿상에 올리는데, 신기하게도 여느해 같으면 저장해 둔 복숭아가 겨울을 지나는 동안 대부분 썩고 겨우 한 두개만 쓸가 말까 했는데, 그 해에는 성한 것이 여러 개 있어 그것을 모두 제삿상에 돌려 놓았는데 하효가 같은 사람을 위해 하늘이 도운 모양이다라고 감탄하였다. 광신은 주인이 주는 복숭아를 받아 들고 몇번이나 인사를 한 후,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다.

그 뒤 어머니는 광신이 간호한 보람도 없이 세상을 떠나자 광신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3년동안 정성껏 시묘살이를 했다. 이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충숙왕은 정문을 내려 그가 살던 마을에 세우게 하고 그의 자손에게는 특별히 부역까지 면해 주도록 했다고 한다.

2. 황금동의 못안과 봉천

손흥량 어른이 죽은 지 450년 쯤 된 직^ㄱ “못안”과 뒷산 너머 “봉천”에 이런 전설이 전하고 있다.

이곳 손씨 집안 어른 중에 손아무개라는 어른이 살았는데, 늦게사 아들 하나를 얻었다. 이 아들이 나이가 차서 장가를 보내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로 색시감을 구하러 다니다가 마침내 뒷산너머 마을에 이쁜 딸을 가진 김아모개라는 집안을 찾았다.

그래서 사주단자를 주고 받고 혼례날짜를 잡고 분답스럽게 혼례 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혼례식을 올리기도 전에 마을에서는 수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색씨감은 김아모개의 셋째 딸인데, 일찍부터 낫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을 기다린다는 소문이 났다. 그래서 손아무개는 부랴부랴 사람을 보내서 수소문을 해 보니 그 소문대로였다. 분답스럽게 혼례 준비를 하고 있던 식구들이 그만 장가 보내는 것을 그만 둔다고 색씨집에 파혼 통지를 보냈다. 장가 간다고 들며 있던 아들은 그만 앓아 눕고야 말았다. 손씨 집에서는 늦게 자식을 얻어서 혼례를 치를려고 하던 것이 이 무슨 날벼락이냐고 모두들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한편, 뒷산 넘어 색씨 집안에도 큰 일이 났다. 혼례만은 치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지경이 되고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온갖 정성을 다 드려 가지고 키운 딸 자식을 고이 키워 시집보내려고 하는데 일이 이 지경으로 되고 보니 하늘만 보고 한숨만 쉬고 있었다. 그런데 희안한 일이 이때부터 터졌다.

색씨감을 비록 보지 못했어도 파혼 후로 늘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병이 든 아들이 몸져 누워 있다가 그만 마을 앞 못에 빠져 죽고야 말았다. 그 후에 마을 사람들은 못에 빠져 죽은 손씨 아들을 위해 못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굿을 해 주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을 못안이라고 했다. 아들이 죽은 후 그 못은 온통 흙탕물로 변해 있었는데, 굿을 해 주고 나니 못물이 아주 깨끗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못안”을 淸湖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한편, 파혼 당한 김 처녀는 신랑 될 사람이 못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글프게 울다가 그녀도 또한 못에 빠져 죽었다. 혼례못한 처녀가 하늘을 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 죽었다고 해서 ‘하늘을 우러르다’란 의미로 마을 이름은 이 못과 함께하여 奉天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VII. 達西區

1. 義馬碑

상인동에 낙동서원이 있는데, 그 안 마을이 월촌이라고 한다. 그 월촌 못안에 의마비가 있는데, 임진왜란전에 단양우씨가 이 마을에 많이 살았다고 한다.

단양 우씨 중에 호가 월복봉이라는 종손이 있었다. 그는 어릴 때 조실부모하고 청도땅 외가에서 살다가 9살에 고향에 와서 공부를 하였다. 이곳 낙동강 평야에 조암평야가 있는데, 당시는 하언 공사가 안되어서 갯벌이나 다름 없었다. 그리고 물이 빠지고 나면 허허벌판이 되어 그 곳에 야생마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성질이 사나워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말을 월복봉이 다루니 그를 잘 따랐다. 그 후 임진왜란 때 월복봉이 의병장이 되어 이 말을 탔는데 말이 총명하여 적의 화살이 주인에 날아 오면 무릎을 꿇어 주인을 여러 번 구하였다. 난이 수습된 후 월복봉이 공을 세워 일등공신이 되었지만 얼마후 월복봉은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자 이 말은 먹이를 먹지 않고 울기만 하더니 사흘만에 죽고야 말았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이 말을 의마라하여 의마총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의마총은 일제 말기 상인지 확장공사로 수몰되고 말았으므로 그 후 사람들이 뜻을 모아 그 못가에 의마비를 세웠다.

2. 석샘의 전설

월배에서 동으로 대덕산과 정룡산을 향하여 20km쯤 가면 ‘달배고’ 또는 ‘달비굴’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에서 月背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 골짜기를 깊숙히 들어 가면 깎아 세운 듯한 충암절벽이 솟아 있는 아래에 바위 굴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석샘’이다. 이 굴은 상하좌우 사방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석실이다. 이 굴속의 천정에는 사시로 일정한 양의 맑고 찬 물이 떨어지는데 이 물은 위장병과 임질같은 병에 특이한 효과가 있어 약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석샘’에 전해져 내려 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전 이곳 절벽 아래에 석주암이란 아담한 암자가 있었는데, 이 암자에는 주지승 한 사람과 10여세 되는 상제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때는 지금 약수가 떨어지는 천정의 바위 틈에서 쌀이 조금씩 떨어 졌다고 한다. 이 쌀을 하루 종일 모아야 중과 상제 두 사람의 세끼 밥을 지어 먹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이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출타하면 한 사람분만 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매일 같이 밥만 먹고 살던 상제가 떡이 먹고

싫어져서 주지승이 없는 날을 살피 부짓깡이로 많은 쌀을 얻으려고 마구 수렸더니, 쌀은 나오지 않고 찌꺼기가 흘러 나오더라는 것이었다. 그 후로 얼마가지 않아서 암자는 망해 버리고 이제 그 터만 전할 뿐이다.

이 ‘석샘’의 물이 약수로 알려진 것은 불과 수십년 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산세가 험하고 깊어서 그 동네 주민들도 한 번씩 가려면 애를 먹어서 인적이 뜸하다고 한다.

【참고문헌】

大邱直轄市·慶北大學校, 《八公山》, 1987.

大邱直轄市·慶北大學校, 《八公山》(續集), 1991.

編輯委員會 및 執筆委員

《編輯委員會》

| | | |
|-----|-----|----------------|
| 委員長 | 金英夏 |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副委員長 |
| 委員 | 尹容鎭 | 慶北大學校 教授 |
| | 金相榮 | 慶北大學校 教授 |
| | 崔龍浩 | 慶北大學校 教授 |
| | 朴勝偉 | 嶺南大學校 教授 |
| | 金宅圭 | 前 嶺南大學校 教授 |
| 幹事 | 金若秀 | 大邱市史編纂委員會 研究員 |
| | | (分科別順) |

《執筆委員》

| | |
|-----|-----------------------------------|
| 宋春永 | 大邱教育大學校 教授 (1章) |
| 金周漢 | 嶺南大學校 教授 (2章 1節) |
| 柳基龍 | 慶北大學校 教授 (2章 2節) |
| 金景培 | 慶北大學校 教授 (2章 3節) |
| 孫泰龍 | 嶺南大學校 講師 (2章 4節) |
| 金元重 | 浦項工科大学校 教授 (2章 5·6·7節) |
| 權沅純 | 啓明專門大學 教授 (2章 8節) |
| 孫錫琦 | 嶺南日報 社史編纂室 執筆委員 (3章 1·2節) |
| 朴英圭 | 大邱文化放送局 常務理事 (3章 3節) |
| 尹容鎭 | 慶北大學校 教授 (4章 1節, 2節 I·II·III, 3節) |
| 李來華 | 慶北大學校 教授 (5章) |
| 蔡洙翰 | 嶺南大學校 名譽教授 (6章 1節) |
| 金吉洙 | 카톨릭神學大學校 教授 (6章 2節) |
| 朴容圭 | 嶺南日報 論說主幹 (6章 3節) |
| 朴承吉 | 曉星女子大學校 教授 (6章 4節) |
| 金宅圭 | 前 嶺南大學校 教授 (7章 1~6節, 4章 2節 IV) |
| 李長燮 | 韓國文化藝術振興院 文化發展研究所 研究委員 (7章 1~6節) |
| 權寧徹 | 前 曉星女子大學校 教授 (7章 7節) |
| | (執筆順) |

大邱市史第五卷

1995年 1月 18日 印 刷

1995年 2月 20日 發 行

發 行 大 邱 廣 域 市

編 著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印 刷 大邱慶北印刷工業協同組合
